



5

주체 96 (200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6 (2007)년 제5호

(루계 제 715 호)

◆◆◆◆◆◆◆◆◆◆

차 례

◆◆◆◆◆◆◆◆◆◆

오늘도 그날처럼	3
나의 청산벌에	3
뜨거운 축복을 보내주신다	4
《토벌》대가 받은 명령서	5
전조선의 새벽노을	7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8
축복받은 대학의 교정에서	8
위대한 수령의 슬하에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태어난다 (1).....	9
먼저 읽어야 할 책	11
보통강의 푸른 버들아	11
《전당》을 세운 《건축술》	12
해방산의 다듬이소리	14
높은 위치	15
주체문학의 대강	26
그이의 하나	26
하나에 대한 생각	27
우리 삶의 교과서	28
땅의 주인	29
할아버지	29
아버지	29
나	30
병사와 새둥지	30
선군령장의 위대한 생애에 대한 칭송의 노래	31
옥이	35
오신 날	46
《진주보석》으로	46
대령강, 대령강아 (외 1 편)	47
태천의 맑은 물	48

태천이라 네 이름은	48
언제와 청춘과 사랑	49
빛과 열이 태어나는 곳에서	49
탄을 떠나보내며	51
태천의 기상 내려치는 시대의 목소리	52
래일을 안고있는 땅	54
푸른 싹	54
물이 오는 소리	56
합격이래요	57
또 만났어요	57
돌아온 반지	58
여기는 기슭이 아니다	72
환송역두	73
젊은 벗들에게 다시 하고싶은 말	75
자결로써 반일항전을 호소한 황현	76
우리 집에도 병사가 있으니	77
별을 그리는 처녀	78
전선을 타고 방답포로 향하며	79
운주헌에서	79
홍의장군	79
수군을 훈련시키며	79
세상을 근심하노라	79
작가의 거울	80

오늘도 그날처럼

김승남

나의 집은 수령님 다녀가신 집
오늘도 대문가에 서면
조용히 문두드리는 소리 들리는듯싶구나
—주인님 계십니까?
우리 몸에 폭 배인 친근하신 그이 음성
울렁이는 이 가슴에 들리는듯싶구나

아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사신 아버지
해쓷은 아침이면 인민들이 보고싶어
별이 돋는 저녁이면 인민들을 위해서
찾고찾으신 그 발걸음이
그날 여기 우리 집 프락에도 이어졌구나

머슴살이에 터갈라진
내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아주시며
분여받은 땅은 얼마나 되는가 물어도 주시며
아래목의 온기까지 가늠해주실 때
발고랑같이 주름진 할아버지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넘치지 않았던가

아 날저문 그 봄날에 돌리신 우리 집
그것이 우리 수령님
그렇듯 바쁘신 현지지도였고
우리 집 식구들과 마주앉으신 그것이
미룰수 없는 국사중의 국사였으니

한평생 인민들의 집을 찾으시며
취임없이 걸으신 길 그 얼마랴
수령님의 한평생은
인민들과 한집안식구되신 위대한 한평생
그래서 인민의 심장속에
오늘도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수령님

이른아침 자고깨면
다정히 문두드리는 소리 들릴듯싶은 대문가에서
수령님의 친근하신 그 음성
한가슴에 안아보며 뜨거운에 젖나니
—주인님 계십니까?

깊은 밤 잠자리에 들어도
수령님을 금시 뵈울듯싶어
더없이 간절해지는 그리움속에
수령님 생각으로 가슴불태우며
잠 못 이루는 우리 인민들

오늘도 수령님 기다리는 그날처럼
아버이장군님을 그리며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인민의 다함없는 심정이여라
인민의 불타는 마음이여라

나의 청산벌에

문동식

우리 수령님 계시는 벌
그이의 숨결 후더운 땅이여서
내 이 봄날에도 손에 쥐고 못 놓는
내 고향 청산벌의 흙이여

오시면 마치
이 고장의 실농군이 되신듯
만져보고 또 쓸어보고
때로는 한줌쥐여 냄새도 맡으시던
자애로운 아버지 우리 수령님

청산리는 벼고장 쌀고장이라고
그 쌀을 인민에게 흔하게 주고픈
그것이 나의 제일 큰 소원이라고
그래서 나는 청산벌에 오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수령님의 그 진정 그 사랑

배미마다 어려있는 이 청산벌
귀기울이면 들려오는구나
명석우에 농민들과 무릎 마주하시고
해지도록 농사일 의논하시던
그날의 아버이의 다정하신 음성이

봉상강에 흘러드는 서해의 짙물에
누렇게 시들어가는 벼포기를 보시고
손으로 논물의 맛까지도 가늠하시던
양수기를 배에 싣고 역수하는 방법까지
그리도 자상히 가르쳐주시던
인민의 아버지 우리 수령님

온도계를 드시고 도랑결에 앉으시여
논물의 온도도 재여보시며
이 청산벌에 생명의 단즙을 주신분
겉이대로 포전에 거름도 퍼시며
소박한 농민들과 함께 계신분

별이여 푸른 청산별이여
너는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고 아껴주고 내세워주는 그 정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처음 내놓으신
우리 수령님의 은혜 이랑이랑 깃들여
이리도 기름진 토양이 되었거니

한줌 흙 쥐여보아도
땅속 끝까지 배여있는 어버이정
내 가슴에 끝모를 무게로 안겨드는 흙이여
깃들여 이 몸의 피와 살이 되어
내 넋을 이 땅과 맺어주는 흙이여

흙이라도 청산별의 이 흙은
온 나라의 금나락 설레임소리
다 들려오는 조국의 전야

땅이라도 이 땅은
행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웃음소리
다 들려주는 사랑의 대지

나는 살리라
우리 인민의 후손만대의 만복을 위해
온몸을 헌헌히 불태우시던
수령님의 그 로고 어려있는 이 청산별에
내 몸과 넋을 다 합치며

아, 나는 살리라
나의 청산별 이 들판에
더 무겁도록 이삭을 가꾸며
아버이 우리 수령님께
내 삶의 전부를
무르익은 열매처럼 다 바쳐가리라

뜨거운 축복을 보내주신다

전승일

꽃보라
축포의 불꽃보라 하늘을 덮은
평양의 밤 명절의 밤
우리 장군님
물결쳐가는 해불바다 《ㄷ.ㄷ》의 글발우에
뜨거운 축복을 보내주신다

오래도록 손길을 내리우지 못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선
아마도 뜨거운 격량이 일고계시리
헤쳐온 우리 혁명의 장구한 력사가
대하되어 광광 노도쳐오고있으리

온 세상 눈길이
발돋움해 바라보는 평양의 이밤
강대한 조국을 두고
불패의 우리 당을 두고
그 얼마나 하많은 백승의 철리들을
력사의 총화로 이 세상앞에 새겨놓고싶으셨으랴

바로 그이의 그 마음이 화전의 기슭에서
조선혁명의 닻을 올린
저 글발 《ㄷ.ㄷ》를
불의 바다우에 불타는 진리로 새겨놓으시였구나
자신의 신념처럼 억척의 맹세처럼
평양의 밤하늘에 굽이쳐흐르게 하시였구나

오, 정녕
조국이 《ㄷ. ㄷ》의 기치를 들지 못했더라면
눈물겨운 해방년의 환호는
어떻게 삼천리를 진동했으랴
미제의 운명을 《함정골》에 처박고
어떻게 영웅의 나라로
불사신같이 일어설수 있었으랴

깊은 밤 이른새벽
눈덮인 철령을 넘으실 때에도
우리 장군님 심중에선
《ㄷ. ㄷ》의 불이 일어번지셨어라
선군의 총대로 제국주의와 결판을 낼
우리 수령님 지퍼주신 불이 활화산처럼
일어번지셨더라

이 땅에 만년세월이 흐른다 하라
지구의 공전이 떠지고
천지동란이 일어번진다 하라
하나 새 세기의 운명을 책임지신
우리 장군님 심중에선
단 한치도 《ㄷ. ㄷ》의 글발이 퇴색되지
않으리니

평양의 밤 명절의 밤
물결쳐가는 해불바다 《ㄷ. ㄷ》의 글발우에
우리 장군님 뜨거운 축복을 보내주신다
조선의 영원한 맹세 《ㄷ. ㄷ》의 글발우에
위대한 태양의 빛을 엮어주신다

《토벌》대가 받은 명령서

세상에는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군대는 자기 상부의 명령에만 절대복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다.

어느 나라 력사에도 군대가 상대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례는 없다.

그런데 일제의 한 비밀경찰자료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본년 벽두에 이르러 장백지구의 군대, 경찰내부에 <통비분자>들이 생겨나 직무에 태공하고 심지어 <공비>의 요구에 복종하는 경향까지 우습하게 나타나고있다.》

적들의 내부에서 이러한 비명이 울려나오게 된 데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조국해방을 앞둔 어느해,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잠시 장백지구로 나오신 때의 일이라 한다.

김일성장군님부대가 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장백지구를 들끓다놓았다.

그 소문은 왜놈관동군사령부안을 쭈서놓은 별동지처럼 만들었다.

관동군사령관놈은 일제 병력을 총 출동하여 **김일성**장군유격대를 없애버리겠다고 미쳐날뛰었다.

하여 산이란 산은 《황군》의 누런 군복으로 한 벌 쪽 덮이었고 길목과 도강장, 다리들에는 검열 단속초소가 세워졌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자이거나 식량이나 소금과 같은 짐을 지고 다니는자는 모조리 검거색출하라는 명령서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유격대는 어찌된 영문인지 산속을 포위하면 도회지를 답새기고 성시를 지키고있으면 밀림속에서 학습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까지 추었다.

그야말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했다.

악에 받친 사령관놈은 검질기게 병력을 들이밀었다.

왜놈들이 아무리 많은 병력을 들이밀고 또 들이밀어도 결국 왜놈들의 모가지는 추풍락엽으로 땅위에 떨어졌다.

일이 이쯤되니 인민들의 사기는 이를데 없고 반대로 왜놈들은 침맞은 공처럼 쭈그러들어 유격대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판이었다.

눈보라가 몹시도 이는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

장백일대의 군대와 경찰들로 그러모은 한 지구 《토벌》대에 뽀얀 눈발을 일으키며 군마 한필이 달려왔다.

해빛에 철갑모를 번뜩이며 말에서 뛰어내린 련락장교놈은 곧장 《토벌》대의 대장놈 방으로 들어섰다.

《보고! 17도구군방에 **김일성**장군유격대가 나타났으니 긴급출동하라는 토벌사령부의 명령서입니다.》

《뭣이?!》

대장놈은 **김일성**장군유격대라는 말에 불에 덴 소처럼 와들 놀랐다.

명령서에는 며칠 몇시까지 어디로 가서 **김일성**장군유격대를 《토벌》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음-》

대장놈은 상을 찌프렸다, 자기의 상관인 《토벌》사령관은 명령집행을 조금이라도 태공하거나 늦잡는 경우 군사재판에 넘기겠다고 단단히 그루를 박아 엄포를 놓고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출동해보았댔자 제놈들이나 개죽음을 또 당할건 뻔한 일이라 어쨌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토벌》대장놈은 전번 《토벌》에서 줄병들을 거의다 잃고 눈속에 묻혀 얼어죽을번 하다가 가까스로 살아온 일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이제는 줄병들속에서 유격대란 말만 들어도 미쳐버리는 일이 드문했다.

이때 책상위에 놓인 군용전화기가 깨어져나갈 듯 요란스럽게 울어댔다.

지체말고 《토벌》에 진입하라는 《토벌》사령부의 독촉전화일것이다.

아닐세라 《토벌》대장놈의 수화기를 쥔 손이 후들거리고 얼굴은 혼맹이 빠진 놈 모양으로 하얗게졌다.

《명령서를 받았는가?》

《하! 방금 ...》

《천왕폐하의 아들답게 이번 토벌에서 야마도다 마시이의 정신을 발휘하라. 만일 출동을 늦잡거나 뒤걸음치는자, 불평분자, 동요분자들은 즉석에서 총살하라!》

《하...》

하느수없이 《토벌》대장놈은 또 헛병대며 경찰대, 자위단까지 총출동하라고 소레기를 질렀다.

이어 각 경찰분서들에서 순사들이 달려오고 《토벌》대를 실은 군용차들이 발동을 걸었다.

개털외투를 든든히 입고 옆구리에 긴 칼을 찬 《토벌》대장놈이 귀신상자인 《가미다나》앞에서 제발 이번 《토벌》에서 제놈의 목숨만이라도 불

어있게 해달라고 딱딱 박수를 치며 빌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문이 벌럭 열리면서 찬 바람과 함께 온통 눈가루를 뒤집어쓴 지구경찰서장이 겁에 질려들어왔다. 《대장님! 방금 이런것이...》

《그게 뭐가?》

경찰서장놈은 반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장을 꺼내들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우리는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이다. 우리 부대가 3일동안 17도구에서 숙영하게 되니 다음과 같은 물품을 시급히 보낼것이다.

만일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곧 군사행동을 개시하여 네놈들을 전멸시키겠다.》

아래에 보내야 할 물품명세와 그것을 가져다놓을 장소가 기입되어있고 마감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글이 큼직하게 쓰여있었다.

《토벌》대장놈은 다시한번 《명령서》라고 쓴 글을 읽고는 경련이 일듯 다리를 후들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제는 수차 《토벌》에 참가하여 능구렁이로 변한 놈이라 이번 일을 두고 서둘러 결심을 내리지 않았다.

우선 자동차의 발동을 끄게 하고 경찰, 헌병, 자위대 등 우두머리 몇놈을 제 방으로 불러들였다.

책상우에는 《토벌》사령부의 명령서와 조선인민혁명군의 명령서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놈들의 눈길은 혁명군의 명령서에서 당장이라도 벼락치는 조화가 일어날것 같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있었다.

대장놈은 졸개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제법 위엄을 둔구느라 헛기침을 낚았다.

《다들 보는것처럼 똑같은 시간에 우리 <토벌>대에는 두통의 긴급명령서가 도착하였다. 방금 군들의 눈으로 보았겠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군들의 의향을 말해보라!》

그런 다음 돼지같은 경찰서장놈의 상통이며 팔자수염의 헌병대장교, 또 늘 술을 처먹어 코에 주독이 뿔꺽게 올라있는 자위단장 순서로 한놈한놈을 눈자국이 나게 쏘아보았다.

모두 꿀먹은 벙어리모양으로 누구도 입을 열려고 안했다.

《모두 벙어리가 되였는가?》

《토벌》대장놈이 쾅 책상을 치며 일어났다.

《본관은 지금껏 제군들을 친형제와 같이 여기며 사지동고를 해왔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엄숙한 시각에 작전에서 실수가 없도록 본관을 도와 나서야 할게 아닌가! 경찰서장! 군이 먼저 유격대의 명령서를 받게 된 경위를 말해주라.》

약삭바른 경찰서장이 상관의 속심을 저울질하며 비대한 몸을 풍선처럼 가볍게 일으켜세웠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했다. 즉 어제 밤 자기들의 관하구역에서 유격대의 한 소부대가 류숙하고간 사건이 발생했다.

유격대는 백성들에게 이 지구의 《토벌》대장은 누구이며 경찰서장은 누구인가, 그중에서 어느놈들이 제일 악질인가를 묻고 수첩에 일일이 적더라는것이였다. 그리고 구장을 불러 이 명령서를 《토벌》대장에게 전하라고 했다 한다. ...

유격대의 수첩에 자기 이름들이 올랐다는 소리에 우두머리놈들은 기겁하여 비지땀을 흘렸다.

《유격대가 우리의 일거일동을 날날이 알고 또 속속들이 보고있는것이 분명한데 감히 서뽈리 놀았다가는 안될줄로 압니다》

경찰서장의 말이였다.

대장놈은 여전히 제 속심을 내비치지 않고 《그랬다가 토벌사령부에서 이 일을 알면 어떻게 되겠는가?》하고 넌지시 물었다.

경찰서장놈은 그 물음에 처침없이 대답했다

《전번 15도구의 일을 잊었습니까? 그때에도 유격대의 명령서가 내려졌는데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가 정말로 유격대가 나타나 대장이하 몽땅 몰살시키고말았지요.

유격대는 한번 한다면 하고야마는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지금껏 입을 꼭 다물고만 있던 헌병대의 장교가 도끼눈을 해가지고 뜨부럭거렸다.

《서장! 그대 당신은 어떻게 하자는거요? 결국 유격대의 명령을 따르자는 소리인데 대일본제국의 경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경찰서장은 코웃음을 쳤다.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장아지같은게...》

《뭐라구?》

헌병장교는 권총을 쑥 뽑아들었다.

경찰서장도 네따위는 어림없다는듯 총구를 마주댔다.

서로가 승냥이처럼 으르렁대는 속에 대장놈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과연 어느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두 총구가 자기를 지긋게 겨누고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밤새도록 목에 피대를 둔구는 놈들을 가까스로 떼말린 후 대장놈은 일단 래일 아침 《토벌》에 나가보기로 락착을 지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대장놈은 눈이 뒤집힐 소식에 접했다. 간밤에 집으로 간 헌병장교가 시체가 되어 나타난것이다. 그자의 등때기에는 《무모하게 날뛰지 말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쓴 경고장이 붙어있었다.

일이 이렇게까지 번져진 상황에서 《토벌》에 나간다는것은 섣단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격이었다.

대장놈은 오래동안 생각을 굴리던 끝에 《웁지!》하고 무릎을 탁 치며 일어섰다.

그길로 부랴부랴 《토벌》대를 끌고 떠났다.

대장놈은 먼저 척후를 세우고 유격대가 있을만한 곳이면 일부러 부대를 멈춰세웠고 돌파서서 탄길로 접어들기도 했다.

이런 놀음으로 며칠을 보낸 어느날이었다.

《토벌》대가 어느 수림속에 들어서는 순간 골안이 깨질듯 한 퇴성벽력이 울려왔다. 일시에 산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는듯 했다.

우뢰소리, 바람소리가 골안을 들부실듯 울리는 속에 산마루에서 별안간 호령소리가 들려왔다.

《이놈들! 모두 머리를 들지 못할가?》

그 소리에 놀라 산마루쪽을 보니 체구가 우람한 백두산대장수께서 불길이 펄펄 이는 눈으로 제놈들을 내려다보고계시었다.

놈들은 목을 움츠리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기만했다.

이윽고 백두산대장수께서는 《토벌》대장놈을 추상같이 꾸짖으시었다.

《어째서 우리의 명령서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는가? 명령을 여기는 경우 어떠한 벌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려주어야겠는가... 하긴 아직 하루동안의 여유가 있으니 죄를 묻기는 이르다. 명령을 여기지 말라!》

《토벌》대장놈은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주는것이 너무도 고마와 허리를 접으며 백두산대장수님께 각듯이 경례까지 붙이었다.

그길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황황히 되돌아온 《토벌》대장놈은 다시 우두머리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하달했다.

《본관은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오늘 토벌대는 모두 차에서 내려 17도구근방까지만 행군해갈것! 대신 군용차에는 유격대가 요구하는 물자들을 실어서 경찰대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호송해갈것! 이상!》

《토벌》대장의 명령하달이 끝나자 방안에 모였던 경찰서장이며 자위단장 등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통에 찬바람이 쓸어들어와 책상우에 놓여있던 다른 한장의 《명령서》를 땅바닥에 휴지장처럼 날려버렸다,

결국 《토벌》사령부의 《명령서》는 가랑잎처럼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날도 《토벌》대장놈은 말을 타고 유격대를 《토벌》한답시고 이리저리 돌아치다가 해가 기울기도 전에 되돌아왔다.

상부에는 유격대가 하도 신출귀몰하여 종내 그 행처를 찾지 못했다고 거짓보고를 했다.

한편 무기와 탄약, 식량, 피복물자를 실은 군용차들은 경찰대의 호위까지 받으며 지적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명령을 제 날자에 어김없이 수행한셈이었다.

전초선의 새벽노을

권래여

이른새벽 오실줄은 꿈에도 몰랐으나
하늘은 알았는가
비구를 씻은듯 가신 동녘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전초선의 새벽노을

그이의 환하신 미소에 불타는가
우리 장군님 안고오신 노을이여
펄펄 휘날리는 최고사령관기에
번쩍이는 아름답드리 포신들에
붉은 섬광 뿌리는 신비경이여

정의의 핵보유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령장 우리 장군님
전사들의 가슴가슴에
멸적의 불길을 채워주시려
붉게 타는 노을을 이끄시고
이 산정에 오르신듯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메아리에

하늘도 화답하는가
천리방선 무적의 성새우에
력사의 새벽을 펼치는 붉은 노을이여

강성대국의 러명을 안으시고
새벽에서 새벽을 열어오신
장군님의 야전차에 피어나던 새벽노을
장탄수의 배심커진 얼굴에도 물들어
하늘과 땅 온 누리를 밝히며 비껴가는
전초선의 노을이여

5천년 력사국의 운명을 지키여
무적의 철추로 미제의 코대를 후려쳐
핵시험성공의 장엄한 선언으로
천만대적 발밑에 디디고선
우리 장군님의 호령이
백승의 포신마다 붉게 타는
아 전초선의 새벽노을
내 조국의 미소여!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1939년 봄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무산지구로 진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5호물동으로 강을 건넌습니다. 리오송은 내가 업어서 건네주었습니다. 강을 건느면서 이게 무슨 강인지 아느냐고 물으니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대원들한테는 국경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압록강이라고 말해주자 그는 강물속에 내려놔달라고 졸랐습니다. 조국의 강물에 몸을 적시고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동가에는 진달래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조국의 진달래를 보자 모두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펼쳐진 풍경가운데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것은 녀대원들이 진달래무더기앞에 웅크리고 앉아 꽃구경을 하면서 울고웃으며 감격해하던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녀대원들은 두팔을 크게 벌려 진달래를 무더기채로 안고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얼굴은 웃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내리더라 말입니다.》

《그날 유격대원들은 이 꽃을 그저 진달래라고 하지 않고 조국의 진달래라고 불렀습니다. 조국의 진달래, 이 말속에는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며 광복의 봄을 앞당기고 해방된 조국강산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유격대원들의 열렬한 념원이 담겨져있었습니다.

나는 진달래꽃을 볼 때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나날들이 회상되어 시라도 읊고싶은 충동을 받곤합니다. 조국의 진달래, 백두산의 진달래, 연분홍색진달래, 조국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 얼마나 많은 뜻이 어려있는 아름다운 꽃입니까.》

축복받은 대학의 교정에서

최정용

멀리 흘러간 대학시절을
머리 흰 오늘에 다시 맞은듯
가슴은 끝모를 환희로 설레인다.
위대한 장군님 다녀가신 화학공업대학
번쩍이는 대리석층계를
내 축복받은 대학생들과 함께 오르나니

부디 나에게도 말을 걸어다오
받아안은 그 사랑 그 믿음에
한껏 가슴 들먹이는 대학생들이
그대들 열띤 학과론쟁에
나도 어울리고싶구나

차마 걸음 뻔수 없었노라
기쁘시여 진정 기쁘시여
우리 장군님 분에 넘친 치하를 안겨주신
과학전시관의 전시품들앞에서
과학으로 조국을 빛내인
궁지높은 삶의 숨결을 뜨겁게 호흡하며

어버이장군님 보아주신
실험실, 분석실, 과학착상관...
참으로 떠나고싶지 않았노라
최첨단과학기술의 평마루에로
비약의 나래 활짝 펼치라고
예지의 밝은 빛 뿌려주신 그 숭고한 뜻에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거니

눈부시다

은혜로운 사랑의 빗발아래
세상이 부럽도록 솟아오를
전자도서관이며 실험실들...
교사의 창문들을 더 밝게 해주라고
다심하게 보살펴준 그 은정에 받들려
새롭게 변모될 대학의 그 전경이

백발이면 어떠랴
이 가슴에 젊은 피 끓어오르나니
나도 마주하고싶다
젊은 대학생들과 어깨 나란히
첨단과학의 세계를 헤쳐가는
컴퓨터의 그 화면앞에
화학반응을 지켜 탐구의 밤 지새우는
은정님친 그 실험실창가에

희망의 나래 활짝 펴고 자라난
그 얼마나 미더운 과학자대군이
이제 이 교정을 나서게 될것인가
그날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은
또 얼마나 높이 비약할것인가

아 축복받은 대학의 교정에서
가슴 벅차게 안아보다
장군님품에서 새롭게 태어나
과학의 전당으로 더욱 빛날 그 앞날을
과학으로 담보된 강성대국
창창한 내 조국의 그 밝은 미래를

위대한 수령의 슬하에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태어난다 (1)

박춘래

작가 백인준은 훌륭한 작가는 수령의 사업에 도움을 주며 또한 수령으로부터 큰 힘을 얻는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말씀의 진리성을 확증하였다.

백인준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보살피심과 가르치심을 받으며 세계적인 대문호로 자라났다.

그는 작가로서 로력영웅이 되고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았으며 당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예총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여러가지 중요한 직무들에서 일하였지만 어느 하루도 창작의 붓을 놓지 않았다. 창작은 그의 체질화된 삶의 요구였다.

백인준은 50여년의 창작활동기간 수령옹위의 붓대, 지성과 량심의 필봉을 높이 들고 수령과 당의 작가, 혁명적인 작가로서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매 시기 당과 숨결을 같이 해오며 당에서 시와 노래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와 가사를, 영화와 연극이 필요하다면 혁명적인 영화문학과 희곡작품을, 가극이 필요하다면 혁명가극대본을 창작한 유능한 작가였다. 그는 피타는 탐구와 노력, 실력으로 명작을 많이 창작한 다재다능한 작가였으며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대외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한 훌륭한 사회정치활동가였다.

작가 백인준은 참다운 문학정신과 창작적열정, 생활에 대한 정열적인 사색과 탐구로 기념비적 명작들을 수많은 내놓은 세계적인 작가였다.

우리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에 그는 아직 이름 있는 작가가 아니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되어 세계적인 대문호로 자라날수 있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작가들이 로동계급의 문화를 건설하는데서 그 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작가를 당의 문필가로 키워주고 자라게 해준 따뜻한 해빛과 풍요한 대지, 맑은물. 갖가지 영양소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이었고 영명하신 지도와 사랑의 손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이 없었다면 그는 작가는커녕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꽃피우지 못할것이였다.

작가 백인준은 깊은 산간지대인 평안북도 운산군 영웅리의 화전마을에서 태어났다. 시골동으로 출생하여 어려서 산간지대농민들의 순박한 생활과 화전생활정서를 체험한 그는 시골서당과 사립학교를 나온후 가까운 친척의 도움으로 평양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안해의 경제적방조로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왜나라 릿교대학에서 철학공부를 하며 문학도 공부하였다. 이 시기 그는 문학에 대한지향과 포부는 높았으나 이끌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없고 삶과 창작의 옳바른 지도리념이 없었기에 암중모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장차 작가가 되려던 그의 푸른 꿈은 왜나라 놈들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혔다. 주체33(1944)년 왜나라침략군의 대포밥으로 중국 서주지방에 끌려갔던 작가는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왜나라 놈들의 총알받이노릇을 강요당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8.15조국해방과 함께 서울을 거쳐 38 선을 넘어 주체35(1946)년 4월에 고향에 돌아왔다.

그가 상해에서 귀국선을 타고 부산에 올라 서울에 이르렀을 때 미군이 감점한 그곳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험악하였으며 북에 대한 악선전도 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인을 북에서 마구 죽인다고까지 하면서 서울에 그냥 남아있을것을 권고하고 회유와 강박도 하였다. 그때 그에게는 아무런 정치적식견과 신념도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운명의 기로에 선 그에게 힘이 된것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시여 민주정치를 펴신다는 격동적인 소식이였다 그래서 그는 서울에 남으라는 권고와 회유, 협박까지도 다 물리치고 결연히 북으로 가는 길을 택하여 김일성장군님 계시는 북만부로 온것이였다.

고향에서 그는 그해 5월 30일부 《정로》신문을 보았다. 신문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5월 24일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이 실려있었다. 그는 이 로작에서 우리 문화예술의 진로를 보았으며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찾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앞에 놓고 그는 일체의 침략전쟁터에 끌려가서도 살붙이처럼 안고있던 시집원고를 훑어보았다. 시들의 내용이 모두 애매몽롱하였다. 하지만 왜나라 놈들동치의 그 압당한 시기 전문학교때부터 한편한편 창작해두

었던 그 시들은 그에게 있어서 피와 살을 나누어 준 혈육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것이 한편의 시집으로 묶어져 빛을 보게 될 날을 기다리며 삼엄한 일제의 눈을 피해 소중히 간수해왔던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가련하고 불쌍하였다.

《내가 이런것에 애착을 가지고 미련을 품고있었던 말인가. 과연 여기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는 시가 한편이라도 있던 말인가. 아니다. 지금처럼 쓰면 안된다.》

그는 그 시들이 새시대의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통절히 느꼈기 때문에 낡은 사회의 시대 감정과 단호히 결별하고 백지상태에서 아버지 수령님을 따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아무런 미련도 없이 결연히 성냥을 그어 시집원고봉테기에 불을 달았다. 그것은 노도 없고 키도 없는 쪽배처럼 운명을 기약할 수 없었던 식민지 청년의 과거를 흔적없이 태워버리는 인생전환의 불길이었다고 갈 길을 가로막고 순진한 문학도를 속박하던 사상정신적 찌꺼기를 한줄 채로 날려버리는 사상전환의 불길이었다. 시집원고봉테기를 다 불살라 버린 그는 가족들에게 말하였다.

《평양으로 가자. 우리 민족의 구세주이신

김일성 장군님 곁에 가서 살아가 한다.》

이렇게 되어 그는 고향에서 평양으로 오게 되었다. 평양으로 온 작가는 북반부에 온지 두달도 못되어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 정치문화과에서 사업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아버지 수령님을 몸가 가까이 모시고 그이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업하면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그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기 시작한지 며칠 안되던 어느날이었다. 그는 천막을 친 청사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식사가 매우 소박한데 놀랐다. 납작보리밥에 짠 고등어 한토막과 국 한그릇이 전부였다. 식량사정이 곤란한 때이긴 하지만 당중앙위원회 식당인데 식사가 너무 간소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저쪽 식탁에서 일군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식사도 자기들과 똑 같은데 더욱 놀랐다. 어떻게 이럴수 있는가고 생각하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런 식사를 올리는 일군들에 대하여 고깝게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식사후에 이런 심정을 동무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식사를 따로 차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댁에서도 그와 같이 겸손한 잡곡밥식사를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날 그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새 조국건설의 첫날부터 인민들과 교락을 같이하시며 건국사업에 헌신하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품모는 그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렇게 작가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는 과정에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였고 고매한 인품에 매혹되어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역세게 걸어갈 굳은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사업한것은 그의 정치사상생활에서는 물론 문학창작에서

도 새로운 출발로 되었다. 이때부터 그의 진정한 시창작이 시작되었다.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심장에 새기고 당적안목으로 현실과 인간을 탐구하며 우리 인민의 기상과 아름다운 정서를 노래한 진실한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가 조국해방 2돐을 맞으며 시집을 내려고 출판사에 원고를 가져갔으나 개인시집을 낼만 한 차례가 못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사실 그때에는 기성시인들도 아직 개인시집을 다 내지 못하고있었으니 20대의 무명시인의 개인시집을 내어주려고 할리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료해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시집을 당출판사에서 내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그리하여 백인준의 시집 《인민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백인준의 첫 시집을 출판하도록 사랑을 돌려주시였을뿐아니라 그 시집이 나오자 친히 읽어주시고 시들을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꾸밈없이 알기 쉽게 감동적으로 잘 썼다고, 나는 이 시집을 읽고 몸이 감동되었다고, 글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교시를 주시었다.

백인준은 해방된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이 부르는 노래들은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노래라는것을 절감하고 수령송가창작에 열정을 바쳤다. 위대한 수령에 대한 노래, 송가창작이 작가근본의 사명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백인준은 태양송가창작의 전령에 선 시인이었다.

그는 첫 수령송가로 《**김일성** 장군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부제를 단 《그대를 불러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을 창작하였다.

이 시에서 작가는 세계빨찌산력사에 빛나는 **김일성** 장군은 3천만의 앞길을 밝혀주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오늘 세계는 조선민족속에

절세의 애국자 있음을 아노니

조선민족과 더불어 떨친 그 이름

오 그대는 우리의 태양

김일성 장군

이렇게 청년시인 백인준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태양송가창작으로 보람찬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첫 작품은 창작한데 이어 그는 《나의 노래는 인민의 노래》, 《당은 나의 생명》, 《태양》 등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의 품속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생활을 노래한 시들을 왕성히 창작하였다.

시인은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40돐을 맞으며 송시 《크나큰 그 이름 불러》를 창작하였다. 작가는 시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대한 태양, 인민조선의 창건자,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조직자, 탁월한 령장으로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먼저 읽어야 할 책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길은 혁명과 건설전반에 대한 위대한 령도의 자욱으로 빛나고있다.

오늘 온 나라의 군대와 인민이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실천과 결부하여 깊이 학습하고있는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현명성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된다.

주체94(2005)년 10월 어느날 조선인민군 한 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대도서실에 들리시었을 때의 일이다.

열람대출홀에는 모범독서가들의 사진과 필독도서들이 게시되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 부대지휘관은 정치도서를 비롯한 각종 도서를 갖추어놓고 군인교양에 리용하고있는 정형을 보고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도서실을 돌아보시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이 웅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헤아려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의 의의가 큰 우리 당의 귀중한 재보로 된다는것을 강조하시고나서 회상기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군인들이 이 회상기를 읽으면 총대의 귀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될것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선군의 기치를 끝까지 들고나가자면 누구나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와 같은 회상기들을 많이 학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던 부대지휘관과 일군들은 불현듯 자기들의 지난 기간 사업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군인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혁명적인 도서들을 더 많이 안겨주시기 위하여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필요한 도서목록을 짜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도서출판과 관련한 비상대책까지 세워주시었다. 인민군부대들에 위

가사

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은정이 깃든 필독도서들이 많이 갖추어져 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모른다. 군인들속에서 독서열의가 비상히 높아졌다 모범독서가들의 대렬이 날로 늘어났다. 부대지휘관들과 일군들은 그에 맞게 군인들속에서 선후차를 가리며 책읽기를 짜고들어야 하겠으나 무슨 책부터 먼저 읽게 하여야 하겠는가에 대하여서는 별로 깊은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던것이다.

조선혁명이 어떻게 개척되었는가 하는것을 알자면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학습하여야 하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렇게 당과 국가, 군대사업을 령도하여오시였는가를 알려면 《인민들속에서》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지휘관들과 일군들에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와 《인민들속에서》를 학습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시고나서 책을 읽는데도 순차와 공정이 있다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와 《인민들속에서》와 같은 책들을 먼저 읽고 다음단계에서 소설책들을 읽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전쟁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의 1세 2세들처럼 총대의 귀중함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우는 불굴의 투사들로 키우자면 사상교양사업도 필요한 단계를 거치며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선차적으로 중요한것이 바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많이 학습하는것이다.

위대한 선군령장께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의 가슴마다에 사상사업에서는 비약이 있을수 없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주시는 력사적인 순간순간이 흘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한 부대의 도서실을 돌아보신 그날은 폐사로운 보통날이었으나 우리 당 사상사업의 개선강화에서 참으로 의의깊은 날로 되었다

보통강의 푸른 버들아

리명원

유정한 물결우에 실실이 드리워
추억을 엮어주는 보통강의 버들아
건국의 첫삽을 여기에 쓰시던
어머님 그 모습 너는야 보았겠지
아 그리움 불러주는 내 마음의 나무아

못 잊을 그 사연 세월에 진하며
푸르려 설레이는 아름다리 버들아
빛나는 조국의 미래를 그리신

어머님 그 녀원 너는야 지켜섰지
아, 그리움 불러주는 내 마음의 나무아

락원의 강반에 뿌리를 내리고
기쁨에 춤추는 내 나라의 버들아
어머님 그 소원 꽃피던 강산에
희망찬 래일을 너는야 축복하지
아, 그리움 불러주는 내 마음의 나무아

《전당》을 세운 《건축술》

— 단편소설 《포화속의 전당》을 두고 —

김청송

작가라면 누구나 문단이라는 터전위에 자기의 《문패》를 내건 크고 아담하고 멋있는 《집》을 지으려고 노력할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향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가들의 노력에 단편소설 《포화속의 전당》[리정수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5(2006)년 10호]은 좋은 경험으로 긍정적인 시사를 주고있다고 생각된다.

작품은 비록 단편이라는 작은 형식에 의거하였지만 수령형상소설로서의 격에 맞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함으로써 제목과 어울리는 《전당》으로서의 풍격을 살리려고 애썼다.

작가는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울데 대한 주제적문제론의 요구에 맞게 단편소설 《포화속의 전당》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빛나는 교육령도사우에 수놓아진 불멸의 혁명전통을 형상화하려는 무거운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작품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일제의 100만이나 되는 관동군의 포위속에서도 올방자를 틀고앉아 군정학을 진행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담력과 배짱 그리고 해방직후 말그대로 빈터인 형편에서 종합대학부터 지체없이 내올데 대한 대담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 또한 력사에 가장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벌써 부강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전신교육문제를 구상하시고 적들의 《하기 및 추기공세》가 예견되는 긴장한 정황하에서 백송리의 군부대지휘부와 병실을 전부 내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이동전개하는 한편 수천명의 대학생출신 군관, 병사들을 적아가 관가리를 하는 싸움터에서 학교로 돌려보내도록 력사적인 소환조치를 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대용단 등 폭넓은 력사적내용이 반영되어있다.

거의나 장편적인 구성을 시사해주는 이처럼 방대한 내용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차치하면 력사기록적인 편향에 빠져들거나 사건라렬에 치우칠수 있는 작품의 아름다운 형상과제를 작가는 단편이라는 작은 《터전》에 우아한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소설의 성과를 담보하였다.

작가가 끌려온 독창적인 종자와 무게있는 형상과제는 구성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되게 된다. 때문에 작품의 제목과 같이 무게있는 《전당》을 짓기 위한 작가의 창작적사색에서 주목되는것은 역시 구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둥이 바로 서지 못한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아무리 종자가 좋고 묘사가 잘되었다 하더라도 구성을 잘 엮지 못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격으로 작품이 뒤집히고 만다.》

건축가의 설계가 끝나면 앞으로 세우게 될 집의 전경도를 그려볼수 있듯이 작가가 구성작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찾아친 종자가 《전당》으로 일떠서는가 아니면 《어수선한 소재참고》로 돼 버리고마는가가 결정되게 되는것이다.

단편소설 《포화속의 전당》의 구성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형상의 뭉치 뚜렷한 수령의 측근인물들의 설정을 잘하고 그들사이에 교차되는 시점에서 회상식구성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집약화를 실현한것이다.

소설은 매 인물의 시점에서 펼쳐지는 3개의 큼직큼직한 사건줄거리를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이끌어오다가 절정부분에서 하나의 기본선으로 합치시켜 해결을 줌으로써 집약적인 구성에서 립체감과 조형미를 살리고있다.

소설의 첫번째 사건줄거리는 군단장 최현의 회상선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직후 제2전선부대를 지휘하고있는 군단장 최현은 깊어가는 밤, 지동치는 눈보라에도 아랑곳없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인민군부대들에 하달하신 평양해방작전방침을 연구하는데 집중하고있다. 이때 부관이 들어서면서 조심스러운 어조로 경계초소에서 늦게 후퇴한다는 사민들을 단속했다는 보고와 함께 한장의 사진을 내놓는다. 사진에는 조국개선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식인체취가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공산당청사(당시)를 배경으로 서계시는 모습이 찍혀져있다. 놀라는 최현 군단장에게 부관이 사진의 임자를 알아보니 남조선에 나갔던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장이라고 알려준다. 부관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지시한 최현은 작전타우리를 성급히 오락가락하며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대렬에서 뒤떨어진 교원, 학자들을 최고사령부로 보내줄데 대한 부탁을 받아안던 때를 감명깊이 회상한다. 바로 이 회상선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최현군단장, 홍명희부수상의 대화과정을 통하여 전신교육을 진행할데 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빨찌산시절의군정학습이야기, 준엄한 전신환경에서, 그것도 가장 엄혹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진행된 교육부문 일군협의회 등의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그려지고있다.

소설의 두번째 사건줄거리는 최현군단장과 만난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장 박형석의 회상선이다. 부관이 데려온 사진의 임자 박형석을 만난 최현은 씹줄기로 뽕뽕 동여맨 지하작과 불에 그슬려 숭숭 구멍이 뚫리고 찢겨어진 바지가랭이에서 얼음버께가 와삭거리는 그의 행색을 보면서 전쟁의 모든 중하를 안으시고 하실 일이 오죽 많으랴만 미처 후퇴 못한 저네들까지 그토록 마음쓰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근심어린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박형석에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아직 소식이 없는 선생들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계시는지 아는가고 노기어린 음성으로 말한다. 최현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네의 행처를 찾아 최고사령부로 보내달라고 거듭 신신당부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난 형석은 크나큰 감격과 걱정과 목매어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그러한 그를 진정시키며 최현이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사진을 찍게 된 사연을 묻는다. 이 부분에서부터 소설은 박형석의 회상선을 따라 전개되면서 그가 최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내용을 통하여 해방직후 말그대로 빈터인 형편에서 주체교육의 밝은 미래를 창창히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교육령도업적의 한 갈피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서는 해방직후 건국사업에서 가장 어려운것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던 교육문제를 둘러싸고 누구도 신통한 방도를내놓지 못하고 갑론을박을 하고있을 때 이 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로 규정하시고 평양에다 자체로 각 부문의 민족간부와 인재를 육성해낼 종합대학부터 지체없이 내오도록 하신 위대한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인류사에 없는 독창적인 교육령도사의 특기할 한페지를 깊이있게 묘사하였다.

소설은 세번째 사건선에서 한계단 비약하여 전쟁의 다음단계이야기를 현실적인 시점에서 그리고있다. 이 부분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일총참모장과 최현군단장이 한차에 함께 타고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적들은 1211고지를 목표로 대규모의 《하기 및 추기공세》를 획책하고있었다. 최현과 남일은 아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을 급히 부르신것도 이와 관련된 대책안때문일것이라고 나름대로의 추측을 하면서 긴장한 전선형편과 부족되는 역량문제로 고심한다. 하지만 산악전에서 구실 못하는 직사포들을 철수시켜 동해안방어에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제기되는 화력공간으로 하여 전선의 여러 군데가 뚫려뚫려 끊어질 형편이다.

소설은 이처럼 긴장한 정황을 제시하고 이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령도선에서 빛나게 해결되도록 이끌어나감으로써 극적설정을 잘 조직하고있다.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직사포를 철수할것이 아니라 몽땅 고지로 끌어올려놓고 덤벼드는 적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안겨줄데 대한 기발한 명안으로 두 장령의 고심을 한순간에 풀어주실뿐아니라 오히려 역량예비를 조성하여 대학생출신의 군관, 병사들을 전선에서 대학으로 소환하도록 하심으로써 전시에도 대학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신다.

소설은 이와 같이 굵직굵직한 3개의 사건선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령도선이라는 주선우에 튼튼히 묶어세워 끌고나오다가 뒤에 묘사된 먼곳의 림포면으로부터 최고사령부와 가까운 백송리에로의 **김일성** 종합대학의 이동전개와 최현군단에서의 대학생환송의식장면 그리고 작가의 주정로로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해결을 주고있다.

보는것처럼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주체의 교육전통을 형상화하여야 할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로부터 출발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교육사상과 령도, 해방직후 교육문제해결의 빛나는 업적과 경험, 독창적인 전시교육방법의 승리적 완성 등 형상구획이 명백한 사건줄거리들로 갈라볼수 있다. 그러나 소설은 매개의 줄거리전개에서 중심적인 몫을 담당하고있는 최현과 홍명희, 최현과 박형석, 최현과 남일 등 주요인물선을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튼튼히 맺어주고있는 것으로 하여 작품이 토막이야기의 련속으로가 아니라 전일적인 흐름속에 완전히 융해되어 조화롭게 안겨올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는것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이 작품이 단편소설의 형태적요구에 맞게 불과 몇명 안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있지만 매 인물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령도업적을 시기별, 부문별로 보여주는데서 형상의 묶이 매우 뚜렷한 수령의 측근인물로 잘 설정되어있는 점이다. 한편 직무와 사업범위의 측면으로 하여 서로 련계를 지어주기 어려운 군단장(최현)과 종합대학 학부장(박형석) 부수상(홍명희) 등의 관계를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과 결부시켜 재치있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줌으로써 전반적구성에서 빈틈이 없이 앞뒤로 짝 맞물려질수 있게 한 측면도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고 보아진다,

소설은 전체적인 내용구성에서도 지난 시기의 많은 교육주제소설들과서와 같이 사건전개의 바탕을 교육부문 일면에 국한시킨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전쟁환경과 군사작전속에서 펼쳐면서 보통의 상식으로써는 좁혀서 련관시켜보기 어려운 전쟁과 교육이라는 이 두 측면을 오직 수령의 령도선우에서 하나의 주제로 풀어나감으로써 수령형상단편소설로서의 참신한 매력을 잘 살리고있을뿐아니라 선군시대의 시대적미감을 반영하는데서도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있다.

단편소설 《포화속의 전당》의 구성에서 특징적인것은 다음으로 력사에 널리 알려진 혁명일화들을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해명에 지향되도록 예술적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는 점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백석탄밀영에서의 군정 학습 이야기라든가 해방직후 종합대학건설의 위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혁명일화들도 적재적소에서 빛을 내고있지만 작품에서 보다 인상적인것은 직사포를 고지우로 끌어올린 일화의 적절한 리용이다.

이 일화는 이미 혁명력사의 여러편의 영화, 소설들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이 일화를 종전의 작품들에서처럼 순수 군사적지략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전시교육을 위하여 대학생출신의 군관, 병사들을 소환하기 위한 문제해결의 한 고리로 채치있게 련관시켜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재창조함으로써 작품의 기본 주제해명에 효과적으로 지향시켰을뿐아니라 누구나 알고있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작품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리는데 참신하게 리용하고있다.

소설은 전체적인 형상구성으로 볼 때 확실히 제목과 어울리게 우리 문단에 솟아난 또 하나의 《전당》이라고 생각된다. 《미장술》로 걸뎃만을 돌군 잔재간이 아니라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창작적개성이 뚜렷이 엿보이고 독자들이 정서적사색의 시간을 즐겨보낼수 있는 아담하고 탐탁한 《새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기쁜 생각을 안고 펜을 놓는다.

해방산의 다듬이소리

김은숙

어둠 깃든 한밤에 정적은 깃들고
어디선가 울던 소쩍새도 잠들었는데
똑딱... 똑딱 ...
해방산의 달밤에
어머님 울리시는 다듬이소리

백두의 밀림에 울려가던
유격대작식대의 칼도마장단이런가
밤은 깊어가도 어머님의 하루는 끝나지 않아
수령님 옷에 달아드릴 하얀 목달개
두드려 정히 퍼시는 유정한 다듬이소리

어머님일손을 덜어드리는
다리미도 곁에 두시였건만
더 부드럽고 만문해질 목달개를 위해
부디 다듬이앞에서 정성을 기울이시는
우리 어머님

똑딱 ... 똑딱...
가락맞게 울리는 그 소리에
백두산전설이 들려오누나
수령님의 젖은 옷 몸에 뽐으시고
어머님체온으로 덥히시던
항일전의 그 나날이 실려오는가

혈전의 천리길을 헤쳐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
해방된 조국땅에 수령님을 모시고 오신 어머님
오늘도 친위전사 빨찌산일파는
변함없이 이어지누나

이렇게 몇백몇천밤을 새우셨던가
수령님께 새 목달개 달아드리시고
먼길의 려장도 차려드리시며
한밤을 꼬박 밝히신 어머님
첫 아침이면 인민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는
수령님을 바래우시며 그윽히 지으시던
그 정깊은 미소 그 행복의 기쁨...

똑딱 ... 똑딱...
다듬이소리 들으며
어머님 걸으신 백두산정의 그 길 다 밟아보고
어머님 지니신 그 숭고한 세계에 다 올라보는
이 나라 녀인들의 마음이어

세월은 저 멀리 흘러가도
해방산의 뜨락을 넘어
추억의 년륜을 감아올리며
오늘도 우리 가슴 울려주는
다듬이소리 다듬이소리
한생토록 정을 담아 부르고부르신
아 어머님의 아름다운 생의 노래여라



높은 위치



오광철

1

채취공업성 부상 최우혁은 자기의 수표를 기다리는 한통의 문건우에 끝내 방아를 찧던 원주필을 놓아버리고말았다.

저물녘이었다. 퇴근을 서두르는 간단한 소음들이 멀고가깝게 들려왔다. 그 소리들은 마치도 자기앞에 차레진 일감을 어서 빨리 끝내고 휴식과 안정을 찾으라고 재촉하는듯싶었다.

그랬다. 이제 이 문건에 수표만 하면 최우혁부상은 하루일을 끝냈다는 기꺼움과 안도감으로 마음가볍게 자리에서 일어설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뜻 펜을 들지 못하고 그 문건을 접도록 바라보고있었다.

그것은 우리 나라 중부산악지대의 《ㅎ》광석 매장지의 하나인 명천광산에서 올라온 상부개척에 관한 문건이었다.

인민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광물의 하나인 《ㅎ》광석은 일반적으로 상부수준에서 그 품위가 높다. 적은 량의 광석을 캐내어도 선광공정에서는 많은 실수율을 얻을수 있었다. 그리고 지표면아래 수십미터수준을 개척하기때문에 운광과 양수에서도 투자가 적게 들었다.

그러나 상부수준일수록 풍화작용으로 암석층이 견고하지 못하고 단층구간이 많기때문에 갱건설이 어렵고 위험했다 그리하여 대부분 《ㅎ》광석광산들이 계속 심부로만 내려가다나니 채굴조건과 운광조건이 점점 불리해지고 광물 톤당 생산원가도 많이 들었다.

명천광산만 하여도 갱들이 심부가 깊어지면서 광물품위가 낮아지는것으로 하여 광산을 톨포지구로 새롭게 옮기는 문제까지 제기되고있었다.

이 모든것을 잘 알고있는 우혁은 상부개척을 발기하고 기술일군들과의 협조밑에 그 실현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기술적난문제들을 해결하였다.

남은것은 그 시험적도입이었다. 성에서 파견되여간 명천광산담당 부국장이 이것을 제격 받아물었다.

그는 광산을 톨포지구로 옮길것이 아니라 상부개척을 하여 갱들을 유지하려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이 상부개척이 《ㅎ》광석에서의 하나의 혁명이며 그래서 성에서도 그 실현을 적극 떠밀어줄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있는것이였다.

《부상동지. 상부개척이야 부상동지가 여기 광산에서 오래 일한 경험을 가지구 발기하구 완성한건데 그 도입두 여기 광산에서 해야 옳지 않습니까.》

옳았다. 상부개척은 대체로 명천광산의 암반조건과 갱조건을 참작한 채취공법이였다. 자연적조건뿐아니라 설비조건과 일군들의 능력면에서도 우혁은 명천광산을 많이 참고하였다. 더우기 명천광산은 그에게 언제나 고향이나 모교에 대한 감정처럼 류다른 애착과 정서를 안겨주는 곳이었다.

그는 거기서 체대배낭을 풀고 로동의 첫자욱을 찍었으며 거기서 가정도 이루었다. 거기서 평범한 광부로부터 시작하여 지배인으로 성장하였으며 성의 책임일군이 된 오늘에 이르렀다. 명천광산에서 상부개척을 완성하고싶은 우혁의 마음은 고향이나 모교에 자기의 이름이나 성의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 심정이나 거의 류사한것이였다.

《그래 광산일군들이나 광부들은 신심이 있어하오?》

우혁은 부국장에게 전화로 물었다.

《예! 거 뭐 한 광부가 반대를 해서 약간 물의가 있긴 했지만...》

《반대했다?!》

《예! 우리 광산은 상부개척을 할게 아니라 톨포지구로 옮겨가야 한다구.》

틀포지구는 로천광산을 개발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상부개척이 필요없다.

《그게 누구요?》

《생각나시겠는지. 김천일이라구... 1갱 광부로 오래 일했습니다.》

《김천일!》

우혁은 수화기를 든채 굳어져버렸다.

《다 상부개척의 의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거지요. 부상동지! 사람들은 자기가 채 이해하지 못하는걸 업수이 여기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좀 신랄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상부개척은 창조라구. 창조에는 누군가가 남먼저 바치구 나서는게 있어야 한단구...》

사실은 성실한 사람인데 늙어서 그러는지 현대과학을 이해하는것두 그래, 젊은 사람들하구 호흡을 맞추는것두 그래 이래저래 힘들어합니다. 인차 갱에서 뽑아서 보장직장 같은데 넣었다가 나이만 되면 집에 들여보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40대의 젊은 부국장의 어조에서는 그 광부에 대한 불만이 섞인 아량과 실무가로서의 권위가 은근히 풍겨오고있었다.

《부상동지! 모든 준비가 다 됐으니 결론만 주십시오.》

바로 그 문건이 지금 우혁의 앞에 와있다.

모든것이 나무랄데 없었고 완전무결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혁은 무엇이 잘 생각나지 않아 모지름쓰는 사람모양으로 그 문건앞에 굳어진듯 앉아있었다. 무엇인지 알수 없는것이 불안하였고 못미더웠다 그것이 다름아닌 자기자신에 대한 불안이고 불신이라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어쩔수가 없었다.

모두가 다 지지하고 기대하며 열의에 충만되어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 사소한 불안과 불만을 무시할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불안전과 위구는 자기로서도 이상한것이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명천광산의 평범한 광부인 김천일이 상부개척을 반대한다는데서부터 오는 불안이였고 위구였다.

우혁자신이 느끼고있는 자신심이나 또 성적으로도 능력있는 일군으로 소문난 담당 부국장의 장담과 각오에 비해볼 때 한 평범한 광부의 반대란 무시될수 있으리만큼 미미한것이였다. 하지만 그가 상부개척을 반대한다는 그 한가지 사실에 마음은 안정과 평온을 잃어버렸다.

무엇때문일까?

김천일의 호인답게 잘 생긴 얼굴이 눈앞에 일른거렸다. 김천일은 우혁과 나란히 당의 호소를 받들고 명천광산에 달려나간 수백명 제대군인들 중의 한사람이였다.

이름보다 병중으로 더 잘 불리우던 그때 우혁은 《정찰》이였고 천일은 《공병》이였다.

문득 천일과 함께 대학추천을 받고 입학시험을 치러 떠나던 일이 떠오른다.

자그마한 산간역에 정차시간이 얼마 안되는 완행열차는 출발전의 기적소리를 울렸다. 역전에서 만나자고 한 천일을 기다리다가 그만 눈에 달이 뜬 우혁은 벌써 몇번이나 열차승강대를 오르내렸다. 드디어 열차가 서서히 떠나기 시작할무렵 천일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천일이! 여기야. 여기》

《오, 우혁이 먼저 떠나라우.》

《왜 그래?》

《소대막장에 짐이 왔어. 복귀하구 인차...》

그 마지막말은 벌써 속도를 놓은 열차의 동음에 삼키워버리고말았다. 우혁은 소대막장에 지압이 오고 그래서 허물어진 막장과 소대원들을 외면할수 없어 천일이 떨어질 결심을 했다는것을 알았다. 결국 천일은 대학입학시험에 끝내 오지 못하고말았다. 바로 그날의 그 완행열차를 놓쳐버린 순간부터 천일은 모든 면에서 우혁에게 뒤떨어지게 된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결코 그것때문만도 아니였다.

어느때가 그도 소대장으로 임명된적이 있었다.

하지만 뜻밖의 일로 하여 소대장직을 내놓게 되었다. 지금도 그때 그의 소대원이였던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전동기스위치사건》이라고 즐겁게 이야기하곤 한다.

그때 그의 소대가 일하던 막장에 배전계통이 고장나 전기가 가버렸다. 그바람에 양수기를 돌리지 못해 막장에 물이 차올랐다. 미구하여 물은 양수기와 전동기까지 잠고어버렸다.

그런 때는 별수없이 양수기와 전동기를 해체하여 우로 끌어올려야 했다. 그들이 막 해체하자고 접어들던 순간에 전기가 왔다.

그 순간 소대원들이 약속이나 한듯 소대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양수기와 전동기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느라 몇시간은 잘 걸려야 한다.

소대계획이 시간을 다투던 때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전동기와 양수기를 해체하지 말고 물속에 그대로 둔채 전기여단개를 넣어보자는 생각으로 소대장의 얼굴을 바라보는것이였다.

석수가 많이 쏟아져내리는 막장안의 전동기들과 배선들은 규정상으로 절연과 방습이 철저히 된 밀폐식전동기와 배선이여야 한다. 하지만 만약 물속에서 전기를 넣을 때 천에 하나라도 그 전동기나 배선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래서 한줄기라도 전기가 새는 경우에는 물속에서 전기여단개를 넣는 사람이 감전되어 생명이 위협하게 된다. 그래서 로동안전규정에도 이것이 엄격히 금지되어있었다.

《소대장동지, 어떻게 할가요? 넣을가요?》

누군가가 물었다. 천일은 대답이 없었다.

막장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안전등을 수궁한채 무엇인가 생각하던 천일이 천천히 고개를 쳐들었다.

《그럼 모두 물밖으로 나가라구.》

모두들 물밖에서 나와섰다. 전기여단개를 넣기를 자처한 광부와 천일이만이 무릎노리를 치는 물속에 서있었다.

《동무도 나가라구.》

천일이 말했다. 얼굴이 거무트름한 그 광부는 싱글싱글 웃었다.

《그러니 소대장동지가 넣자는거군요.》

천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뭘 소대장동지까지 나설게 있나요. 전기여단개가 뭐 무거워서요. 나 혼자서도 넉근하니 소대장동진 나가십시오.》

그러나 천일은 고집스럽게 버티고서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얼굴이 거무트름한 그 광부는 다시금 싱그레 웃고나서 물밖에서 나가 선 광부들에게 슬쩍 안전등질을 했다. 그러자 광부들이 왁 달려들어 천일을 물밖으로 끌어냈다.

《이건 뭐요? 동무들! 이러지 말라구. 놓으라니까.》

천일이 몸부림을 쳤으나 어쩔수 없었다. 소대원들은 천일을 물밖에서 끌어낸채 짝 부둥켜안고 서있었다. 막장에 두려우리만큼 괴괴한 정적이 흘렀다. 모두들 숨을 죽인채 침을 삼키며 물속에 선 그 광부만을 바라보았다.

모험심이 강한 그 광부마저도 긴장된채 어릿어릿 전기여단개로 손을 가져갔다. 눈을 딱 감고 힘껏 전기여단개를 넣었다. 순간 전기여단개에서 푸른 불이 번쩍 하고 일었다.

《앗!》

비명이 터졌다. 그것은 물속에 선 광부가 아니라 물밖에서 광부들에게 붙잡힌 천일이 지른 비명이었다. 모두들 흠칫했고 천일의 얼굴은 흠뻑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양수기가 웅 하고 돌아갔다.

전기여단개를 넣은 광부는 아무 일없이 서있었다.

그 광부는 꿈이라도 꾸고난듯 얼떨떨해 서있다가 《야! 돌아간다!》하고 물속에서 어깨춤을 추었다. 소대원들도 환성을 울리며 천일을 놓아주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서로 부여잡고 환성을 울리고 춤을 추었다. 하지만 천일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은채 움직이지 못했다

광부들은 전기여단개를 넣기는 다른 사람이 넣고 감전되기는 소대장이 감전됐다고 큰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 문제는 곧 광산행정조직과 당조직에 상정되었고 지어 성에까지 보고되었다. 모두들 놀라고 격분했다. 모든 책임과 추궁이 그토록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모험적행위를 조장한 소대장에게로 쏟아져내렸다. 결국 천일은 소대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이 일이 그에게 준 충격은 컸다.

《만약 그가 전기에 감전되더라도 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두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걸 막지두 못하구 또 그렇다고 제가 하지

도 못했으니 내가 무슨 소대장자격이 있습니까. 난 정말 재목이 못되는 놈입니다. 난 그저 광부가 몸에 맞지요. 남을 시키기보단 제가 하는게 훨씬 맘 편하고 나오니까요. 난 그저 광부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광석을 캐는데야 소대장이면 어떻게 광부면 어떻습니까.》

썩 후날 그에게 다시 소대장사업을 맡기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가 한 말이였다.

결국 그는 우혁이 광산지배인으로 임명되었을 때까지도 평범한 광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광산사람들은 큰 회의나 모임의 주석단에는 의례히 천일이 앉는것으로 인식하고있었으며 그의 집에 주련이 걸린 영광의 대회에 참가한 기념사진들을 제일로 부러워했다. 바로 그러한 천일이 상부개혁을 반대하고있는것이였다.

문득 전화종이 울렸다. 우혁은 수화기를 들었다.

《아버지! 집니다.》

아들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퇴근하시지 않겠어요? 퇴근시간도 펍 지났는데... 오늘은 차를 타지 말고 산보삼아 걸어서 퇴근하죠.》

우혁은 야릇한 의혹과 즐거움이 스며드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아들은 지금껏 언제 한번도 아버지에게 퇴근을 함께 하자고 청한 일이 없었다. 아버지의 성청사에서 멀지 않은 채취공학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하는 아들이지만 그들사이에는 서로 바쁜 자기들의 일을 방해하지 말데 대한 무언의 약속이 존재했던것이였다.

그런데 오늘 아들은 퇴근을 함께 하자고 청해 온것이였다. 그것은 평범한 생활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무엇인가 비상한것을 예감하게 하는것이였다. 문득 어제 저녁 안해가 하던 말이 떠오른다.

《여보! 그 애에겐 분명 애인이 생겼어요.》

《그게 정말이요?》

《내 눈은 못 속여요. 이제 그 애가 나나 당신에게 자기 애인을 슬쩍 소개하자고 할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앤 당신을 닮아 엉큼하거든요.》

감도가 좋은 전화기에서는 약간 조급해진듯 한 아들의 숨소리가 흘러나오고있었다. 이것이 안해의 말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애인을 소개하는 엉큼한 속셈이라면?

어제 저녁 안해는 아직은 룡감에 불과한 아들의 애인에 대한 생각때문에 몹시 안달복달했었다.

《제발 좋은 처녀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 할텐데...》

《아니, 머느리감이야 당신이 제 마음에 꼭 드는 처녀루 고르겠다고 장담하지 않았소.》

《마음에 꼭 드는 처녀가 어디 있어야지요.》

우혁은 안해의 객적은 고민이 실린 얼굴을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고말았었다. 요즘은 머느리감을 얻는 문제에 몹시도 신경을 쓰는 안해였다.

가장 리상적인 처녀를 아들의 곁에 세우려는 어머니들의 노력은 거의 천부적인것인듯싶었다.

어느날인가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게 처녀의 사친을 들고 온 어머니앞에 아들은 소리내어 웃고 나서 말했었다.

《어머니, 내 색시감은 명천광산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다 팔라놓은줄로 아는데...》

안해는 놀랍다는듯이 눈을 크게 뜨더니 이어 빙그레 웃었다. 신문을 읽고있는 남편의 얼굴을 힐끗 살피고나서 아들에게 수군거렸다.

《그럼 넌 진짜 그 광산처녀에게 장가를 들겠니?》

《들지 않구요.》

안해는 소리내어 웃었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한 청높고 솔직한 웃음소리였다. 아들도 웃었었다. 우혁은 문득 그 웃음속에서 천일과 자기사이엔 생긴 광부와 성일군이라는 인격적인 간격과 사회적직위의 차이를 느꼈다. 무엇인가 어제날처럼 허물없이 어울리기 힘들듯 한 인위적인 높낮이가 느껴졌었다. 그 웃음소리는 바로 그것을 확인해주고있었다. 우혁은 왜서인지 거북하고 불쾌하여 언짢은 기침소리를 내었었다.

요즘은 드물게나마 눈에 띄우곤 하는 현상. 사랑과 혼인의 대상선택에서 상대방이나 그 부모들의 직위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는 현상들이 새삼스럽게 심중에 미쳐온것은 그 순간이었다.

만약 자식들의 사랑문제에 부모의 사회적직위문제를 섞어놓고 저울질한다면 그것은 인간과 생활에 대한 편견과 물리해에 사로잡힌 속된 행위인것이다. 직위는 책임감의 표현이지 결코 인간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아닌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속에서 나타나곤 하는 그러한 현상이 정작 아들의 대상자문제에 부닥친 자기 집에서 불쑥 튀어나오지 않겠는지 걱정스러웠고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그 순간 왜서인지 명천광산시절이 생각났다.

귀전에 마치 동요를 읊조리는것 같은 즐겁고 랑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었다.

《명훈이 아버지, 명훈이가 오늘 또 나한테 물총을 쏘어요. 물에다 잉크를 풀어서 쏘어요.》

《뭐?! 아니, 그 녀석이 어디 갔니? 너희 아버지한테 대졌니?》

《우리 아버지한테 대주니까 사내녀석이 좀 지루할수도 있는거지 뭘 그리 앵앵거리느냐구 막 웃어요.》

《그래! 그럼 내가 혼을 내주지. 옳지! 저놈이 저기 있었구나.》

우혁은 그 애가 보라고 아들녀석의 엉덩관을 몇개 호되게 때린다. 그러면 아들은 아야야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고 소녀는 좋아라고 깔깔 웃는다.

《어디 두구보자. 너!》

달아나서 으르던 애녀석의 흘근거리던 눈망울...

《잘코사니! 얼러러러!》하고 쑥 내밀어보이던 녀자애의 빨간 혀끝...

우혁과 천일은 그러한 애들의 모습을 보며 서로 사돈을 맺자고 진담반, 룡담반으로 이야기하곤 했다.

《좋다! 그럼 이제부터 찰떡사돈이다.》

그들은 서로 무릎을 치며 껄껄 웃곤 했다.

...

《아버지! 몹시 바쁘게지요?》

전화기에서 약간 서운해하는듯 한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우혁은 당황해졌다.

《아니다! 내 인차 나가마.》

우혁은 끝내 수표를 하지 못한 문건에 다시한번 시선을 주고나서 방을 나섰다.

청사정문에는 아들이 홀로 서있었다. 슬그머니 둘러봐도 처녀는 없었다. 그 순간에는 웬일인지 그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를 보며 빙그레 웃는 아들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속생각을 다 알고있는듯 한 조숙하고 능청스러운 표정이 어려있었다.

우혁은 슬그머니 당황해지기까지 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어느덧 불을 환히 켜 거리와 한층 더 많아지고 드바빠진듯 한 사람들의 물결, 질주하는 각이한 차량들의 경쾌한 소음...

거리는 가슴이 울렁거릴만큼 들끓고있었다.

자기나름의 생활을 향하여 걸음을 다그쳐가는 사람들의 물결속에 어깨를 바투 대고 걸어가는 청춘남녀들의 모습이 이채로왔다.

우혁의 앞으로 가로등빛에 싸여 유별나게 살색이 희여보이는 아릿다운 처녀가 총각과 나란히 걸어왔다. 부모다운 눈으로 그 아릿다운 처녀에게 반한 우혁은 처녀와 나란히 걷는 총각을 자기 아들과 슬그머니 마주세워보았다.

키가 흰칠하고 지성과 인격이 내비친 아들의 얼굴이 그 총각보다 훨씬 우월하다는것을 확인하고는 속으로 흡족해졌다.

아무렴! 아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처녀를 애인으로 가질만 한 총각이다. 우혁은 이 문제에서는 아들에게 한껏 너그러워지고싶었다. 그래! 아들의 마음에 든다면야 어떤 처녀를 허물하랴?

《그래 무엇때문에 같이 퇴근하자고 했니?》

우혁은 넋지시 물었다.

《두가지 문제때문ですよ.》

《?!》

《하나는 제가 래일 명천광산으로 가는 문젠이다.》

《명천광산에?》

《예. 아버지, 전 이번에 제가 연구완성한 새로운 심빼기식발파법을 명천광산의 상부개척에 도입해볼가 합니다.》

《!》

이런 저녁 이런 자리에서는 피하고싶었던 명천광산의 상부개척이야기가 또다시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아버진 상부개척을 완성하고 그 기술공법들에 대한 논문도 쓸수 있을거예요. 나도 그 상부개척 현장에 내 발과법을 도입하고 학위론문을 쓰려고 해요. 참! 우린 공동으로 학위론문을 써서 제출할수도 있을거예요.》

아들은 즐거운듯 웃었으나 우혁은 심중하여 그 자리에 멈춰섰다. 또다시 김천일의 얼굴이 눈에 떠오른다. 그가 상부개척을 반대한다던 부국장의 목소리 ...

《왜 그래요, 아버지?》

우혁은 잠시 말없이 서있었다.

《명훈아, 너의 새 발과법을 도입할 단위라면 명천광산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하거라.》

《예?!》

우혁은 천일이 상부개척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들은 당황한듯 멈춰섰다. 눈빛이 유별해져서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는듯 한 눈빛이었다.

《아버지, 그 반대가 상부개척에 대한 리해부족 때문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국장동진 광산의 힘을 총집중해서 내밀 생각이던데... 난 왜 아버지가 한 광부의 반대의견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린 반대의 론조라기보다는 의아해하고 시름겨워하는듯 한 아들의 어조였다.

《그래! 그는 평범한 광부다. 하지만 난 그의 인간됨을 잘 안다. 그래서 마음을 못 놓는거다. 명훈아! 직위가 높은 사람이 더 훌륭한 결심을 하구 더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건 일종의 자기위안이거나 혹은... 아첨이다.》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니, 이자 생각해보니 네가 한번 명천광산에 내려가보는게 좋을것 같다.》

부국장의 말만 듣고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구나. 네가 가서 모든걸 네 눈으로 확인하고 나에게 알려주렴. 누구의 명예나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과학자의 량심대로만 행동해라.》

아들은 고개를 수긋한채 걷기만 했다. 아버지와 아들사이에는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다.

《그다음 두번째 문제는 뭐냐?》

아들은 말할가말가를 망설이는듯 했다. 말할 흥미가 없는듯 고개를 수긋하고 걷기만 하더니 시무룩해서 입을 열었다.

《두번째 문젠...제 사생활문제였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선 말하고싶지 않아요.》

《왜, 처녀문제냐?》

아들은 면바로 찡린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어떤 처녀냐? 아버지한테 한번 보여주렴.》

《사실 그럴 생각이었는데... 에이! 이번에 명천광산에 갔다 와서 인사시키겠어요.》

《그래!!》

그다음 아버지와 아들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말이 없었다.

2

아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명천광산으로 떠날 준비를 묵묵히 서두르기 시작했다. 안해가 다짐한 잔소리를 섞어가며 아들의 짐꾸리기를 거들어주었다. 우혁도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는척 했지만 실은 아들이 출장준비에서 놓치는것이 없는가를 신경쓰고있었다.

문득 전화종이 따르릉 하고 울었다. 아들이 전화를 들었다. 몇마디 듣는것 같더니 문득 고개를 돌려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슬쩍 살폈다. 그 얼굴은 왜서인지 약간 계면쩍어보였다.

《응! 이제 곧 떠날 차비였소. 아니, 벌써... 렬차시간이 언제게...》

우혁과 안해의 눈길이 서로 부딪쳤다. 안해는 알만 하다는듯이 웃고있었다. 보매 아들은 자기 애인과 전화를 하고있는듯 했다. 보나마나 그 처녀가 역전으로 나갈것이다.

《그래! 인차 가겠소.》

아들은 전화를 놓았다. 또 한번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고는 다 꾸려놓은 짐을 들었다.

《우리가 역전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니?》

안해가 아주 범상한듯이 묻는다. 얼굴은 분명 다른것을 묻고있으면서도 목소리는 천연스럽다.

속이 빨리 들떠다보이는 어머니의 물음에 아들도 역시 얼굴이 붉어지는듯 했으나 천연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무슨 세살난 애라구 역전에까지 따라나 오시겠어요. 내가 도착해서 전화할게요. 자, 그럼 난 가요.》

아들은 도망치듯 문밖을 나섰다. 우혁과 안해는 또한번 눈길을 마주치며 웃을수밖에 없었다.

영큼한 녀석! 아직 아버지, 어머니한테까지 애써 숨기려 하는 그 처녀는 대체 어떤 처녀일까?

우혁은 제 나름으로 그 처녀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러자 여러 처녀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중에는 놀랍게도 어제 저녁 아들과 함께 저녁거리를 걸어오며 보았던 그 아릿다운 처녀의 모습도 있었다. 그가 알고있고 보아온 인상적인 처녀들의 모습과 표상이 아들의 애인된 처녀의 모습으로 어우러지는듯 했다.

우혁은 문득 이제 그 애인과 작별하는 아들의 심중이 그닥 밝지 못하리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어제 저녁부터 아들은 정도이상으로 시무룩해있었다. 하긴 아버지의 상부개척만이 아닌 자기의 새 발과법도입에 대한 위구를 안고 떠나는 아들이었다.

《난 왜 아버지가 한 광부의 반대의견에 그렇게도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직은 네가 모든것을 다 리해하지는 못할게다. 하지만 나의 가슴속에 간직된 그 보통인간에 대한 추억이 나를 달리는 할수 없게 하는구

나. 우혁은 아들에게 천일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심정으로 그에 대해 생각했다.

어느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하루 앞두었던 날
에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그때는 우혁이 갓 지
배인으로 임명되었을 때였다. 그날 광산에서는
큰 규모의 발파를 진행하였다. 여러 갱들을 연결
시켜 새 운반갱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발파였다. 그런데 갱의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발
파를 진행해야 하는 이 복잡한 기술적구조의 발
파에서 한쪽 방향의 폭약들이 모두 불발이 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광부들은 매일 명절도 한쪽 귀를 갱에 대고 쇠
야겠다고 기분을 잃어했다. 광부들은 명절이나
기념일을 앞둔 날 불발이 나타나는것을 제일 질
색해했다. 그런데 그날 만수대에술단이 광산에 축
하공연을 내려왔다.

우혁은 사람을 시켜 광산문화회관 초대석의 자
리표 한장을 천일에게 가져다주게 했다. 천일은
오래전부터 만수대에술단의 인기가수였던 한 녀
가수의 노래에 반해있었는데 어떤 때는 텔레비존
요청무대시간을 통해 그 배우의 노래를 요청하기
도 했다. 텔레비존에서 어쩌다가 자기가 요청한
노래가 나오기라도 하면 그는 공연히 기분이 좋
아 그리 썩 좋지 못한 목청으로 그 노래를 흥얼
거리기도 했다.

바로 그 배우가 광산에 내려온것이였다.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천일이 앉아있을
좌석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낮모를 광부가 앉아있
었다. 꽃다발까지 들고 영치를 들썩거리며 저 혼
자 좋아하고있다.

우혁은 의아해졌다. 이 공연에 빠질리가 없는
천일이었던것이다.

《아니, 동무가 어떻게 여기 앉아있소?》

《예?! 예! 천일형님이 자기대신 가라더군요.

에에— 하마트면 오늘 막장 불발구멍이나 지키고
앉아있을번 했는데... 아! 시작합니다.》

제자리에 돌아와 앉았으나 의문이 풀리지 않았
다. 문득 불길한 생각이 가슴속을 흘러지나갔다.

《에에— 하마트면 오늘 막장 불발구멍이나 지
키고 앉아있을번 했는데...》하던 그 목소리.

큰 규모의 발파라 온통 뒤죽박죽이 된 갱안으
로 불발을 퇴치하러 사람을 들여보낼수가 없어
갱을 막고 지키라고 했던 우혁이였다. 그러니 천
일이 그 불발이 난 갱을 지키고있던 갱로동안전
원을 대신 보낸것이다.

무대에서는 천일이 좋아하는 그 녀가수의 노래
가 시작되고있었다. 그러자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온몸을 싸늘하게 하기 시작했다.

설마?! 만약?!

그 녀가수가 한창 노래의 후렴부를 뽑아올릴
때 우혁은 끝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
관밖으로 달려나갔다. 갱으로 달음질쳤다.

하지만 막장이 가까와올수록 마치 공기가 희박
해지는것처럼 호흡이 긴장해지고 고요한 굴안을

흔드는 자기의 발자욱소리에마저 흠칫흠칫 놀라
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라도 금시 눈앞에서 섬팡이 번뜩이고 무서
운 폭풍이 자기를 덮칠듯싶었다. 그는 저도 모르
게 자기의 잔등이 축축해오는것을 느꼈다.

문득 앞쪽에서 병거거리는 안전등빛과 함께
《누구요?》하는 거친 목소리가 날아왔다. 우혁은
어둠속에서도 그가 천일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천일의 앞으로 달려갔다. 그를 살펴보았다.

순간 우혁은 놀랐다. 땀에 폭 젖은 천일의 모
습을 보았던것이였다. 그는 땀에 뜨고 몹시 지쳐
금시 쓰러질듯 한 자세로 버럭돌에 걸터앉아있었
다. 그의 앞에 발파버럭에 막혀 기여들어가야만
겨우 통과할듯싶은 갱구가 보였다. 장악한 폭약
들이 불발이 된 갱구였다.

《불발을 해체하러 들어갔겠지, 응?》

우혁은 지배인이라는 체면도 다 켜버리고 오래
전 너나들이때처럼 천일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천일은 대답이 없이 갑자기 나타난 우혁을 멍
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죽자구 그래, 응?! 이 우둔한거야!》

우혁은 천일을 와락 잡아흔들었다. 그러나 천
일은 타하지 않고 이전날의 낮익은 눈빛으로 스
스럼없이 우혁을 바라보기만 했다.

처음 보듯 보기만 했다.

《그러니... 그러니 나때미 공연을 못 보고 여기
로 달려왔다는거야?》

목이 뻔뻔한 목소리였다.

《여기 있다는걸 안담에야 어떻게 그냥 앉아있
니.》

천일은 무엇인가를 꿀꺽 삼켰다. 땀에 젖고 지
쳐서 눈만 커진듯 한 얼굴로 우혁을 바라보며 조
용히 말했다.

《고답네!》

《천일이, 이제라도 어서 나가자구.》

천일은 슬며시 고개를 떨구었다. 부끄러운듯
더듬더듬 말한다.

《사실 난... 아직... 불발을...》

시커멓게 젖어버린 천일의 작업복 뒤통등이 폭
폭히 보였다. 우혁은 천일의 심정이 헤아려졌다.
홀로 불길한 정적과 공포와 싸우기가 얼마나
힘겨웠으랴? 자그마한 돌맹이 구르는 소리에도
흠칫흠칫 몸을 떨었으리라. 그러다가 끝내 견디
지 못하고 다시 여기로 나왔으리라.

《난 꼭... 꼭 저 불발을 해체해야 해. 래일이야
공화국창건기념일이 아닌가? 이제 좀 쉬구...》

《천일이, 그럼 나와 함께 하자구》

천일은 놀란듯 우혁을 바라보았다. 《우혁이!》
하고 목메여 불렀다. 진저리나게 지겹고 두려운
갱안의 정적과 고독감 그리고 공포를 함께 이겨
낼 친구를 찾은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그 얼굴에
어려있었다.

《이 친구야!》

그는 우혁을 힘껏 껴안았다 우혁은 자기 목덜
미에 후끈하게 닿는 더운것을 느꼈다. 그들은 고
요하고 어두운 갱속에서 서로를 힘껏 포옹했다.

얼마후 그들은 불발원인을 찾아냈다. 첫 폭풍
에 날려온 날카로운 버럭돌이 도화선을 뭉쳐 잘

라버렸던 것이었다. 천일이 준비해 가지고 들어온 도화선으로 다시 발파준비를 했다.

《여기서 갑자기 발파소리가 나면 공연을 보던 친구들이 왠 달려오지 않을까?》

《들릴까?》

《글쎄... 보통때보단 큰 규모의 발판데 ...》

《에라! 그럼 우리 여기서 좀 쉬다가 불을 달자구.》

《그래!》

그들은 쉼없는 행기를 피하느라고 바투 붙어있었다. 천일이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너가수의 노래를 흥얼거렸고 우혁도 따라했다.

뚜껑을 꼭 닫은 통속과도 같이 느껴지던 그 공간에 노래소리가 조용하게 울려 퍼졌다.

얼마후 그들은 도화선에 불을 달고 위험구역을 빠져나왔다. 이제는 거의 안전구역에 이르는가 했는데 문득 함께 뛰어가던 천일이 걸음을 멈추었다. 안전등으로 천정을 비추본다. 웬일인지 그 몸가짐에서 선뜩한 것이 전해져와 우혁도 멍어서 버렸다. 그들의 안전등빛에 광부들이 흔히 《졸장을 박았다》고 말하곤 하는 합수층에 댄 굵은 판자와 동발목이 드러났다.

합수층은 견고한 암반이 아니라 석비레 같은 무른 바위층인데 여기에는 대체로 물주머니가 있었다. 이 물주머니가 터져나오면 가루버력이 세멘트몰탈처럼 이겨져 함께 쏟아지는데 광부들은 이것을 《비지버력》이라고 하며 제일 질색했다.

비지버력이 터지면 갱이 행하니 무너져 묻혀버리기때문이었다. 몇달, 지어는 해를 두고 애쓴 것도 령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았다.

바로 그 《졸장》들을 비쳐보는 순간 우혁은 온몸으로 출달음치는 전율을 느꼈다. 갱천정으로부터 가해지는 무서운 압력으로 판자들이 서서히 비틀리우고 동발목들이 기울어지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지압이 오고있는 것이었다.

그대로 두면 동발목이 넘어질것이고 그러면 젖은 참나무를 손쉽게 비틀어버리는 무서운 압력으로 《비지버력》은 터져나올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갱건설을 위해 해놓은 모든 것이 지어는 방금 전 한몸을 내대고 불발을 퇴치한 그것마저도 수포로 돌아갈것이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우혁은 천일이 벌써 기울어지는 동발목결로 다가드는 것을 보았다. 커다란 버력돌을 쥐고 빠져나온 썰기를 쳐서 동발목을 바로세운다. 우혁도 달라붙었다.

바로 그 순간 우혁은 가슴속을 휩쓸고 지나가는 무서운 공포를 느꼈다.

굵박 불을 달고 나온 도화선, 수십개의 구멍속에 장약된 폭약들...

이제 발파가 진행될것이다. 여기는 위험구간이다. 우혁은 깜짝 놀라며 천일의 팔을 붙들었다.

《천일이! 발파!》

천일도 그제야 발파생각을 한듯 흠칫하며 굳어졌다. 얼굴을 찌프리는듯 하더니 이어 다시 범상해졌다.

《떨지 말구 가서 동발목이나 한대 가져오라구. 아무래도 보강해야겠어》

《안돼! 위험해!》

《내게 다 시간타산이 있어. 도화선을 길게 했단말이야. 자네가 간부지만 이런 땐 내 말을 들어야 해. 자, 빨리!》

별안간 천일이 우혁을 힘껏 떠밀쳤다. 어찌나 완강한 힘이었던지 우혁은 비칠거리기까지 했다. 우혁은 위기에 대한 의식과 공포 그리고 태연한 듯 하면서도 사나운 천일의 태도앞에 그만 어병병해졌다.

무엇을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허둥거렸다.

《빨리! 저열에 있는 굴을 따라 조금 가면 동발목무지가 있어. 어서!》

우혁은 정신없이 옆굴로 뛰어들었다. 마음이 조급해 발이 걸채우고 굴벽에 안전모를 부딪쳐가며 달려갔다.

얼썬얼썬하는 갱벽과 바닥, 레루토막, 못쓰게 된 광차, 질벽히 고인 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모든 것의 번뜩일른거리는 형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미지근한 감각으로 눈앞에서 사라져간다. 두눈은 오로지 동발목만을 찾는다.

(동발목! 동발목! 이제 발파가 있겠는데 ...

그런데... 그런데 동발목이 어디 있어?)

언뜰문뜰한 굴벽만이 안전등빛앞에 어지럽게 달려들고 웅크리고앉은 거뭇한 괴석들이 이발을 갈듯 섬찍하게 드러나보인다. 그 모든 것에 화를 내고 몸을 떨면서 동발목을 찾아 계속 달려다.

그러나 동발목은 없다.

문득 그는 자기앞이 막힌 것을 보았다.

이곳은 옛날에 쓰던 압축기장이거나 무슨 창고로 쓰던 굴인것이다. 그는 막힌 굴앞에서 눈을 홉떴다. 정신없이 휘돌아쳤으나 동발목은 없었다. 막아선 굴벽이 시커멓게 덮쳐드는 듯 하다.

숨이 킁 막힐만치 답답하고 절망적인 느낌.

(동발목! 동발목?! 아!)

우혁은 불시에 머리를 치는 생각에 번개라도 맞은듯 그 자리에 굳어졌다. 동발목은 없다! 원래부터 없었을것이다. 천일이 자기를 속인것이다.

불을 삼킨듯이 온몸이 확 다는듯 했다. 자기를 위험구간에서 뺏아내자고 천일이 이런 오그랑수를 쓴 것이었다. 걸쭉한 욕을 퍼부으며 돌아섰다.

그 순간 그는 굴안을 확 비치는듯 한 섬광을 느꼈고 뒤이어 귀안을 멍멍하게 하는듯 한 폭음 소리를 들었다.

섬광, 섬광, 폭풍, 폭풍...

《천일이! -》

우혁은 목청껏 소리치며 달려다.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자연과 인간과의 그 엄혹한 싸움에서 생을 위협하는 아슬아슬한 위험도 함께 겪었고 그래서 옷자락을 들추면 서로를 위하여 몸을 내댄 그 남모르는 상처자욱도 간직하고있는 그들인것이다.

조국앞에 일시적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 시기도 그들은 함께 일했다.

전기가 부족하여 양수기와 압축기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식량도 부족하던 그때 우혁은 온 광산을 갱밖 버력산으로 이끌어냈다.

《ㅎ》광석은 자연상태에서 여러 광석들과 함께 존재한다. 명천광산이 《ㅎ》광석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광산이다보니 생산과정에는 함께 존재하는 유용광물이 그대로 버력에 섞여나가는 경우가 많다.

우혁은 바로 이 유용광물을 채취하여 광산이 처한 힘겨운 고비를 넘기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매 갱들뿐만아니라 사무, 권의, 후방을 비롯한 모든 부서와 단위들에 광석수집과제를 할당하고 무조건 내려먹였다.

그 자신이 질통을 지고 버럭산들로 얼굴이 꺼매서 뛰어다녔으며 목이 쉬도록 소리를 쳤다.

은 광산이 펼쳐나섰다. 그러나 개중에는 우혁의 견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계속 버럭산만 뒤흔다나면 갱들하구 설비들은 영 못쓰게 되고말텐데... 우린 갱밖보다 두 갱안을 더 관심해야 합니다.》

갱에서 오래 일한 광부들속에서 제기된 이 의견을 우혁은 두말도 못하게 밀막아치웠다.

《그래 숨죽은 갱을 들여다보고있으면 광석이 하늘에서 떨어진다오? 지금은 저 버럭산에서만 이식량도 생기고 설비도 나오오. 다 보고있고 알고있으니 걱정하지 마소.》

광산에 거의 절대적인것으로 되어있는 우혁의 사업권위는 큰 물의없이 사람들을 버럭산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갱밖보다도 갱안을 관심해야 한다는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고도 끈질기게 우혁의 주위를 맴돌았다. 얼마후 우혁은 바로 그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들의 가운데 천일이 있다는것을 알았다. 놀랍고 패섬했으나 인차 잊고말았다.

완강하게 일을 내밀었다.

그런데 어느날 천일이 우혁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옛날처럼 우혁이라고 허물없이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단 둘이 있을 때마다 너나들이를 하던것을 새삼스럽게 지배인동지라고 고여올리지도 못하며 공연히 거북하고 따분해서 군소리를 했다. 그바람에 우혁마저도 자연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는 말없이 천일이 즐겨하는 담배를 내밀었다.

《자 한대 피우게》

천일은 그제야 몸이 좀 풀리는듯 담배곽에서 담배 한대를 뽑아들고 잠시 들여다보더니 빙긋 웃었다.

《자네 요즘 이런 담배가 많아야겠구만.》

《?!?》

《자네 요즘 이 담배가 아니면 우리 광부들과 섞이기 힘들어하는것 같애.》

우혁은 그 말을 하는 천일이 자기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것을 느꼈다. 그는 천일이 마음속으로 준비해가지고온듯 한 그 말을 자기에게 하기 썩 어색해하고 거북해한다는것을 알았다, 그동안 자기와 천일사이에 생긴 거리감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하자고 하는걸까? 혹시 자기에게 너무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는 힐책이 아닐까?

문득 그가 여전히 보통광부로 일하고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미안했다. 내가 왜 거기에 생각을 돌리지 못했을까?

《할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다 하라구.》

천일은 그제야 앓음가짐을 바로하며 우혁을 바라보았다.

《자네 오늘두 갱밖이 아니라 갱안을 털어먹을 생각을 해야 한다구 한 1갱 젊은이한테 제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구 했다면서?》

《?!》

기대했던것과는 너무도. 다른 천일의 말에 우혁은 얼떠름해졌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올 때마

다 습관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꼈다.

《그래서?》

《잡된 일 같지 않아. 자네 자기가 지배인이니까 제가 제일 정확하게 보구 정확하게 일한다는걸 너무 믿고있는것 같애. 그래서 자기 의견을 반대하면 기분이 나빠지구 그런 사람에 대한 인식두 나빠지구. 난 웃는 말로나마 갱사람들이 이젠 철진이가 지배인에게 잘못 보였다는 말을 하는걸 듣구 생각이 많았어.》

《허허, 참!》

우혁은 웃고말았다.

《직위가 높아질수록 더 깊이 머리를 숙이구 노동자들의 말을 귀담아듣는게 진짜 간부가 아니겠나. 너무 머리를 쳐들구 다니면 자기 목소리밖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

우혁은 후끈 달아올랐다.

《그런 걱정때문에 일부러 왔다면 더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 내 할바는 나도 알아.》

우혁의 목소리가 다소 통명스러워지자 천일은 할말을 잊은듯 우혁을 바라보았다.

《나한테 자꾸 무슨 리론투쟁 같은걸 걸지말라구. 난 말공부보다 현실적으로 광산을 살릴 방법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하지만 자네도 광부출신인데 지금 방법대로 하면 광산의 명은 이어갈지 몰라두 갱은 큰 해를 입고만다는걸 모르지 않을게 아닌가? 이것두 뭐 리론투쟁인가?》

《젠장! 제발 자네까지 그러지 말라구 나도 다 타산이 있구 승산이 있단 말이야, 관리국에서 이제 새 설비들과 끝판한 제대군인로력들을 우리 광산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네.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거야. 제일 힘든 이런 때 자네라도 마음을 맞춰줘야지...됐네! 그 얘기때문에 왔다면 돌아가게.》

천일은 성이 난 우혁을 바라보며 망설이는듯 하더니 지곳은 웃음을 싱긋 웃었다.

《그럼 가야지. 지배인이 내쫓는데. 하지만 자기 전에 옛말을 하나 하고 가지.》 《뭘, 옛말?!》

《그래!》

천일은 앓음새를 편안히 하고는 미리 준비해가지고온듯 한 이야기끈을 끌었다.

《옛날에 세발 좋은 한 세도대감네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군 했네. 재물 많구 권세 높은 대감집이니 이 명색, 저 명색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밖에... 하루는 그 세도대감이 자기 집에 가득 모여앉은 사람들앞에서 어제 자기가 쓴 시를 한번 읊어보겠다고 했네. 대감이 쓴 시라 모두들 귀를 씻구 앉아 시웁기를 기다리고있는데 문득 한 선비가 제격 일어나더니 《거참 시를 잘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는거야. 아직 시는 읊지두 않았는데. 모두들 아연해졌는데 그 선비가 하는 말이 이제 대감이 시를 읊으면 앞방의 박진사, 리생원, 중간방의 문선비 등등이 다 일어나 한결같이 시를 잘 지었다고 칭송할테니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몰라 먼저 일어나 시를 잘 지었다고 칭송했다는거야.》

분명 자기를 겨누고 하는 그 이야기에 우혁은 점점 분기가 치밀어 시커매진 눈으로 천일을 노

려보았다. 그 눈길앞에 천일은 마치 바늘방석에라도 앉은듯 공연히 궁식거리며 그 눈길을 피하느라고 찢찢했다.

그러면서도 뜬금으로 외운듯이 그 이야기는 끝까지 다하고말았다.

우혁은 두눈을 찡금 감고 들어보란듯이 해대는 그이야기에 그만 분노가 터지고말았다.

《당장 나가라구! 썩 나가!》

천일은 가라기 전에 갈 태세였던듯 제격 일어나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가 나간 다음 우혁은 책상우

에 올려놓았던 담배꽂이 없어진것을 보았다.

분기가 치밀었으나 종당에는 어이가 없어 허허 웃고말았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이 귀전에서 사라지지않은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모든것을 다시금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후 그는 갱밖으로만 집중했던 로력가운데서 일부를 갱들에 펴구어 갱을 유지하고 복구하며 소규모적으로나마 광석생산을 하게 했다. 얼마후 당에서 명천광산의 생산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여주었을 때 명천광산이 인차 자기 궤도에 올라설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그때문이였는지 모른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기간 광산을 잘 운영한 우혁의 사업이 웅당하게 평가되고 그것으로 하여 그가 채취공업성으로 소환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 모든것을 돌이키는 이 순간 우혁은 자기가 그시절 가장 보람차고 떳떳했으며 지어는 행복하기까지 했다는것을 깨달았다.

소박하고 진실한 애국의 삶들이 언제나 자기곁에 있어준 그 길, 바로 그 길이 크지 않은 광산의 평범한 제대병사로부터 나라의 채취공업발전의 한부분을 맡은 일군으로 성장한 오늘에로 이어진 길이였다.

하다면 지금은?! 우혁은 또다시 자기와 천일사이에 놓여진 그 어떤 거리감을 느꼈다.

상부개척을 결심하면서도 나는 언제한번 천일과 같은 평범한 광부들의 의견을 묻은적이 없다.

바로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길게 아닐가?

우혁은 문득 갈마드는 자기자신에 대한 의혹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깰수 가질수 없는것이 안타깝고 불안했다. 우혁은 자기의 이 불안과 안타까움을 아들이 명천광산에서 깰수 있게시켜줄기를 바랐다.

(명훈아! 명천광산에 가져들랑 인차 소식을 전해다오!)

우혁은 아들이 지금 애인과 작별하고있을지도 모를 그 역전 열차승강대결의 달콤하고 은밀하며 아쉬운 속삭임과 출발전의 기적소리를 분명 듣는듯싶었다.

3

아들은 인차 소식을 전해오지 못했다. 우혁은 불안하고도 조급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렸다.

드디어 아들의 편지가 왔다. 그 편지를 받아본 우혁은 명천광산으로 내려왔다. 곧장 천일이 일한다는1 갱으로 향했다. 압축기 기름냄새가 배인 갱안공기를 오래간만에 가슴후련하게 들이키며 막장으로 향했다. 문득 막장휴게실문이 활짝 열려있어 거기서 눈부신 불빛이 쏟아져나오는것을 보았다.

바로 그앞에 두사람이 서있었다.

거기서 문득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어떻게 부국장동무 개인이 이 광산의 운명에 대해 그렇게 쉽게 대답할수가 있소. 잘된것 같지 않소.》

웬일인지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너무 오지랖이 넓게 싸안구 다닌다고 생각되지 않소,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대체 아바이네 갱장은 사람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

우혁은 그것이 부국장의 목소리라느것을 알았다.

《난, 놀려다니는게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 평산이 절대 톨포지구로 옮겨가지 않는다고 장담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부국장동무 말을 믿구 거기에 석재가공장을 세운다면 손해볼건 우리 광산이란 말이요.》

우혁은 그것이 다름아닌 천일의 목소리라느것을 알았다.

《아바이! 아바이가 지배인이요 뭐요. 우린 톨포지구로 옮겨가는게 아니라 여기서 상부개척을 해서 갱을 계속 끌고가겠단 말이요.》

부국장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자기 권위에 대한 침해를 느낀 성급하고도 도전적인 목소리였다.

《난 상부개척을 반대하는건 아니요. 하지만 그걸 우리 광산에 도입하는건 반대하오. 그게 바로 하늘소 귀치레하듯 한다는거요. 기껏해서 몇년밖에 더 파먹지 못할 광산에 그렇게 투자해서 상부굴진갱도를 건설할바엔 차라리 톨포지구로 옮겨가는게 훨씬 낫지 않소. 부국장두 배운 사람인데 이걸 모를리야 없지 않소.》

《아바이, 상부개척은 창조란 말이요. 창조에 그만한 희생과 대가도 없겠소. 광산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부개척을 성공하면 그게 전국에 줄 이익을 생각해보란 말이요.》

《왜 하필 우리 광산이 손해를 봐야 하오? 도입하면 실지 덕을 볼 광산두 있겠는데... 그 희생과 대가의 덕으로 리득볼건 몇사람이지만 손해볼건 이 광산이란 말이요.》

《뭐요?! 이 아바이가 정말... 그래 부상은 그걸 몰라서 이 광산에서 상부개척을 할 결심을 했겠소?》

그 순간 우혁은 천일이 빙그레 웃는듯이 느껴졌다. 불빛에 싸인 그의 온몸에서 바로 그것이 느껴졌다.

《난 부상동무를 부국장동무보다 더 잘 아오.

그도 이걸 안다면 꼭 옳은 결심을 할거요.》

우혁은 거의 신뢰에 가까운 그 목소리를 찌르듯 가슴으로 들었다. 그리고 어제날 칭찬을 먼저 한 선비이야기를 냈다 하고 달아나던 그 천일이 아닌 한 광부 인간을 보았다. 그 거인스러운 느낌으로 하여선지 그의 앞에 선 부국장의 모습이 별스레 자그마해진듯이 느껴졌다.

《그리구 부국장동무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인데 너무 우만 쳐다보면서 혼자가 되지 마우다.

그러다가 물위에 뜬 기름방울처럼 노동자들과 영 섞이지 못하는 부국장이 될가봐 그러오. 그렇게 되면 부국장동무의 힘이 줄구 광산의 힘도 주우다. 어서 이제라도 다시 그 석재가공장을 건설하려는 사람들과 가주우다.》

《그만두시오! 아버지가 뭘 안다구. 정 가겠으면 아바이나 가우다.》

부국장의 목소리는 상급다운 권위만 없다면 초라하게 들리리만치 힘이 없었다. 그들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천일이 돌아섰다. 갱바닥을 힘주어 밟아디디며 씨엥씨엥 가버린다.

부국장은 우두커니 서있었다. 우혁은 그의 앞으로다가갔다.

《아니, 언제 오셨습니까?》

부국장은 레절바르고 친절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왜서인지 그것이 거북하고 불쾌해졌다.

《부국장동무, 동문 두가지 말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해봤소?》

《예?!》

《상급을 대하는 말과 노동자들을 대하는 말로 따로 가지고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이요.》

부상이 자기들의 말을 다 들은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부국장의 얼굴은 해쓱해졌다.

《명심하시오. 직위가 곧 인간에 대한 총평은 아니요. 가장 참되고 진실한 인간들과 떨어진 인간은 설사 직위가 높다고 해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있는 인간이요 내 다 들었소 상부개척을 중지하시오.》

부국장은 숨기가 없어진듯 서있었다. 아찔한 나락으로 떨어진듯 한 모습이다.

《이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부상동지까지 이러면 전 뭐가 됩니까?》

부국장은 숨가쁘게 부르짖었다.

《물론 자기의 명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전 부상동지를 믿고 존경했기때문에 이 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한 보통광부의 견해보다 못한것이었던 말입니까?》

우혁은 주머니에서 아들의 편지를 꺼내들었다.

《부국장동무, 이건 우리 아들의 편지요. 그 앤 이명천광산에서 아버지를 도와 자기 발파법을 도입하려고 했댔소. 그건 아마 동무도 잘 알고요. 하지만 그 앤... 한번 읽어보오.》

우혁은 휴게실불빛앞으로 가서 아들의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 부국장을 지켜보았다. 그 표정과

속으로 읽어내려가는 입모양을 보고서도 우혁은 아들의편지를 구절구절 되새길수 있었다.

《아버지! 전 이미 명천광산에서 상부개척을 반대하는것이 정당하다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명천광산의 상부수준에는 광맥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부개척을 한다고 해도 2~3년밖에는 캐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술한 투자를 해서 상부굴진갱도를 건설하는것보다 차라리 광산을 룰포지구로 옮기는것이 실리적이라는 그 의견은 옳은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지혜와 땀,

그리고 꿈이 비껴있는 그 상부개척을 조건이 유리한 그곳에서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버지에게도 그것을 숨겼고 저도 그것을 애써 잊으려했습니다. 설사 광산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완성되어 전국적규모에서 도입된다면 그 이익은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부국장동지의 견해가 나에겐 참으로 고맙고 다행한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성의 능력있는 일군으로 평가받는 아버지가 필요했고 바로 아버지의 그 명예밑에서 나의 연구성과도 더 빛이 나게 하고싶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나에게 아버지는 부디 과학자의 량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정확한 반대리유를 모르면서도 한 평범한 광부가 반대한다는 그것으로 하여 모든것을 의심하고 지어는 포기하려고까지 하는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워 밤새 잠 못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가슴속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너무도 잘 아는 평범한 광부의 그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마저 잊게 하였는지? 나는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 명천광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내려와 단 한순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휴식날 집에서 휴식하면서 집일을 해도 일단 집문턱을 나서면 갱에서 일하던것만큼 시간을 채워야마음이 편해 밥상을 받는다는 사람.

명예도 재부도 바람이 없이 오직 광석생산을 위해 아글타글하는 사람.

바로 이런 인간들의 지지와 협조를 받지 못하고서는 일군으로서의 사업도 과학연구도 바로 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이 제일 어렵다고 되어있는 천상광산으로 떠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과학자의 량심을 저버릴번 한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도 나는 굳이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다시한번 용서를 빌며 떠납니다.》 부국장은 편지를 든 팔을 축 내리드리운채 서있었다. 그의 가슴속에 소용돌이칠 복잡하고도 아픈 심정이 리해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비를 넘겨야만 하는것이다.

《방금전에 이야기되던 그 룰포지구에 건설된다는 석재가공장은 어떻게 된거요?》

부국장은 힘들게 대답했다.

《우리가 원래 쟁을 건설하려고 했던 자리에 어느 한 단위에서 석재가공장을... 저에게 찾아왔기에 광산이 언제 저기로 갈지 모르는 일이라구...》

《동무 개인의 견해로 말이요?》

부국장은 대답을 못했다.

《하긴 내 잘못도 크오. 나도 당조직에 자기비판을 하겠소. 부국장동무! 나나 동무나 가장 가까이 훌륭한 인간들과 생각이 다르구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항상 자기를 채찍질하며 삽시다.》

우혁은 갠안으로 향했다. 천일을 만나고싶었다.

그러나 천일은 갠에도 집에도 없었다.

우혁은 혹시 그가 부국장과의 대화에서 받은 모욕감과 아픔을 목새길수 없어 어느 조용한 곳에 홀로 있는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저물녘까지 기다리던 우혁은 광산을 떠났다.

오늘중으로 톨포지구에 석재가공장을 건설하려 한다는 그 단위를 찾아가야 했던것이였다.

광산에서 80여리길이였다.

비가 오려는지 잔뜩 흐린 날씨였다.

단위책임자가 우혁을 맞아주었다.

《이거 부상동지까지 오셨구만요. 다 나라의 체면을 높이자는 일인데 우리가 공장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잡으면 되지요. 방금전에두 광산에서 한 광부아바이가 찾아왔었습니다.》

《?!》

《그 아바이의 말에 우린 무척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바이더군요.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방금 돌아갔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비가 오누만요. 이 아바이 비맞겠는데.》

창밖에는 어느덧 비가 내리고있었다. 채찍같은 비살에 모든것이 고개를 숙여버리고 벌써 물도랑을 이룬 여기저기서 거점스러운것들을 떠싹고 내려가는 물소리가 들렸다.

책임자와 헤어진 우혁은 불이 환하게 켜진 청사문앞에 선채 가슴을 옥죄이는 아픔을 느끼며 이 비속을 달려가고있을 천일의 모습을 생각했다.

승용차가 그가 비를 맞을세라 사무실청사 문앞까지 바투 후진해와섰다. 불시에 무엇인지 알지 못할 부끄러움과 거북함을 느끼며 우혁은 급히 승용차에 올랐다. 광산을 향해 달려갔다.

우리담개가 바빠 움직이는 차창을 통해 비에 젖은 길과 나무들이 번들거리며 나타났다가는 다 가들며 사라진다. 그러나 천일의 모습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

혹시 어디선가에서 비를 굶고있는것이 아닐까? 차라리 그래주었으면!

문득 차창가에 낮익은 모습이 비쳐왔다. 그 순간 우혁은 흠칫 놀라기까지 했다.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달리고있는 모습.

그는 젊은이처럼 웃웃을 아예 벗어던졌다. 울근불근한 근육투성이인 뺨진 말뚝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것은 비물과 땀에 젖어 기름을 바른듯 번뜩거린다. 그는 그 무엇엔가로 육박해가듯 완강하게 턱을 쳐든채 힘있게 발디디개를 돌린다.

폭풍과 어둠을 꿰지르며 살같이 날아가는듯싶다. 비오는 온 천지에 오직 그만이 강자인듯하다. 자기의 정당성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열정과 힘에 넘친 모습이였다.

운전사는 비오는 날의 운전에 긴장해진채 그의 결을 속도 높여 지나치려 하고있었다. 문득 조심하라고 경고하듯 뱅뱅 경적을 울렸다. 그 경적소리는 몹시도 크게 들렸다.

그 순간 우혁은 온몸을 확 불사르는듯 한 수치감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경적을 울리지 마오》

운전사는 놀랐고 승용차는 그대로 천일을 스쳐 지나버렸다. 그 순간 우혁은 참을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

과연 비를 맞으며 달려가고있는 저 인간의 결을 승용차를 타고 경적을 울리며 지나칠만큼 나는 몇몇한 인간이였던가? 세상에는 가장 훌륭한 인간앞에 직무상의 높이밖에 더 우월한것을 가지지 못한 인간들이 훨씬 편해지고 더 자부를 느끼는 일도 있는것이다. 그것은 때로 아름답고 훌륭한 인간들이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인 그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떤 직위나 명예보다 더 아득한 높이에 서있는 사람, 바로 저런 애국의 삶들을 가장 높이 사며 그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살며 일해야 한다.

우혁은 차를 세웠다. 기다린듯 비줄기가 온몸을 후려갈겼다. 그래도 그 차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서있었다.

이제 여기로 달려올 천일과 비를 함께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고싶었다. 그는 앞에 타고나는 뒤에 타고... 힘들면 서로 엇바꾸어 탈것이다. 우혁은 어느덧 천일처럼 웃웃을 벗고있는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

아들이 또다시 같이 퇴근하자고 전화를 걸어왔다. 청사정문곁에 선 아들은 혼자가 아니였다. 그옆에는 싱싱하고 아릿다운 처녀가 서있었다. 아들이 싱그레 웃으며 처녀를 우혁에게 인사시켰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처녀를 알아보는 순간 우혁은 자기 눈을 의심하며 굳어졌다.

《어디 두구보자, 너!》

《잘코사니!얼러러러!》

《좋다! 그럼 이제부터 찰떡사돈이다.》

그 처녀는 다름아닌 천일의 딸 혜선이였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이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누구보다도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작가는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인간과 생활을 볼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작가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작가는 낡은 사상이나 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많은 반면에 정신로동을 하기때문에 실천속에서 단련될 기회가 적으며 집단적으로 사업할 기회도 많지 못하다. 이런데로부터 작가는 낡은 사상잔재의 영향을 받을수 있는 요소가 많다.》

《작가는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자신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 이 의 하 나

리광선

내 때없이
장군님 생각을 하느라
늘 떠오르는 그 이야기 있어라
큰 하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아니라
더 큰 하나가 된다는...

조국수호의 최전연길에서
병사가 입은 숨옷의
작은 바늘구멍을 두고
그토록 마음 쓰신
아버이 그 영상 우리를 때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하나

구룡령의 길우에 꽃피난
사랑의 전설을 전해들을 때도
친아버이사랑속에 더 아름다워진
무재봉녀성강사의 이야기 들을 때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하나

물방울에 물방울을 합하면
큰 하나의 물방울 된다는
어린시절에 발견하신 위대한 그 진리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더 큰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 그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너를 떠난 내가 아니라
네가 있는 나의 세계를
한평생 펼쳐오신 우리 장군님

정의의 위대한 그 심장에
동지를 합하고
인민을 합하고
온 세상을 합하시며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이 땅에 수놓아오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니던가
우리 장군님 생각할 때면
따르는 한걸음한걸음을 살피고
반드는 마음의
그 한갈피한갈피를 다듬는것은

오, 진정 사랑이라면
가장 열렬한 사랑이였고
믿음이라면
가장 뜨거운 믿음이 있는
우리 장군님의 그 하나

사회주의가 지켜지고
선군의 승리를 안아오는 그 하나
위대한 세계를 낳는
그이의 하나속에
오,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우리가 살고있어라
인민이 살고있어라

하나에 대한 생각

김홍균

하나!

내가 세상에 태어나 개념적으로나마 처음 익히게 된것은 아마 하나만큼 단순의미를 가지는것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 하나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나는 요즘 새삼스레 생각하게 되었다.

함경북도 《김일성 동지혁명사적관》에 꾸려진 구호문헌보존실을 참관한 나는 뜻밖에 일어난 산불로부터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나무를 구원하기 위해 한몸 그대로 성벽이 되어 막아선 무재봉 17명불사조들의 군상앞에서 오래도록 발길을 뻗을 수 없었다.

영웅들이 남긴 불에 타고 그슬려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옷과 모자, 신발앞에서 저절로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 생각이 깊어지는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과연 자비도 동정도 모르는 불속에서 그들의 몸이라고 뜨거움을 몰랐고 그들이라고 생의 귀중함을 몰랐겠는가.

몇걸음만 피해서면 골개수에 몸을 적실수도 있었건만, 지척에서 동해의 푸른 파도가 안타까이 기슭을 치며 타드는 몸을 적시라고 불렀건만 어찌하여 한두명도 아닌 17명 전사들이 약속한듯이 이글거리는 화염속에 그대로 한덩어리가 되어 그대로 굳어졌는가.

때로 혈육간에도 의견상이가 있고 부부간에도 합심이 안될 때가 있거늘 하물며 교향도 성별도 나이도 성격도 직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불속에서 스스로 심장을 내대며 수령결사옹위의 어깨를 걸었으니 그 불멸의 화폭앞에서 내 다시한번 깨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혁명의 자랑찬 전통이고 혁명승리의 비결이며 령도자를 중심으로 일심단결된 우리 혁명대오의 참모습이라는것이다.

한명한명의 동지들을 찾아내느라 일신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수령님 견고결으신 사선의 언덕을 더듬어보느라니 사연깊은 심양으로 달리던 열차가 떠오른다. 교하의 농촌마을도 새겨지고 화전의 휘발하기슭도 밟혀온다.

한명의 동지를 찾아 때로는 굶기도 하시고 때로는 손발도 얼구시며 수백리 밤길도 서슴지 않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이런 사랑과 믿음으로 묶어세운 새 세대 청년 혁명가들이였기에 혁명의 첫 기슭에서도 그들은 기약할수 없는 전도를 놓고 의심할줄 몰랐고 동요를 몰랐다.

오로지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만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받들었다.

《한별동지!》

저 하늘에 못별이 많아도 조선의 별은 하나임을 선언한 새 세대 청년전위들은 그때 벌써 열렬한 심장의 분출로 수령송가를 지어불렀다.

한별의 영원한 동지가 될 맹약으로 이름을 고친 투사도 있다.

살아도 죽어도 그이의 동지가 되겠다고 성도 그이의 성을 따르고 이름도 고친 전위투사가 어찌 한들뿐이랴!

그 열혈의 심장들이 자기들의 령도자를 태양으로 받들었다.

의리로 뭉치고 사상과 신념으로 단결된 대오였기에 원수들의 백색테로하에서도 사분오열을 모르는 거목으로 인민의 토양속에 뿌리를 내릴수 있었고 대양의 파도에도 드물지 않는 배가 되어 항해의 먼 배길도 곧바로 갈수 있었다.

되새겨볼수록 가슴이 후터워오른다.

어떻게 지켜진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인가!

우리 수령님 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해 한몸 위험을 무릅쓰시고 혁명의 위기를 막아나서신 요영구 회의장이 떠오른다. 눈앞엔 금시 《민생단》보따리를 불태운 그 우등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

우등불빛에 실려 억울한 루명으로 번민하던 대원들이 하늘같은 믿음에 목매여 쏟친 눈물의 바다가 실려온다.

그 사랑, 그 믿음이 사령부의 안녕을 지켜 허를 깨물은 마동회동지를 낳았고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친 불굴의 녀투사를 낳았으며 혁명의 수뇌부옹위의 산모범을 보여준 오중흙7련대를 낳았다.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 사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장구한 혁명의 년대기마다에서 피를 바치고 심장을 바친이들을 어찌 천으로, 만으로만 헤일수 있으랴.

나쁜 놈들이 쏠라닥거려도 우리가 이긴다고, 우리는 수령님을 지지한다며 그이의 안녕을 축원한 태성할머니, 가슴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히 품고 원수들의 손에 더럽혀지지 않으려 무거운 연추를 목에 걸고 날바다에 뛰어든 서해의 영웅선장, 불붙는 집에 뛰어들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보위하고 우리결을 떠나간 애어진 소녀...

인민군대의 육탄영웅들인 길영조, 김광철...

령도자를 중심으로 단결되고 수뇌부옹위를 위해서는 제 한몸도 기꺼이 바치는 이 룰리속에 내 조국은 백배로 굳건해졌다.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 핵폭탄보다도 더 위력한 이 통일단결이 있어 우리는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과 가증되는 경제체제로 건지 않으면 안되었던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에서도 승리할수 있었고 만난을 이겨내고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칠수 있었다.

그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세의 위인 **김정일**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행운을 사무치게 절감했
고 준엄한 세월이 열백번 다시 온대도 오직 그이
만을 따르고 받들 절대불변의 의지를 더욱 굳혔
다.

무재봉 17명 영웅들도 자기들의 체험으로 그것
을 진리로 새겼기에 한결같이 자신들을 불속에
세우는 길을 서슴없이 택한것 아닐가!

그 하나된 모습속에 나도 세워본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군상속에 나만이 아
닌 천만군민 모두를 세워본다!

하나!

그 하나로 더욱 부강해질 내 조국의 래일을 생
각해본다.

우리 삶의 교과서

박세일

붉은넥타이시절

《아동단원 금순이》를 읽으며

내 너와 인연을 맺었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여

오늘도 펼치면 한줄두줄 인생의 계단이런듯

내 삶의 절정 백두산마루에

이 몸을 이끌어 세워주고...

읽으면 한자두자 이 가슴에

신념의 불씨로 번져가

혁명할 생각으로

피가 끓게 하거니

여기서 듣게 된

항일의 7련대 나팔소리에

총 잡은 내 심장

결사옹위맹세로 화답하지 않았더니

여기서 울려퍼진

병기창의 마치소리

오늘은 온 나라 일터마다

강성대국의 려명을 불러온

자력갱생 마치소리로 메아리치고 있잖느냐

처창즈의 씩씩한 풀뿌리맛을

여기서 내 이미전에 알았기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준엄한 철령을 넘어

멸적의 오성산을 지나

장군님의 선군길을 따라설수 있었거늘

그 길에 내 다시 펼쳐들었어라

열뿔 스무뿔...

나누면 나눌수록

열배 스무배로 불어난

동지애의 정신적량식

《한흠의 미시가루》여!

그 길에 내 다시 새겨들었어라

사품치는 강물속에

피흘리는 몸 가라앉으면서도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하나뿐인 목숨우에 번쩍

총 한자루 조국인양 받들어올린

아, 투사의 마지막웨침이여!

혁명의 대백과사전인듯

여기엔 다 있구나

20대 청춘의 열정을 내뿜어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수령님의 태양일화 혁명전설이

총대를 들어

조국이란 큰 집의 주춧돌을 놓아주신

백두령장의 성스러운 선군길이 ...

정녕 나라마다 민족마다

제나름의 생존방식이 있다 하라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

인생의 값진 모든것을 얻으리

결코 혁명 1세의 회상으로만

끝날수 없는

혁명의 3세, 4세 ...

후손만대의 앞길에 영원히 펼쳐져있을
우리 삶의 교과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여

억만금을 준대도 바꾸지 않을
김일성민족의 불멸의 가보여!

련시

땅의 주인

김정경

땅이여 !
너의 이랑우에는
우리 가정 3대의 운명이
뿌리처럼 얹혔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의 운명이

할 아 버 지

가파로운 비탈밭
잠간 지나가는 소나기에도
씻기고 끓이 지어 빼만 남은 땅
그나마 제것이란 하나도 없어
남의 땅 소작지에 목숨을 얹고
열두달 눈비에 젖어 살아도
해마다 생활의 가물은 더해져
재산이란 술 하나에 누더기이불 한채
두꺼비등같은 손으로 새끼를 꼬며
—똥, 못살 놈의 세상...

한탄 섞인 울분의 침을 뱉으며
한발두발 원한의 동을 지었네
한동두동 분노만 쌓고쌓다가
마침내 지주놈의 고간에 불을 지르고
왜놈들 총칼에 등을 밀리워
감방속 시달림의 몇년세월에
자그마한 소원마저 울쿠어질제
—꼭 망해라, 이놈의 세상
이 한마디 피가래같이 뿜어던지며
한많은 혼이 되고말았네

아 버 지

아비 없는 신세는 주인 없는 강아지
이 발길에 채우고 저 발길에 쫓기며
굶주린 작은 배 달래이기도 하고
도회지엔 먹다 버린것도 수북하다는
거지들의 말도 달게 들으며
아버지는 고향의 둔덕길을 넘었네
기약할수 없는 류량의 길 이렇게 나서
열다섯이 되도록 무슨 고생인들 못해봤으랴
무정한 세월에도 때로는 정이 있어
남의 집 옷방신세 몇년세월에
토스레웃차림에도 장가들었네
한목숨도 용납키 어려운 세월에
어찌 가정을 유지하리오
밤마다 근심이 모이고 쌓여
넘지 못할 험산이 우뚝하더니
그 어두운 운명에도
태양이 솟아올라
해방의 밝은 빛을 뿌려주었네

쫓기고 물리우던 뜨내기꾼의 운명에도
3천평—주인의 표말이 굶다랴게 박혔으니
꿈인가 생시인가
믿어지지 않는 현실앞에
난생처음 격격 흐느끼며
은혜로운 수령님께 절을 하였네
봄 여름 지나고 가을에 이르러
—은혜에는 보답이 따라야 하구말구!
달구지에 그득히 애국미 싣고
류량의 고개이던 고향의 언덕 넘어
어서 가자 펄펄펄펄 호기있게도
가슴 펴고 넘어가는 주인의 회열
그 기쁨 빼앗으려
불구름 물려든 그날이었지
한시라도 떨어져선 못살리라던
그 땅을 아버지는 결연히 떠났네
—목숨과도 같은 땅을 뺏으려 덤벼드는데
어찌 주인이 앞에만 있으리오

총대로 못 지키면 망국노가 되구말구...
 주인의 운명을 걸고
 결사전의 언덕 다시 넘었네
 오, 3년불비에

강산은 그 몇번 뒤집혔어도
 주인의 운명은 뒤엎을수 없었네
 아버지는 돌아와 밭고랑을 타셨네

나

세월은 멀리도 흘러
 주인의 표말이 뚜렷이 박혔던 땅에
 오늘은 내가 협동별의 주인이 되어
 이랑을 지어간다
 할아버지운명을 생각하며 한이랑
 아버지의 한생을 생각하며 한이랑
 내 진정 목숨이고 생활인
 이 땅의 주인된 의무를 다하였던가
 아 물음조차 채찍되는 자책의 아픔이여
 하다면 어이하여 이 땅에
 고난의 시련에 찬 세월이 흘렀으며
 제기밥이란 아픈 말이 나오게 되었던가
 그 어려움을 가시자고
 방선에 서있던 병사들까지
 나의 포전으로 달려왔으니
 나는 얼굴을 들지 못할 사람
 누구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할 사람
 다시는 방선의 병사들이
 나의 포전을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다시는 공부하는 아이들이
 내 가꾸는 이랑들을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풀단을 지고 내려도
 산같이 크게
 밭을 갈아도 깊이
 폭폭 뒤번저지게 갈며

나는 생각하노니
 땅때문에 목숨을 묻어야 했고
 남의 집 눈치보기로 살아야 했던
 천덕꾸러기의 운명이
 결코 멀리에 있지 않다는것을
 땅의 주인이
 주인의 의무를 망각할 때
 그것은 래일에라도 닥쳐올 운명
 또한 나는 생각하느니
 오늘날엔 주인의 표말을
 땅에 박는것이 아님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바로 이 가슴에
 깊이 다시는 뽑히지 않게 박아야 함을—
 그때에야 우리러볼 하늘이 있고
 그 하늘아래
 노래의 세월은 길이 흐르려니
 그 세월 그 하늘을 지켜
 우리 장군님 추켜드신 총대
 풍요한 난가리로 높이 받들자
 이 하나의 생각으로
 밭을 갈고 씨를 묻는
 오, 나는 이 땅의 주인
 땀을 뿌려도 피처럼 진한 땀을
 이깁없이 뿌려갈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다

가사

병사와 새둥지

김경석

우리 중대 병영구내 푸른 숲도 좋지만
 나무마다 새로 생긴 보급자리 더욱 좋아
 뻗쭙 뻗리리 뻗쭙 뻗리리
 병사들의 군가 화답이나 하는듯이
 온갖새 날아들며 해종일 지저귀네
 막내전사 숨씨있게 달아준 둥지에도
 어느새 고운 새가 새끼들을 날리누나
 뻗 뻗리리 뻗 뻗리리

새둥지를 달아주던 못 잇을 학창시절
 그 손길이 오늘은 이런 풍경 펼쳤다네
 살뜰한 정 기울여준 하나의 새둥지도
 병사는 가슴속에 뜨겁게 안고 사네
 뻗 뻗리리 뻗 뻗리리
 장군님의 전사들이 지켜선 이 땅에서
 새들아 깃을 치며 더 높이 날으거라

선군령장의 위대한 생애에 대한 칭송의 노래

—장시 《폭풍의 생애》에 대하여—

김봉민

오늘 우리 문학은 수령결사옹위로 충만된 수령
흠모의 감정을 깊이있고 절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
고있다. 특히 우리 시인들속에서 활발히 창작되고
있는 수령형상시문학들은 그 종자에 있어서 새로
고 철학적이며 그 서정에 있어서는 아름다우면서
도 열렬하고 때로는 흥분과 격정으로 출렁이는
감미로운 시세계를 보여줌으로써 만사람의 심금
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시들마다에 맥맥히 흐
르는 수령흠모의 열정, 수령결사옹위의 시대정신
은 시인들의 개성적인 시형상과 독특한 서정속
에서, 혹은 격조높은 주정토로와 채치있게 삽입된
서사적화폭속에서 시의 기본정수적인 사상감정으
로서의 자기 역할을 완만히 수행하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다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온 사회에 굽이치는 송축의 열정, 위대한 장군
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끝없이 흥분시킨 장시
《폭풍의 생애》(김만영작, 주체95(2006)년 제
10차 《조선문학》 축전상을 받음)는 장시형식으
로 씌여진 우리 시대의 송가이다.

작품에서 독특하게 발현된 사상예술적특징들은
창작 실천상 큰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시사해
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이 시의 제목자체가 종자로 되고있
으며 이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제사상적요구에 맞
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격동적인 주정토로와 생동한 정서적화폭을 펼치
면서 감동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작품은 음미해볼수록 종자의 철학적무게, 작품
에 그려진 생활정서반영의 진실함과 아름다움으
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뜻을 새기여준다. 때문
에 우리는 이 시를 마땅히 오늘 우리 선군시대
시문학의 성과작의 하나라고 긍지높이 말하게 된
다.

물론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를 여러가지로 고찰
해 볼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것을 작품형상에서
독특하게 부각된 특징들에 대한 일괄분석을 통하
여 확증하려고 한다.

장시 《폭풍의 생애》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비
범하고 훌륭한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깊은 서정
과 생활철학으로 노래하고있다,

작품의 제목인 《폭풍의 생애》에는 이 작품에
서 말하려는 기본문제, 생활철학이 깃들어있다.
즉 《폭풍의 생애》에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업
적을 집약하여 노래할수 있도록 형상적알맹이가
심어져있다는것이다

시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이 폭풍의 생애
라는데서 형상적알맹이를 잡고 그것을 서정적형
상으로 퍼나가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은 2월의 봄에 그이께서 탄생하신
위인의 생가에 들어서면서 화창한 봄노래를 부르
고싶어하는 시인자신의 뜨거운 심중을 아름다운
서정속에서 노래하고있다. 그러나 시인은 고향집
의 사립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이의 빛나는 생
애를 아름다운 봄노래로만은 다는 노래할수 없었
다고 하면서 가슴속에 차오르는 감격과 흥분의
서정을 이렇게 터치고있다.

...

창밖엔 무성한 원시림이 설레이고

눈보라 세차게 불어치는

백두산빨찌산의 집

우리 장군님은 태어나 첫걸음부터

폭풍치는 백두의 광야를 걸어가셨거니

아, 장군님의 생애엔

아늑한 아래목이 없었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를 우러르는 서정
적 주인공의 절절한 체험이 강렬하게 노래되었다.
생각할수록 가슴뜨겁고 우러를수록 눈곱이 젖
어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 그 한생은 바로
그 어떤 평온도 휴식도 없이 인민을 위해, 조국
을 위해 바치신 투쟁과 전진, 공격전으로 일관된
한생이다.

탄생하신 때부터 소용돌이치는 력사의 폭풍속
에서 성장하시여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에 정녕
그이께서 헤쳐넘으신 폭풍은 과연 얼마이던가.
항일대전의 간고한 그날에 벌써 조선혁명의 미래
를 책임진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오늘은
제국주의자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절세의 령장,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른 경애하는 장군님
의 한생은 진정 부정의를 불사르며 정의와 진리
를 지켜싸운 투쟁과 공격전의 한생인것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세상에 태어나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따뜻한 아래목을 모르시였고 오직 혁명
의 승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만을 위해 간난신고
의 폭풍속을 헤치고계시는것이다.

이렇게 시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한
생을 그이께서 탄생하신 생가로부터 환기되는 정
서적충동속에서 《아래목》이라는 극히 자연스러

은 생활정서와 잘 연관시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아래목》의 《혜택》마저도 모르시고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신 위대한 생애의 체현자이시라는데 대하여 생활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형상하고있다.

어느 일반서정시였다면 독자들은 이 정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범한 생애라는데 대하여 충분히 감득할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시에서는 위인의 생가에서 환기된 정서적 충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것을 한번 더 굴절시켜 위대한 장군님의 전 생애를 돌이켜보며 그 이께서 찍어오신 자옥자옥마다를 서정적으로 감수하여 정서적고조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구체적으로 시를 따라가며 보자.

작품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에 찍어오신 《발자옥》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체험이 그려져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정서적체험을 그냥 사실자료의 라렬이 아니라 그속에서 환기되고 뿜어져나오는 체험과정으로 깊이있게 서정화하고있다. 하여 그이께서 10대에 찍으신 거룩한 《발자옥》이 혁명전통의 만년초석을 굳건히 지키시려는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20대에는 우리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신 거창한 심장의 고동소리로, 오늘에는 천만군민을 이끌고 강성대국의 그날을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가는 발자옥에 대한 체험으로 진실하게 엮어지고있는것이다.

이렇게 그이께서 매 시기마다 찍어오신 거룩한 《발자옥》마다에서 서정적주인공은 깊은 정서적 충동을 받아안고 이 모든 시적계기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세계에서 전후무한 폭풍의 한 생이라든 하나의 철학적인 종자해명에로 지향시키고있는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먼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전 역사적행정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생애를 우러르는 서정적주인공의 신념과 흡모의 열도를 절절히 느끼며 또 우리 시대의 가장 숭고한 생활철학에 대한 뜨거운 감명을 받아안게 된다. 때문에 독자들은 《아, 김정일장군/그이의 생애는/백두의 눈보라였다/세기의 폭풍이었다/력사의 폭풍이었다》고 격조높이 노래한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적인 결론에 정서적으로 공감하는것이다.

이렇게 작품에서는 위인의 비범한 생활을 깊은 생활정서와 잘 연관시키면서도 그것을 철학적인 시형상으로 훌륭히 서정화하고있다.

장시 《폭풍의 생애》에서는 다음으로 서사적인 요소들이 매우 의미있게 도입되어 작품의 종

자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실례로 작품에는 전선길을 달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차에 대한 시적생활세부가 삽입되었다.

류달리 눈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어느해 겨울,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가 병사들을 찾아 전선길을 달린다. 그런데 쏟아져내리는 눈사태,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든 눈보라!

차를 몰고가던 운전사도, 동행한 일군들도 그이께 더는 가실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이윽도록 병사들이 있는 최전연고지정점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신다.

《군마를 가져오라!》

흰갈기를 날리며 얼어든 대지를 깨치며 울리는 말발굽소리, 그 소리를 웅위하듯 더 세차게 몰아치는 눈보라! ...

작품에 그려진 서사적화폭은 이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 그것은 폭풍이었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력사적현실, 삶과 생의 철리를 가르쳐주는 눈보라폭풍의 새로운 전설이었다.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치는 백두산에 오르시여 자신께서는 이런 눈보라가 좋다고, 백두산의 장쾌한 눈보라가 그 어디보다도 좋다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모습이 이 서사적묘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듯 하다.

작품에서는 이 서사적인 요소를 단지 이야기자체로써 끝맺은것이 아니라 이 요소에서 환기되는 정서를 시적으로 서정화하고있다.

시에서는 이렇게 토로하고있다.

...

산악도 징검돌처럼 딛고 넘으시는

백두의 그 용맹

백두의 그 우뢰소리를

자옥자옥에 펼치며

번개같이 치닫는

김정일장군을 따라

조선혁명이 달렸다

선군조선이 나아갔다

그 기상

그 용맹앞에

천만봉우리들도 머리숙이고

천고밀림도 숨을 죽였거니

그이는 혁명을 위해

가셔야 할 길은

하늘이 무너져도 가시는분

그이는 조국의 존엄을 위해

하셔야 할 일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들이닥친다 해도

기어이 하시는데

...

보는것처럼 시에서는 이미 서사적인 요소에서 찾아낸 주정이 서정적주인공의 강렬한 체험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조국을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떤 천지풍파도 헤쳐나가는 위대한 분이시라고 격조높이 노래하는데로 이어지고있다. 이러한 서정적주인공의 강한 열정의 분출은 작품에 인입된 서사적인 요소가 더욱 큰 의미를 안고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도록 하고있다. 즉 사람들은 작품에 인입된 서사적인 요소에서 바로 언제나 폭풍속을 헤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한생에 대한 집약화된 형상을 그려보고 느끼게 되는것이며 이것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는것이다.

시에서는 이밤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하고 비범한 생애에 있었던 감동적인 생활과 세부들을 잘 인입하여 그이의 위대한 생애에 대하여 시인자신의 강한 주정으로 훌륭히 서정화하고있다.

이렇게 시에 그려진 서사적인 요소들과 또 그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체험이나 높은 서정의 폭발은 작품의 종자를 철학적인 형상속에서 깊은 생활정서로 폭넓게 해명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장시 《폭풍의 생애》는 또한 서정구조를 독특하게 함으로써 참신한 서정미를 한껏 부각하고있다.

시의 서정구조라고 할 때 그것은 작품의 서정전개방식이라고 할수 있다.

작품에서는 서정시로서의 특성에 맞게 짙은 서정을 부여하고있는데 그 전개방식에서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있다.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이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한 송가이다.

이에 맞게 시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생애를 감동깊게 노래하면서도 그것을 시인자신의 한두번의 서정의 폭발이 아니라 여러개의 서정적계기점들마다에서 일어나는 정서적폭발의 승화과정으로, 장군님의 전생애를 총괄적으로 노래하는 서정전개방식을 취하고있다.

작품은 어느 일반 서정시들처럼 한두가지 생활 단면을 서정화하지 않고 위인의 생애라는 큰 문제를 취급하고있다. 이로부터 그 형식에 있어서 서정시형식보다 큰 문제를 취급하는 서사시형식과 어떤 면에서 일련의 공통점을 찾을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작품은 이러한 난점을 철저히 극복하면서 서사시와 다른 서정시고유의 서정전개방식을 정밀하게 구성하고있다. 이것은 서정적주인공이 위인의 생애에 들어서는 순간에 느낀 정서적충동, 또 그이께서 우리 혁명의 지나온 년대기들마다에 찍어오신 자욱자욱에 대한 정서적충동과정으로 이어가는 조화로운 서정적형상구성을 취하고있는데서 잘 알수 있다.

작품에서는 서정구조를 조화롭게 구성하면서도 매 서정적계기마다에서 발산하는 정서적느낌을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점차 승화시키면서 정서적고조점에 이르도록 시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작품에서 첫번째 정서적마당은 바로 위인의 생가에서 찾아낸 시적계기점에서 폭발되고있고 두번째 정서적마당은 그이께서 10대와 20대를 거쳐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우리 당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신 그이의 령도업적에 대한 주정으로 이어지고있다. 세번째 정서적마당에서 서정적주인공은 강성대국의 그 날을 향하여 천만군민을 이끄시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상을 그려보면서 한껏 서정을 터치고있다. 시에서는 이렇게 큰 정서적충동을 일으킬수 있는 고도로 정밀화된 정서적마당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서정적주인공의 힘있고 격동적인 주정토대로 매 계기점을 조화롭게 련결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정서적고조점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서정을 조직전개하고있다.

갈수록 승화되는 여러개의 정서적고조점들로 하나의 완결된 시세계를 보여주는 이런 서정전개방식으로 하여 작품은 독특한 서정미를 보장할수 있었다.

장시 《폭풍의 생애》에서는 또한 작품의 종자를 해명할수 있는 세련된 언어표현들을 시의 음조와 열정, 서정을 더욱 돌굴수 있게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모두 생신하고 뜻이 깊은 언어표현들을 능란하게 활용하여 언어의 예술로서의 문학의 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며 오직 언어를 통하여 사상과 감정을 전달한다.

시에서는 여기에 맞게 작품의 종자를 철학적으로 해명할수 있도록 매우 개성적이면서도 뜻이 깊고 힘이 있으면서도 함축미가 흐르는 정서적인 언어표현들을 적극 탐구리용하고있다.

시에 탐구된 개성적인 언어표현들을 몇가지 실례를 들어가며 보자. 시에서는 먼저 위대한 장군님의 성격과 기질을 이렇게 형상하고있다.

...

력사와 세계를 중횡무진하는것이

그이의 성격

하늘 땅 바다를 휘여잡고

천변만화하는것이

그이의 지략

난관을 맞받아 짓부셔버리는것이

그이의 기질

...

우리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들마다에 찍혀진 그
이의 발자욱을 더듬어보자.

일찌기 강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우리 공화국을
세계의 높이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
께서는 인구수도 많지 않고 령토도 크지 않은 우
리 조국을 세상에서 가장 궁지롭고 강위력한 강
국으로 만들어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력사와 세
계를 주름잡으며 복잡다단한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와 영광만으로 이끌어 오시었다. 그이의 불
같은 성격, 강철의 의지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
어리신 나이에 이미 아버지수령님의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서 원대한 포부와 뜻으로 키우신 신념
이고 배짱이고 의지였으며 그이의 필승불패의 위
인적성격이었다. 그 무엇을 인민이 원하고 조국
이 원한다면 그이께서는 하늘땅 그 어디나 인민
의 요구대로 가꿔주시었고 그 길에서 자신의 힘
과 지혜를 다 바치고계신다. 하기에 인민은 그이
를 우리러 세상에 단 한분밖에 안계시는 걸출한
령도자, 탁월한 전략가, 위대한 지략가라고 끝
없이 칭송하며 따르는것이다. 또 위대한 장군님
께서는 인민의 지향을 실현하는 길에서는 추호의
동요와 양보도 없이 곧바로만 전진해 가신다. 만
약 그것을 가로막는자가 있다면 그이께서는 피하
거나 타협의 길이 아니라 맞받아나아가 선군의
총대로 짓부셔버림으로써 우리 조국을 인민의 지
상락원으로 꾸려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이시다.

시에서는 이처럼 인민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인
열렬한 흠모의 감정을 《그이의 성격》, 《그이
의 지략》, 《그이의 기질》 이라는 강하게 함
축된 몇마디의 시어로 그토록 뜻이 깊고 강렬하
게 노래하고있는것이다,

또 다른 레를 들어보자.

...

이 세상 가장 밝고 뜨거운
빛이 있고 열이 있는 생애
탁월한 사상과 리론
정의와 진리가
황홀한 광채를 내뿜는 생애
군대와 인민에 대한 사랑이
아름다움과 숭고함으로 정수를 이룬

절세의 애국자의 생애

얼마나 뜻이 깊고 명백한 표현인가,

그이의 한생은 한평생 인민을 위해 끝없는 사
랑의 열과 빛을 주시는 태양의 한생이다. 군대와
인민은 그이의 한생을 우리러 태양의 빛나는 생
애라고 뜨겁게 노래한다. 시인은 이렇게 인민의
가슴속에 쌓이고 축적된 감정을 시적으로 정서화
하여 《빛이 있고 열이 있는 생애》 라고 명확하
게 표현하고있는것이다. 또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직 세상에서 그 어느 위인도 내놓아본적 없는
걸출한 사상리론으로 우리 조국을 명실공히 사상
의 강국으로 만들어주시었다. 그이의 정치관념,
정치철학은 언제나 인민을 위한 정의와 진리의
정치이며 철학이다 이것이 바로 서정적주인공의
한껏 다듬어지고 사색된 탐구를 거쳐 《정의와 진
리가／황홀한 광채를 내뿜는 생애》 라는 시적표
현으로 뜨겁게 노래되고있는것이며 천만군민을
친아버이심점으로 보살피시는 그이의 아버지적풍
모를 《아름다움과 숭고함으로 정수를 이룬／절세
의 애국자의 생애》 라는 절절한 체험으로 감동길
게 노래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서정적주인공이
이미 인민의 마음에서 숨쉬고 터져나오는 시대의
박동, 시대의 숨결을 시인자신의것으로 깊이 체
득하였으며 뜨겁게 감수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
다.

이외에도 작품에 리용된 시적언어표현들은 모
두 뜻이 깊으면서도 알기 쉽고 그 음조에 있어서
나 그 열정의 높이에 있어서 매우 깊고 풍만한
시어들로 끊임없는 련관을 이루고있다.

이처럼 커다란 폭과 열정, 음조의 깊이를 가진
시적휘들으로써 작품은 장시의 특성 잘 리면서 시
의 종자를 철학적으로,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해
명할수 있었다.

×

장시 《폭풍의 생애》는 철학적인 종자, 서사
적요소의 효과적도입, 서정전개방식의 독특성,
생신한 시적언어표현의 능란한 활용으로 하여 마
땅히 선군문학건설에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성과
작이라고 말할수 있다.

옥이



김영선

1

이사짐을 실은 차우에서 손을 젖던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지자 혜옥의 눈에서는 급기야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웃으며 바래주려고 애써 지어먹었던 마음의 폭이 터진것이다.

선자리에서 한동안 어린애처럼 어깨를 들먹이던 혜옥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해서 바라보는 것이 민망스러워 옥계천기슭으로 나갔다.

이제는 저 혼자 남은 빈집에 들어가고싶지 않았다.

이렇게 될것을 녀려하여 어머니가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던가.

아버지가 중앙병원에 소환되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딸의 잔치를 무조건 하고 가야 한다면서 닭을 잡는다, 쌀을 담근다 한바탕 분주탕을 피웠다. 그러나 현지에 나가 연구사업을 하는 최창로한테서는 《바빠서 못 감.》이라는 전보장만 날아들었다.

이번에 이사짐을 싣고 떠나기전에도 혹시나 하여 혜옥이가 알게모르게 이것저것 준비했던 어머니는 창로가 끝내 나타나지 않자 온밤 꾸념을 늘어놓았다.

《창로 그 사람이 탄마음을 먹은게 분명하다. 아무리 일이 바쁘기로서니 이렇게 얼썬 안할수 있나. 잔치는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인륜대사인

데 어찌면 에미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준단 말이냐.》

한두번만 들은 말이 아니었다. 약혼한 뒤부터 명절이나 생일이면 의례히 쏟아져나오는 어머니의 탄식이였다. 나이찬 딸을 둔 어머니들의 마음이란 빨래줄에 얹은 새처럼 늘 불안한것이다.

하물며 오늘은 빈집에 딸 하나만 덩그랴게 남겨놓고 떠났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번거롭겠는가.

창로와 헤어진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사이 병원에 올적마다 몇번 들러보긴 하였으나 아버지, 어머니가 평양으로 이사가는 요즘에는 통소식이 없었다. 정말 그의 마음이 변했을가, 바위같이 든든하고 땅크처럼 완강하던 그 사람이...

혜옥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옥계천다리에서부터 세번째 의자였다. 사연깊은 의자를 한동안 바라보던 혜옥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한끝에 걸터앉았다. 이 의자에서 창로와 가슴아프게 헤어지던 일이 어제일처럼 눈에 선했다.

3년전 이맘때 병원에서는 개원날을 기념하여 우수한 논문들을 공개심의에 제출하기로 하였었다.

그런데 5년간 그토록 피타는 노력을 경주해온 창로가 논문발표를 취소하는 바람에 병원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수술적인 방법은 이미 낡았다는것이다.

예상밖의 일이었다. 창로가 이렇게 나을줄은 혜옥이도 미처 몰랐다.

림상의사로서 치료사업을 하는 짬에 한방울두방울 떨어지는 물방울로 바위를 뚫듯 과학탐구의 어려운 길을 걸어온 창로였다. 그가 지금까지 수술장에서 있는 시간은 얼마며 환자의 몸에서 꺼낸 신석은 또 얼마인가. 수술한 환자들의 관찰을 위해 군으로, 리로 신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자료례증을 하지 않았는가.

하기에 창로는 늘 시간이 모자랐다.

약혼후에도 그는 극장보다 도서관에 더 자주 갔고 일요일 저녁에도 언제 한번 한가하게 유보도를 거닐어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혜옥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창로의 성공이자 자기의 성공이고 그것은 멀지 않아 있게 될 자기들의 결혼을 값있게 해줄것이기때문이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드디어 논문은 과학평의회에서 학사논문으로 인정되어 공개심의회에 제출하게 된것이다.

혜옥이 이날을 얼마나 고대했던가.

창로를 책임자로 하는 이 연구조에는 영록이와 함께 혜옥이도 포함되어있었다.

혜옥이가 수술장에서 수년간 탐구해오던 새로운 마취방법은 창로의 수술에서 예상외의 은을냈다. 대학졸업후 무엇인가 큰일을 한가지라도 해놓고 결혼하리라던 처녀시절의 리상이 비로소 실현되게 되었던것이다.

그러나 성공이란 여름날의 무지개처럼 야속하였다. 결승테프를 끊어야 할 마지막계선에 와서 창로가 물려서자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대들보가 무너지면 서까래도 부러지기마련이다.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돌변할수 있는가. 수술을 버릴것 같으면 남들이 도입하겠다고던 자기의 자료는 어째서 기를 쓰고 잡아당기었는가.

연기가 짙 들어찬듯 답답한 가슴을 안고 모대기던 혜옥은 퇴근시간이 되자 창로와 함께 거리에 나섰다.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불만을 그대로 목새길수 없었던것이다.

창로는 옥계천기슭에 이르도록 말이 없었다. 방금전에 영록이와 다툰것이 잘 내려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영록은 성공단계에 이른 지금에 와서 연구방향을 돌리겠다는것은 어리석은것이라고 신랄하게 공격하였다. 그러나 창로가 수술 아닌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통에 두사람은 성이 나서 헤어졌다.

영록은 창로와 중학동창이고 혜옥이와는 대학동창이었다. 군대에 나갔던 창로가 영록이보다 늦게 병원에 배치되었으나 혜옥이 아버지 허선학에게서 수술수기를 익히며 세사람은 남다른 우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구방법상문제로 우정에까지 금이 간것이다.

혜옥은 하고싶은 말이 가을날의 락엽처럼 가슴 가득 쌓였으나 선뜻 입을 열수 없었다. 창로가 자기보다 더 괴로우리라 생각되었던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거닐수만은 없었다.

《창로동무, 무슨 생각을 하는거예요?》

저만큼 혼자 걸어가던 창로는 그제야 혜옥이가 뒤떨어진것을 알고 걸음을 멈추었다.

《넌말이 몇달 안 남았어요. 이제 와서 연구방향을 돌리겠다니 어쩌자는거예요?》

나직이 부르짖는 혜옥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갈리었다. 창로는 내물에 시선을 박은채 대답이 없었다.

(무슨 사람이 저렇게 고집스러울가. 약혼전에도 그랬던가?)

혜옥은 눈물과 함께 은근히 약이 올라 떡판같은 창로의 잔등을 야속하게 바라보았다. 땅크처럼 완강한 그의 기질을 것처럼 사랑해온 혜옥이었으나 이 순간에는 밍살스럽게 그지없었다.

《어쩌면 일이 이렇게 될수 있어요? 모든것을 총화해야 할 이해가 아니예요.》

혜옥의 속대사를 가늠한듯 창로는 긴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더니 혜옥이더러 곁에 와 앉으라는 것이다.

혜옥은 솟구치는 눈물을 누르느라 한참후에야 그의 곁으로 다가가 한옆으로 돌아앉았다.

두사람은 제각기 생각에 잠겨 잔고기들이 헤엄치는 내물을 들여다보았다. 며칠전만 하여도 저 잔고기들이 혜옥이에게 얼마나 크나큰 기쁨과 랑만을 안겨주었던가. 이 의자에서 창로가 첫사랑을 고백했던것이다.

그날은 창로의 생일이였다.

혜옥은 그가 좋아하는 수산물 몇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한 뒤부터 지금까지 합숙생활을 하는 그에게 즐거운 한때를 마련해주고싶어서였다.

《명태예요. 랑동했던건데 맛이 어떻겠는지 모르겠어요.》

혜옥은 조개회와 까나리볶음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들을 차려놓고 마지막으로 남비를 꺼내놓았다.

맥주 한고뿌를 마시고 뜨거운 남비뚜껑을 연 창로는 고개를 기웃거리었다.

《이건 대구가 아니요?》

《대구요?》

《대구와 명태는 비슷하게 생겨서 석갈리기 쉽소.》

혜옥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남비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무엇이 다른지 알수 없었다.

대구 한토막을 집어 맛있게 씹던 창로는 갑자기 큰소리로 웃기 시작하였다.

《아이참, 왜 그래요?》

혜옥은 영문을 알수 없어 의아한 눈길로 마주 보았다.

《혜옥동무, 대구입이 왜 이렇게 큰지 아오?》

《원래 그렇게 생겼겠지요 뭐.》

《내 말을 들어보오. 옛날옛적 호랑이가 담배를 피울 때 말이요. 대구가 어찌나 못생겼던지 늦도록 장가를 못가 물고기들이 모여앉아 의논을 했다오, 누구와 짝을 무어줄 것인가 하고 말이요. 모두 가재미처녀가 적임자리고 하자 대구한테 물었다오.

<대구야, 너 가재미한테 장가들겠니?>

그러자 대구가 너무 좋아 헤- 하고 웃는 바람에 입이 그만 귀밑까지 쭉 찢히고말았다오.》

창로가 찢진 대구입을 흉내내어 혜옥은 입을 찢쥐고 웃었다.

《다음은 가재미처녀를 불러들여 물었다오.

<가재미야, 너 대구한테 시집가겠니?> 그러자 가재미는 대바람에 <난 싫어.> 하며 썰쭉하는통에 그만 두눈이 한쪽으로 물렸다는만, 난처하게 두...》

창로가 일부러 난처한 표정을 짓는 바람에 혜옥은 웃다 못해 의자맡에 주저앉고말았다.

《혜옥동무, 그만 웃소. 그러다 혜옥동무 눈이 가재미처럼 될가봐 걱정이요.》

《뭐라구요?》

창로의 말뜻을 음미해본 혜옥은 활짝 붉어지는 얼굴을 두손으로 가리우고 돌아앉았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사이에는 남다른 정이 오고갔다. 그것이 창로부터인지 아니면 자기부터인지 알수 없으나 마음속에만 고이 간직되어있었을뿐 이렇게 로골적으로 표현되기는 처음이었다.

《혜옥동무, 나를 대구신세 만들진 않겠지?》

혜옥을 의자에 끌어올린 창로는 심중한 어조로 물었다.

《아이, 엉클해. 다 알면서두...》

혜옥은 바위같이 든든한 창로의 어깨를 작은 주먹으로 두드리었다.

《난 혜옥동무를 사랑하오. 동무도 나를 사랑하지?》

창로의 눈동자가 혜옥의 마음속을 꿰뚫을듯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혜옥은 어린애처럼 고개를 끄덕이었다. 놓으면 새처럼 훌 날아갈가봐 걱정스러운듯 혜옥의 두손을 꼭 그러쥔 창로는 귀가에 대고 속삭이었다.

《혜옥동무, 영원히 변치 않는 옥이 되어주오.》

그때부터 창로는 혜옥이를 옥이라 불렀다. 옥이 둘사이에만 통하는 사랑의 대명사를 부르며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약혼시절이 시작되었다. 이번 연구과제만 결속되면 결혼하리라는 것을 온 병원이 다 알고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술을 버리다니, 아무리 연구사업이 중하다 해도 그의 기본직무는 림상치료의사가 아닌가. 이 병원에 그의 수술재능을 따를 사람이 누구인가. 재치있고 맵시나게 수술하면서도 수술창을 꼭게 아물리는 그의 솜씨를 두고 누구나 전도유

망한 명의라고 일러주었다. 기술부원장인 아버지도 창로의 남다른 수술재능과 완강한 탐구심을 귀중히 여겨 자기 제자로, 하나밖에 없는 귀동녀의 배필로 정한것이다.

약혼식날 아버지는 자기 후비가 생겼다고 얼마나 대견해했던가. 한생 입에 대지 않던 술까지 한잔 마시고 스승을 통가하는 제자가 되라고 고무해주지 않았던가, 창로자신도 아들이 없는 장인을 섭섭치 않게 하겠다고 장담했었다. 그런데...

혜옥은 무릎우에 올려놓은 가방을 품에 꼭 그려안으며 애원하였다.

《창로동무, 신석치료에서 수술은 아직도 자기 사명이 있는데 왜 연구방향을 돌리겠다는거예요?》

《다른 치료와 마찬가지로 신석치료도 수술이 만능은 아니요. 콩팔을 한번 수술하면 변형이 오는데 잔사들이 자라나 발작하면 어찌겠소. 더우기 한쪽 콩팔을 떼낸 경우 다른쪽에 신석이 생기면 생명이 문제라는것을 옥이도 잘 알지 않소.》

《그렇다고 모든 신석환자에게 다 잔사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신석이 모두 발작을 일으키는것도 아니지 않아요. 여태 창로동무가 수술한 환자들은 재발한례도 없었는데...》

혜옥은 말끝을 여물구지 못하였다. 창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 그의 우점을 본인앞에서 추어올리는 자신을 느끼자 저절로 얼굴이 붉어졌던것이 다.

《어떻게 장담하겠소. 인체내에는 초음파진단기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잔사들이 있지 않소.》

《과학연구사업이 하루아침 담장쌓듯 되겠어요? 다른 방법이 아직도 신통치 않은 이상 유능한 수술이 신석치료에 얼마나 필요해요.》

《옥이는 림상의사들에게도 연구과제를 왜 맡긴다고 생각하오? 누구든지 보다 리상적인 신석치료방법을 탐구하면 우리 나라 의학과학수준이 그만큼 올라설게 아니요.》

창로의 확신성있는 말에 혜옥은 의아해졌다.

《그럼 무슨 새로운 안이라도 있는가요?》

《국제과학상식을 보니 유럽에서 초단파를 리용하여 신석을 치료한다고 하오. 평양에 한번 가보아겠소.》

혜옥이도 초단파로 신석치료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것이 곤난하고 부족한 때에 고심분투하여 연구한것은 철회버리고 생소한 일에 손을 댈 필요가 무엇인가.

혜옥은 긴 속눈썹을 곤두세웠다.

《그것은 공학분야가 아닌가요.》

《환자치료에 필요하다면 공학이라도 뚫고 들어가야지. 신석을 닦은 콩알 깨듯 할수 있다면 얼마나 리상적이겠소.》

혜옥은 아연하여 입을 딱 벌리었다. 창로가 이렇게 허황한 공상에 사로잡혀 성공단계에 이른 연구사업을 버렸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창로동무, 물론 신석을 약 한알을 먹여 녹이거나 약물 한고뿌를 마셔 씻어낼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욕망만 가지고 안되는게 과학이 아니에요. 동지적의리로 봐도 어떻게 그럴수 있어요?》

《옥이, 무슨 소리를 하오?》

《영록동무 립장을 생각해보세요. 론문이 동무 혼자것이 아니지 않아요.》

혜옥은 차마 자기 이름까지는 부르지 못하였다.

창로는 영록이와 론쟁할 때의 흥분이 되살아난 듯 벌떡 어성을 높이었다.

《그 자료를 영록이 다 가져도 난 아까울게 없소.

그 론문에는 진보와 인간애가 없단말이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록은 의료일군의 량심을 저버린 사람이요. 혹시 혜옥동무도 같은 심정이 아니요?》

혜옥은 얼굴이 해쓱하게 질려였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창로의 성격이었다. 치료사업에서나 우정에서나 것처럼 성실하던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는가. 오늘 영록이가 추궁한것처럼 성공에 도취하여 교만해진것인가.

혜옥은 자기가 것처럼 사랑한 창로의 류달리까만 두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토론할 때처럼 또박또박 쏘아붙였다.

《창로동무 옳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세우기 위해 동무를 모욕할수 있어요?》

실망어린 눈길로 혜옥을 한동안 바라보던 창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섭섭한 일이요.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리라 믿었던 옥이까지 그렇게 나오니 섭섭하단 말이요.》

《저는 의료일군이 당치 않게 공학을 더듬어보겠다는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인류력사에는 수술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고 명예를 떨친 실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칼로든 침으로든 병을 고치는게 의사의 본분이 아니겠어요.》

창로의 굵은 눈썹이 경련하듯 꿈틀하였다.

《나는 혜옥동무의 입에서 그런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데 놀랍소. 하루에도 몇번씩 수술에 참가하는 동무 마음이 어찌면 그렇게도 랭랭하오?》

창로의 음성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혜옥은 양보할수 없었다. 오늘 창로를 설복하지 못하면 다시 돌려세울 기회가 없음을 절감한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실망을 금할수 없어요. 창로동무의 기권이자 저의 실패가 아닌가요. 제발 부탁인데 한번 더 생각해보고 결심해주세요. 이제는 모든것이 동무 혼자가 아니지 않아요.》

창로는 혜옥이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자꾸 설복하지 마오. 동무가 다름아닌 옥이기에 자그마한 반대에도 나는 쉽게 동요될 우려가 있소. 앞으로는 명심하오, 옥에는 자그마한 티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획 돌아선 창로는 노을이 불타는 쪽으로 성큼 성큼 사라졌다. 혜옥의 눈에서는 구슬같은 눈물이 굴러떨어졌다.

며칠후 창로는 김책공업종합대학과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을 거쳐 뱀골약수리로 떠났다. 구렁이들이 살고있는 바위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어서 약효가 있다는 옛전설이 깃든 그곳 료양소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우리 나라 굴지의 기계공장이 있었다.

창로는 병원에 와서 해당한 절차를 밟아 특별 승인을 받은 뒤 필요한 의약품들과 기재들을 싣고 떠났으나 혜옥이한테는 들리지조차 않았다.

혜옥의 마음은 잎떨어진 나무처럼 외롭고 쓸쓸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창로가 다 걷어안고 가버린듯 온종일 웃을 일도 즐거움도 없었다. 명절이면 혜옥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다. 나이 서른이 넘도록 합숙생활을 하는 그에게 무엇인가 위해주고 보살펴주고싶은 녀성적인 부드러운 감정이 조용히 머리를 들며 말 못할 애수가 밀물처럼 가슴을 짝 채웠다.

이것이 사랑인가. 이 세상 모든 녀인들이 다 이런 번민을 거쳐 사랑이라는 열매를 따는것인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명절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혜옥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자기 론문만 안타까이 뒤적이었다. 이러기를 3년, 그러니 어머니의 애간장이 얼마나 탔겠는가.

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느때없이 의자가 차갑게 느껴졌다. 의자주위를 서성거리며 혜옥은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이제는 어찌면 종단 말인가. 사랑도 명예도 창로가 없이는 실현될 길이 없지 않는가.

고민속에 모태기던 혜옥은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 귀가 번쩍 트이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대신 창로가 기술부원장으로 지목되었다는것이다.

혜옥은 크나큰 기쁨에 휩싸여 집안밖을 털어내고 음식감들을 준비해놓았다. 이런 일이 생기려고 3년간 그토록 번민했던가. 이제는 자기의 고독도 사라지고 창로의 합숙생활도 끝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환성이라도 지르고싶었다. 때마침 의학잡지출판사에서 내려온 기자가 창로의 론문을 보더니 가치있는것을 왜 물어두는가 하고 하면서 당장 편집하겠으니 인차 올려보내라고 하였다.

혜옥의 마음은 날것만 같았다. 론문이 출판되면 전국적인 판도에서 학사학위 가치가 있다는 인정을 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혜옥이에게 비졌던 한줄기 희망의 빛은 며칠 못 가 가뭇없이 사라졌다.

현지에 나갔던 일군의 말에 의하면 창로가 기술부원장직무를 사양할뿐아니라 각종 치료실들을 꾸려놓고 아주 살 차비를 하더라는것이였다.

혜옥은 까무라칠듯 놀랐다. 금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창로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혜옥의 머리에 다시금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창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게 분명하다.》

혜옥은 실망에 빠지고말았다.

이미 학사학위를 받았던 영록이가 기술부원장 사업을 인계받자 혜옥은 창로를 찾아가보리라 마음먹었다. 아무쪼록 그의 일은 자기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었다. 창로를 돌려세우는 길만이 자기의 리상도 행복도 쟁취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다.

휴가신청서를 낸 혜옥은 필요한 짐을 꾸리고 전보를 쳤다. 옥이가 간다고...

2

렬차는 점심전에 산간역에 도착하였다.

자그마한 역이지만 유명한 약수가 있어서인지 내리는 손님이 많았다.

무거운 러행가방을 들고 역밖을 나선 혜옥은 주위를 살펴보았다.

서로 찾고 붙비는 사람들속에서 그리운 모습을 찾던 혜옥은 락심하고말았다. 창로가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혜옥은 김빠진 공처럼 맥이 탁 풀렸다. 량손에는 가방이 갑자기 몇배로 무겁게 느껴지며 한걸음을 옮겨놓기가 힘들었다.

혜옥의 머리에 또다시 옥계천기슭에서 가슴아프게 헤여지던 일이 떠올랐다. 창로는 그때 이미 옥이를 가슴속에서 지워버린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때문에 이 먼길을 찾아온단 말인가.

렬차는 멍정히 서있는 혜옥이에게 되돌아서라는데듯 여운을 길게 남기며 떠나갔다.

혜옥은 분명히 땅에 내려놓았던 가방을 집어들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돌아설수는 없었다.

《료양소에 오시는 손님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문득 앞에서 쾅쾅한 목소리가 울리었다. 역 앞 마당에 자그마한 뺨스 한대가 서있었다.

《료양 오세요?》

혜옥이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가가자 방금 소리친 처녀가 냉큼 받아주었다. 익은 고추처럼 빨간 편직옷에 리본 달린 모자를 맵시나게 쓴 애어린 처녀였다.

《아니, 전...》

《혹시 도병원에서 오시지 않나요? 제가 전보를 받았어요.》

처녀는 생긋 웃으며 반기었다.

《그런가요.》

처녀의 친절에 괴롭게 뒤채기던 혜옥의 마음은 한결 진정되었다.

《전, 송이예요, 한송이. 창로선생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어서 오르세요.》

료양생들을 태운 뺨스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숲속길로 경쾌하게 달리었다.

뺨스가 풍치수려한 료양소구내에 몇자 먼저 뛰어내린 처녀는 혜옥을 분수옆의 아담한 방으로 안내하였다.

혜옥은 서먹한 방에 짐을 풀어놓았다. 기계공장에 무엇을 고치러 갔다는 창로는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혜옥은 우두커니 앉아 기다릴수 없어 창로가 꾸린 치료실들을 돌아보았다. 현지에 나왔던 일군의 말이 옳았다. 료양소 본채에서 조금 떨어진 자그마한 단층건물에는 치료실, 실험실, 기계실 지어 동물사까지 있었다. 무엇보다 뜻밖인것은 창도가 수술실까지 꾸려놓은것이였다.

송이의 말이 치료를 하면서 공업대학생들과 기계공장기사들의 방조를 받아 체외충격신석과쇄기를 만든다는것이였다.

다음날 혜옥은 위생복을 갈아입고 치료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수술에 필요한 모든 준비까지 끝낸 혜옥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서야 창문가에 앉았다.

책을 퍼들던 혜옥은 혼자서도 얼굴이 붉어졌다. 렬차에 올라떨췌던 폐지가 그대로 접혀있었던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부터 왜서인지 책에 손이 잘 가지 않았다. 더우기 약혼후에는 옷장이요, 랑동기요 하는데 더 마음 쓰게 됨을 어쩔수 없었다.

혜옥은 자기도 못처녀들같이 이런 세태생활에 곧 잘 빠지군 하는것이 민망스러웠으나 결혼을 앞둔 그로서는 어쩔수 없는 유혹이였다. 그때문에 언제인가는 창로한테서 톡톡히 말을 들었다. 대학졸업증은 지참품이 아니며 재능은 그림속의 미인의 얼굴처럼 영원한것이 아니라고, ... 그리고는 매일 아침 길목을 지켜섰다가 같이 출근하며 외국어단어를 외우게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행복하였다.

《아이참, 어찌면 좋아요?》

문이 벌럭 열리며 송이가 탁구알처럼 튀어드는 바람에 혜옥은 소스라쳐 일어났다.

《왜 그래요?》

《토끼들이 다 죽었어요.》

《뭐라구요?》

혜옥은 급히 동물사로 달려갔다. 송이가 죽은 토끼 한마리를 꺼내놓았다. 다른 우리를 살펴본 혜옥은 의아해졌다.

《웬 일인가요, 이 우리에서만 죽었으니...》

죽은 토끼를 쓰다듬던 송이는 눈물이 글썽해졌다.

《며칠전에 창로선생님이 새로 만든 기계로 실험한것들이예요.》

《그때요?》

혜옥은 급히 수술칼을 가지고와 토끼배를 가르기 시작하였다. 송이가 옆에 쪼그리고앉아 근심스럽게 중얼거리었다.

《창로선생님이 오시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새 기계를 만드느라 밤낮 공장에서 살며 씨름했

는데... 오죽하면 우리 소장동지가 저를 조수로 붙여주었겠어요. 벌써 스물일곱번째 실패예요.»

《그래서 과학탐구가 힘들다는것이지요. 보세요. 콩팔과 그 주변 근육들이 모두 상하지 않았어요.》

《아이참, 속상해. 돌이 깨지면 콩팔이 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이 깨지지 않고... 토끼내장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인체는 더하지요. 몸안에 생긴 돌은 깨면서 장기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것이 쉽겠어요.》

송이는 제가 더 속상한듯 늙은이처럼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이게 누구요?》

귀에 익은 목소리에 혜옥은 깜짝 놀라 머리를 들었다. 문가에 창로가 서있었다. 것처럼 그림그리고 속을 태우던 창로를 보는 순간 혜옥은 눈물이 핑고여올라 아무 말도 못하였다. 눈에 익은 위생복 대신 작업복을 걸친 창로는 얼굴이 해월에 타고 거칠어져 펍 나이들어보이였다.

그들을 바라보던 송이는 방그레 웃으며 살그머니 나가버렸다.

《언제 왔소?》

《...어제 왔어요.》

《마중나가지 못해 안됐소.》

혜옥을 이윽도록 바라보던 창로는 죽은 토끼 한마리를 집어들었다. 그는 혜옥의 손에서 수술칼을 받아들고 차례로 해부하기 시작하였다. 토끼의 콩팔들은 하나같이 파손되어있었다. 창로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서는 창로가 다시 수리해온 파쇄기를 부리느라 벽적 뚫었다. 환자들은 자기들의 고통을 덜어줄 기계라고 생각해서인지 성수가 나서 영차영차 손발을 맞추었다.

파쇄기를 다 부릴 때까지 창로는 말이 없었다. 혜옥은 하고싶은 말이 가슴가득 고여올랐으나 오늘은 상처입은 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릴가보아 조용히 돌아섰다.

《혜옥동무.》

혜옥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졌다. 옥이가 아니라 혜옥이라는 부름에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들었던것이다.

《여기는 어떻게 왔소?》

《휴가를 받고 왔어요.》

《그래-》

한동안 말이 없던 창로는 펍 가라앉은 소리로 물었다.

《부모님들은 떠나갔소?》

《예.》

혜옥은 혀를 깨물었다. 어머니가 떠날 때의 감정이 되살아날것 같아서였다.

《여러모로 미안하게 됐소.》

《...》

혜옥이가 대답이 없자 깊은 한숨을 내쉬 창로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마루에 눈길을 보냈다.

《한가지 부탁을 할가. 래일 수술을 좀 도와주세요.》

《수술이라니요?》

혜옥의 놀란 눈길에 창로는 허거프게 웃었다.

《왜? 수술을 안한다고 떠난 사람이 무슨 수술이나 하는거요? 어찌됐소. 파쇄기가 아직 이 모양이니... 여기 료양소에 신석발작환자가 두명 있는데 마취의사가 없어 후송할가 했댔소. 마침 혜옥동무가 왔으니 여기서 하고말자는거요.》

혜옥의 가슴은 한증탕에라도 들어선들 답답하였다. 과학탐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옳은 연구방법론을 세우는것이다. 그런데 창로가 해를 몇번이나 넘기면서도 아직 방향하고있다는것을 느낀 혜옥은 울고싶도록 안타까웠다. 하지만 혜옥은 애써 감정을 눌러버렸다. 늦게나마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 수술칼을 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혹시 이것으로 우리들의 마찰이 풀릴수도 있지 않는가.

《수술실은 제가 정리해놓았어요.》

혜옥의 말에 창로는 빙그레 웃었다. 그바람에 한쪽뎃이가 유정하게 드러났다.

《혜옥동문 나보다 수술에 더 매력을 느끼는게 아니요?》

《사람을 모욕하지 마세요.》

혜옥은 새침하여 돌아섰다.

그 순간 창로는 혜옥의 두어깨를 와락 잡아당겨 자기앞으로 돌려세웠다.

《옥이, 아직도 성이 났소?》

급소를 찔렀을 때처럼 흠칫 놀란 혜옥은 창로의 얼굴을 긴장해서 바라보았다. 거칠어진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창로의 눈이 진심을 말해보라는듯 자기 표정을 유심히 살피고있었다. 그 눈길에서 창로가 자기 못지 않게 번민하고 고심하였음을, 그리고 옥이를 잊지 않고있었음을 느낀 순간 혜옥은 가슴이 뭉클하여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끓는 가마에서처럼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사이로 끝없이 흘러내리었다.

《이러지 마오. 정말 안됐소.》

창로는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 서성거리기만 하였다. 어느덧 료양소구내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3

혜옥은 내가로 나갔다. 떠나기 전에 창로의 어지러워진 옷가지들을 빨아주고싶어서였다.

어느새 산마루에는 단풍이 붉게 타고 그 장엄한 빛은 산아래로 쏟아져내리는듯 강기슭에도 점점이 붉은빛을 뿌리었다. 저 멀리 별관에서는 버가울이 한창이고 내가의 들국화도 제철을 만난듯 한껏 만발하였다. 만물이 결실을 서두르는 계절이었다.

옥색주단위에 수놓은 꽃송이처럼 파란 물우로 떠내려오는 빨강고 노란 락엽들을 손으로 휘저으며 혜옥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의 힘처럼 강한것은 없다고 한다. 더우기 첫사랑의 감정은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하게 강렬하다는것이다.

그러나 창로를 설복할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것을 혜옥은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제 혜옥은 군 종축장에 실험용토끼를 구하려 갔었다. 창로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박하였기때문이었다.

오래동안 칼을 놓았던 창로의 수술솜씨가 말이 아니었다. 병원에서처럼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수술칼을 잡았으나 그동안 손이 굳어져서인지 괜히 안간힘만 쓰며 진땀을 흘리는것이였다. 신석을 잡은 순간에조차 재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창로의 손을 혜옥은 아연해서 바라보았다. 것처럼 정확하고 맵시있게 수술하면서 창상을 끝까지 아물리기로 소문났던 외과의사의 재능에 녹이 쓸었다는것을 느낀 순간 혜옥은 이름난 가수가 성대를 바렸을 때처럼 가슴아픈 상실감을 느끼였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30리길을 걸어가 토끼를 구해 실어보낸 다음 기계공장에 들리였다.

혜옥은 용해장에 서있는 창로를 인차 알아보지 못하였다. 영화에서나 보던 용해공장작업을 걸친 창로의 얼굴에 땀과 검댕이가 얼룩져있었던것이다.

끓는 쇠물을 정신없이 들여다보던 창로는 뜻밖에 나타난 혜옥이에게 실패원인을 찾았다고 신이 나서 설명하였다. 말조차 귀에 설은 무슨 초단파 집초장치라는것을 검사해보니 미세한 기포가 있더라는것이다.지금 다시 용해하는데 주물을 하여 프레스로 압착한 다음 기포검사를 해보고 가공해야 한다는 창로의 긴 설명에 혜옥은 한숨밖에 나오는것이 없었다. 그런 실패가 앞으로 얼마나 반복되어야 하겠는가. 그러느라 손은 아주 바리고말것이다. 단순한 기술인 무전도 손목이 굳어지면 치기 힘들다. 악사를 역시 마찬가지로일것이다. 하물며 인체를 칼로 다스리는 외과의사의 손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혜옥은 장소가 허락치 않았으나 토끼를 구해본 이야기 끝에 손을 아껴야겠다는 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창로는 옥계천기슭에서처럼 서운한 눈길로 바라볼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혜옥이가 같이 갔으면 하는 의향을 표시하자 먼저 가라고 통명스럽게 한마디 하고는 돌아서서 쇠물만 들여다보았다. 예전과 다른 창로의 성격이 느껴져 혜옥은 말 못할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다.

무엇때문일까? 왜 그럴까...

그 의문은 빨래를 하는 지금도 혜옥의 마음을 괴롭히였다.

《빨래가 떠내려가누만.》

창로의 목소리에 혜옥은 번거로운 생각에서 깨여났다. 빨래돌앞에 송사리떼가 오구구 물려와 바글거리는데 그아래로 창로의 샹쯔가 떠내려가고있었다.

혜옥은 창로가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볼것 같아 얼른 물속에 들어서서 빨래를 건지였다.

창로는 피곤이 실린 얼굴을 찡그리며 닭알껍질처럼 하얀 바위우에 걸터앉았다. 어디서 굶餓는지 손가락을 동여맨 어지러운 봉대우로 꺼먼 피가 내배였다.

(어째서 나를 보면 얼굴을 찡그릴까.)

혜옥은 것처럼 정답고 소중하던 창로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는 먼 하늘가에 시선을 준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양을 바라보느라니 혜옥은 다시금 가슴이 쓰리였다. 몸은 가까이 있으나 정은 점점 더 멀어지는것 같았다.

《혜옥동무, 언제 떠나겠소?》

혜옥은 한동안 머뭇거리였다. 어떤 의미에서 묻는지 가슴이 가지 않았던것이다.

《매일 아침차로 가겠어요.》

《태일?》

창로가 놀라서 반문하는것이 이상하여 혜옥은 눈길을 들었다. 창로의 시선은 여전히 먼 하늘가에 가있었다.

《제가 온지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그렇던가.》

두사람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래일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나랴싶어 혜옥은 조심히 물었다.

《창로동무, 우리의 생활은 언제까지 이렇게 평행선으로 흘러야 해요?》

창로는 락엽이 떠내려가는 내물에 시선을 옮길뿐 대답이 없었다.

《전 정말 약혼시절이 이렇게 피로울줄은 몰랐어요.》

《나도 미처 몰랐소. 약혼시절이 앞으로 이루어 될 가정생활의 기초라고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힘들게 다지는셈이요. 힘들게 다진 기초가 더 든든하지 않을까?》

혜옥은 창로의 별에 탄 얼굴을 간절히 바라보았다.

《이러지 않아도 창로동무 얼마든지 성공할수 있지 않아요. 신식파쇄기야 필요하면 외국에서 수입해오든가 나라에서 만들어줄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가말이에요.》

《수입이라니?》

창로는 놀라운듯 혜옥이쪽으로 얼굴을 돌리였다.

《조국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소. 그런데 자체로 만들수 있는것을 왜 수입한단 말이요. 애국자가 따로 있소? 누구나 공민된 자각을 안고 자기 초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헌신적으로 풀어나갈 때 나라에도움을 줄게 아니요.》

《창로동무의 초소는 공학이 아니라 의학이지요. 설비같은거야 웅당 공학자들의 몫이 아닌가요.》

《혜옥동무 인민군군인들의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말야하겠다는 구호를 자기 생활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오? 신식파쇄기는 엄연히 우리가 써야 할 의료설비요. 의학과 공학이 합심해야 성공할수 있단 말이요. 지금 기계공장의 유능한 박사, 기사들도 이 설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낮에 밤을 이어 간고분투하고있소. 신석과쇄기는 최첨단기술의 종합체나 같소. 그래서 이 설비를 놓고 신석치료에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하는거요.》

《나는 창로동무가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야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출판사에서 요구하는 논문발표는 왜 거절하는거예요?》

《그 논문발표를 나는 이미 기권했소.》

창로의 무뚝뚝한 대답에 혜옥은 목이 꺾 막혀 더 말을 못하였다. 결국 혜옥이에게 한가닥의 기쁨으로 될 자그마한것까지 다 부정하는것이 아닌가.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한 혜옥은 온화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영록동무를 보세요. 벌써 학사론문을 발표하고 지금은 기술부원장으로 사업하고있어요. 실적으로 따지면 누가 앞섰다고 할수 있어요?》

혜옥은 아버지 말까지 꺼내고싶었으나 너무 야박스러운것 같아 혀를 깨물었다.

창로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혜옥동무, 우리는 무엇인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소. 그러니 생활이 평탄할 때에는 몰랐으나 난관이 제기되자 서로 다투고 변민하게 되는거요. 나는 약혼시절에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련인들사이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사랑이겠는가. 혜옥동무 생각은 어떨소?》

《누가 할 말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혜옥은 돌아앉아 팔레를 주무르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이해하지 못하는건 바로 동무예요. 나처럼 동무일이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옥이의 마음조차 이해 못하는 동무가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창로선생님, 공장에서 전화예요.》

내물 건너편에서 송이가 손을 흔들며 소리치는 바람에 둘사이의 언쟁은 동강이 났다.

창로는 바위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걸어갔다. 옥계천기슭에서처럼...

혜옥은 손맥이 풀려 내물에 비긴 자기의 모습을 얼없이 들여다보다가 호실로 돌아와 러행가방을 챙기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더 있어야 언쟁밖에 할것이 없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빨리 돌아가 물어두었던 자기 논문이나 성사시키려는편이 나을것이다. 동창생들모두가 그리고 애인까지도 학위학직을 받으면 창로도 어느때인가는 후회하며 돌아서게 될것이다. 명예란 곧 허영이 아니지 않는가.

증명서주머니를 뒤적이던 혜옥은 문득 손이 굳어졌다. 언제나 간수해가지고 다니는 약혼사진이었다. 행복하게 웃는 자기옆에 별스레 심중한 표정인 창로가 한곳을 응시하고있었다.

(내가 이 사람의 무엇에 반했을까. 이 류별나게 검은 눈동자인가. 아니면 땅크처럼 완강한 기질인가. 왜 미우면서도 잊을수 없을가.)

혜옥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술실을 비롯하여 치료실들을 다시한번 정리해놓은 혜옥은 저녁식사후 동물사로 갔다. 백쥐들에게 밀알을 뿌려주고 토끼우리앞으로 다가가던 혜옥은 기가 막혀 들고있던 사료바구니를 떨어뜨리었다. 어제 실험한 토끼들이 모두 자빠져 네다리로 바닥을 안타까이 허비고있었다. 또 실패라는 절망에 혜옥은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것이 벌써 몇번째인가. 이런 때를 두고 호미난방이라 하지 않는가. 아니, 차라리 범의 꼬리라도 쥐었다면 대견이라도 할것이다. 이견 쥐꼬리다. 그야말로 서미난방이다.)

벌떡 일어난 혜옥은 창로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무래도 떠나기 전에 말을 좀 해야 하였다. 진실한 충고는 가까운 사람만이 해줄수 있는것이 다.

인기척도 없이 문을 벌컥 연 혜옥은 그만 문턱에 얼어붙고말았다. 창로가 책상우에 술병을 꺼내놓고있었던것이다.

갑자기 들어선 혜옥을 놀란 눈길로 바라보던 창로는 장안에 술병들을 도로 넣고 쇠를 잠그었다.

《무슨 일이요?》

혜옥의 시선에서 심상치 않은것을 느낀 창로는 조심히 물었다.

혜옥은 선뜻 입을 열수가 없었다. 창로를 만난 첫날부터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던 말을 한꺼번에 터치려니 진정될 때까지 참아야 하였다.

혜옥은 침착하게 문턱을 넘어섰다.

《창로동무, 떠나기 전에 한마디 하고싶은 말이 있어요.》

창로는 뭘 그러느냐는듯 붉은 눈섭을 치켜올리며 천연스럽게 혜옥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혜옥은 알지 못하던 그의 리면을 들여다본것 같아 마음이 불쾌하였다.

《제 말이 주제넘는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창로동무를 여기에 남겨두고 혼자 떠날수 없어요. 래일 저와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창로는 의외인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무는 지금 자기 랑심을 속이고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일에 수많은 자재와 노력, 아까운 재능과 열정을 탕진하고있단 말이에요. 동무에게 누가 그런 권리를 주었어요?》

《왜 그러오? 무슨 일이 있었소?》

흥분으로 빨강게 상기된 혜옥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창로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럴수록 혜옥은 가슴이 더 끓어번져 되알지게 쏘아붙였다.

《헌지에 나와 해놓은게 뭐예요? 칼에 녹이 쓴것밖에 더 있어요?》

《혜옥동무. 갑자기 왜 그러오?》

《갑자기 아니예요. 여기에 온 첫날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창로는 가슴이 답답한듯 작업복 앞섶을 헤치며 창문을 활 열어제끼었다. 가을저녁의 찬바람이 두사람사이에 썩 불어들었다.

《혜옥동무, 정말 유감이요. 사람은 마음이 맞아야 손발도 맞는 법이요. 어쩌면 그렇게도 내 마음을 리해 못하오? 동무는 약혼시절을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절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실로 사회와 인간을 위한 값높은것으로 되지 못할때 이루어졌던 사랑도 깨어질수 있다는것은 왜 모르오?》

혜옥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었다.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난 혜옥동무가 여기에 휴가를 받고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소. 옥계천에서 금이가기 시작한 우리 문제가 한번 와보는것으로 풀릴줄 알았소?》

《나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건 아니겠지요?》

《물론이요. 나는 혜옥동무가 진심으로 나를 리해하고 스스로 따라와 헌신해주기 바랬소.》

《동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되면 저도 내려와 돕겠어요. 그러나 지금 동무는 헤어나지 못할 미궁에 빠져 허덕이고있어요. 그래서 술도 마시는거예요. ... 량심이 있어요?》

창로의 얼굴은 검은 눈동자처럼 컴컴하게 질리었다. 그는 마디마디 씹어뻐듯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흥분했소? 그런 나약한 신경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하오, 사랑도 마찬가지요. 나의 연구사업은 앞으로 열번, 스무번 실패할수 있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오.

혜옥동무, 우리가 서로 잘못 만나게 아니요? 험난한 탐구의 길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과여부를 알고싶어 왔다면 가시오, 영원히. 나에게는 그런 동무가 필요없소.》

《뭘라구요?》

혜옥의 얼굴은 위생복처럼 하얗게 질리었다. 딛고선 땅밑이 허공인듯 온몸이 천길나락으로 떨어져내리는것 같았다.

너무도 억이 막혀 넘실은 사람처럼 한참이나 창로의 얼굴을 망연히 바라보던 혜옥은 얼음장같이 싸늘하게 식어드는 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방에서 뛰쳐나왔다.

4

역기다림칸은 텅 비어있었다. 렬차시간이 되려면 아직 여섯시간을 기다려야 하였다.

가을의 짧은 해가 지자 대지는 순식간에 식어버렸다.

한순간이라도 료양소에 있는것이 피로와 송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달려나온 혜옥은

습관적으로 무릎우에 책을 펴놓았으나 눈길은 의자밑에 놓인 렬행가방에 박힌채 움직일줄 몰랐다. 이처럼 울며 돌아갈 길을 무엇때문에 왔던 말인가. 성사도 되지 않을 문제를 놓고 꿈은 얼마나 많았고...

부부학사가 된 영록의 가정이 새삼스럽게 부러웠다. 결혼전에 그 소원이 이룩되리라고 믿었던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제는 모든것이 끝장이다. 사랑도 꿈도 희망도 콩크리트바닥에 떨어진 유리그릇신세가 되고말았다. 창로의 마음이 변했다던 어머니의 말이 틀린데 없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정답던 사람, 가까이 있어도 멀리에 가도 언제 한번 마음속에서 떠나본적이 없던 창로가 이제는 지나가는 못사람들과 같아졌다고 생각하니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혜옥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긴 목도리로 얼굴을 감싸고 앉아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누구인가 찾는 소리에 혜옥은 고개를 들었다. 어느사이 대합실에는 손님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있었다.

《언니-》

《혜옥언니-》

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송이가 기다림칸으로 들어오며 큰소리로 자기를 찾고있었다.

《송이, 나 여기 있어요.》

혜옥을 발견한 송이는 손님들을 밀치며 급히 다가왔다.

《언니, 빨리 가자요. 창로선생님이 발작했어요.》

송이는 혜옥의 팔을 와락 잡아끌었다,

《발작이라니?》

혜옥은 영문을 알수 없어 우두커니 서있었다.

《지금 수술준비를 하고있어요. 마취의사가 있어야 한대요.》

《뭘 수술?》

《빨리요. 빠스가 기다리고있어요.》

송이는 무작정 혜옥의 가방을 들고 앞서나갔다. 마당에는 낮익은 빠스가 발동을 끄지 않은채 서있었다. 두 처녀가 오르기 바쁘게 빠스는 왈칵 자리를 뜨더니 어둠을 헤가르며 쏜살같이 달리었다.

런속 경적을 울리며 질주하는 빠스안에서 혜옥은 송이의 손을 잡았다.

《송이, 갑자기 무슨 발작이에요?》

《신석이라요.》

《뭘, 신석?》

혜옥은 뜨거운 쇠덩이를 집었던듯 기겁하여 송이의 손을 놓았다.

《저녁식사때 환자들이 달려왔더군요. 제가 뛰여가보니 창로선생님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침대모서리를 붙들고...》

숫구치는 눈물을 삼키느라 말을 못하던 송이는 격렬하게 부르짖었다.

《언니 어쩌면 창로선생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나요. 신석을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쳐보겠다고 것처럼 애쓰던 선생님이 수술대우에 놓게 되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원망어린 송이의 말은 마디마디 혜옥의 가슴을 주사바늘로 찌르는듯 하였다.

빠스가 멎기 바쁘게 방에 뛰어들어 혜옥은 눈앞이 아득하였다. 창로가 죽은듯이 침대에 누워있었다. 조금전에 또 발작이 있었던듯 검실검실 탔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지고 대리석같이 단단한 넓은 이마에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되는 대로 형클어져있었다. 단추는 모조리 떨어져나가고 혜옥이가 약혼기념으로 준 손목시계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어 이발자극마다 피멍이 되고 가제천이 풀려나간 손가락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있었다.

혜옥은 조심히 그 손을 감싸쥐었다.

《언제부터 신석증이 왔을까? 그래서 자주 얼굴을 찡그리고 수술할 때 진땀을 흘리었구나.》

신석발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가를 잘 아는 혜옥은 심장이 경련을 일으키듯 후두두 떨리었다.

수술은 힘겹게 진행되었다.

혜옥은 오늘처럼 서툰 마취사가 되어보기는 처음이었다. 대못보다 더 큰 마취제주사바늘을 창로의 척추에 박는 그 순간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온몸에 진땀이 솟구쳤다. 집도자가 날카로운 수술칼로 한점한점 근육을 헤쳐나가는 시간이 끝없는 사막을 걸어가듯 안타깝게 느껴지고 한번 칼질할 때마다 동강난 모세혈관에서 흘러나오는 빨간 피가 창로의 생명을 야금야금 빨아내는것 같았다. 근육을 다 헤친 수술창우에 창로의 콩팥이 드러나자 혜옥은 말발굽에 채인듯 멍치끝이 저리여 옥문 이발사이로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잠시후 《팔랑》하는 소리와 함께 농반우에 콩알만 한 돌이 떨어졌다.

혜옥은 핀셋으로 돌을 집어들었다. 크지도 않은 이 물체가 인간에게 이처럼 크나큰 고통을 준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심정인지 신석을 돌려가며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손끝으로 비벼보기도 하였다.

마취제기운이 사라지자 창로는 동통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얼마후에는 온몸이 화로처럼 달아오르고 처녀들도 부러워하게 선이 명백하던 입술에는 소금버께가 허영게 내뿜었다. 수면제와 진통제를 놓으면조금 잠들었다가 인차 깨어나 물을 찾았다.

물을 마시면 안된다고, 잘 알지 않는가고 아무리 타일러도 어린애처럼 막무가내였다.

혜옥은 보은병에 몇번이나 손이 갔는지 모른다. 그러나 줄수는 없었다. 할수없이 깨끗한 가제천

을 물에 적서 가랑잎처럼 까실까실 타든 입술에 대주니 허덕이며 빨아보다가 또 물을 찾았다.

혜옥은 그만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신석수술이 이처럼 고통스러운것이었던가. 내가 마취하여 수술한 수많은 환자들과 그들의 어머니, 안해들이 다 이런 고통을 겪었던 말인가.》

쓰라린 자책에 빠졌던 혜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혹시 다른쪽신장에도 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뇌리를 쳤던것이다. 창로의 콩팥촬영필름을 찾아 확인해보아야 하였다.

혜옥은 창로의 침실로 달려갔다. 편수책상밑의 장을 연 혜옥은 주련이 놓여있는 술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신석촉매제 제12호》

병허리를 감고돌아간 글을 읽은 혜옥은 저도 모르게 《아-》하고 비명을 질렀다. 어제 창로가 마시려던것은 술이 아니었다.

(내가 이걸 왜 빚보았을까. 사랑이 진실로 깊지 못할 때 눈도 어두워지는가. 그런데 신석촉매제란 무엇일까?)

혜옥은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놓고 의학문헌들과 외국잡지들이 쌓여있는 짬에서 필름봉투를 찾아냈다. 여러장의 필름이 든 큰 봉투를 들고 창가로 다가가 하나하나 확인해보던 그는 대뜸 눈길이 쏙쏙해졌다.

신석은 오늘 수술한 오른쪽만이 아니라 왼쪽에도 있었다. 인간의 유기체에서 이처럼 귀중한 장기인 콩팥에 박힌 허연 점들을 가려보던 혜옥의 눈은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었다.

(이럴수 있는가?)

해마다 검진해도 그에게서 신석이 나타난적은 없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설마 자기 몸에 인공신석을 만들었겠는가.

혜옥은 믿을수 없어 다시 필름을 확인해보았다. 틀림없이 창로의 콩팥조영촬영필름이었다. 까만 필름 한모퉁이에 써붙인 이름쪽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필름들을 꺼내놓던 혜옥은 맨 마지막으로 수첩 한권을 꺼내었다. 이곳 약수에 대한 성분분석표가 적힌 첫장을 번지자 이 지방 산재류들과 그것에 포함되어있는 싱아산칼시움 등 신석형성 성분들이 품종별로 분석되어있었다, 그에 따르는 토양분석표들이 첨부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신석방지에 필요한 식재료법을 동시에 탐구하던 모양이었다.

다음장을 번지던 혜옥은 수첩 한귀퉁이에 눈길이 멎었다.

《과학탐구에서 탄탄대로란 있을수 없지만 특히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과학연구사업은 자기희생정신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것을 통절히 느끼지 않을수 없다.》

수자들과 헛갈릴것 같아서인지 테를 둘러놓은 글발들이 여기저기 보이였다.

《인공신석을 만들수 있는 방도를 찾은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신석과쇄기가 완성되면 환자들에 앞서 내가 먼저 치료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면 좀 두렵기도 하다. 파쇄기가 제때에 완성되지 못하면 나도 어차피 수술을 받아야 하기때문이다. 옥이가 좋아할까? 언제인가 내 머리칼속에 숨겨진 자그마한 뜬 자리를 보고서도 서운해했는데...》

혜옥은 수첩을 와락 그러안았다. 창로의 성격으로 보아 이 모든것이 사실임을 느낀 순간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웠것이 솟구쳐올랐다.

《창로동무!》

혜옥은 목메여 부르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창로가 누워있는 입원실로 선뜻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것처럼 가깝고 정답던 창로가 갑자기 남처럼 서먹하게 느껴지며 자기는 이미 옥이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자책이 심장을 아프게 비틀었다.

(이래서 예로부터 결혼전에 약혼이라는 기간을 둔 것인가.)

혜옥은 괴로운 마음을 안고 아름드리 느티나무에 등을 기대었다.

(내가 무슨 옥이인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내대고 인공신석을 만드느라 고심하는데 떠나는 부모를 위안해주지 않는다고 좋지 않아 했으니...)

혜옥은 시간이 가면 오해는 풀릴수 있어도 파쇄기의 완성을 위한 일에서는 양보할수 없었던 창로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이제는 어쩌면 종단말인가. 휴가일이 끝났다고 돌아갈수는 없지 않는가. 설사 내가 옥이가 못된다 해도 지금 형편에서 창로동무를 돕지 않을수 없지 않는가.)

끝없는 상념에 잠기었던 혜옥은 누구인가 등뒤에서 살며시 두눈을 가리우는 바람에 돌아섰다. 송이가 새물새물 웃고있었다.

《언니, 내가 무슨 기쁜 소식 가져왔나 맞춰봐요.》

《실험한 토끼들이 살아났겠지.》

《어마나,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쁨이 찰랑거리던 송이의 얼굴에 금시 의문이 실리었다.

《창로동문 땅크병출신이란다. 그앞에 점령 못할 요새가 있겠니? 이제 파쇄기의 동물실험이 끝나면 인체 첫 치료에 자기 몸을 내맡것이다.》

혜옥은 손에 들고있던 창로의 수첩을 내밀었다. 조심조심 수첩을 번지던 송이는 슬그머니 돌아서서 조용히 흐느끼었다. 과학탐구의 험난한 길과 그 길에서 발휘되는 인간의 위대한 힘을 새삼스럽게 느낀 모양이었다.

《언니, 빨리 창로선생님한테 가자요. 이번에 실험한 토끼들이 다 살아났다는걸 알려야지요.》

눈굽을 훔친 송이는 서슴거리는 혜옥의 손을 잡아끌었다.

혜옥은 송이의 손에 끌려 창로의 입원실로 달려갔다.

《선생님-》

출입문을 열어 명랑한 목소리로 웨치던 송이는 둘째손가락을 입술에 곧두세웠다. 고열과 동통에 시달리던 창로가 고요히 잠들어있었다. 키다리점적대가 한방울두방울 약물을 떨어뜨리며 보조병인양 그의 잠을 지키고있었다.

조용히 다가가 창로의 손을 모포안에 넣어주던 혜옥은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듯 온몸이 굳어졌다. 언제 가졌는지 자기 몸에서 꺼낸 신석이 그의 손에 쥐여져있었던것이다.

혜옥은 아래입술을 꼭 깨물었으나 썸처럼 솟구치는 눈물을 견잡을수 없었다. 하지만 구태여 눈물을 감추고싶지 않았다. 이 눈물이 신석을 녹이는 약처럼 자기의 가슴속에 박힌 허영의 돌마저 말끔히 녹여버릴수 있다면 아무리 흐른들 어떠랴.

혜옥은 자기가 여기에 온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만약 여기에 와보지 않았다면 창로라는 인간을 끝까지 몰랐을것이며 설사 결혼생활 과정에 안다 해도 그것은 이미 불행을 동반했을것이다.

최창로, 그는 참으로 옥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몸까지도 서슴없이 내대는 선군시대의 참된 보석이였다. 이런 보석들로 하여 우리나라는 더욱더 찬연히 빛나는것이 아닌가.

옥계천기슭에서 첫사랑을 고백할 때 창로는 바로 이런 옥이 되기를 바랐을것이다.

허나 내가 진정 그런 인간으로 살았던가.

사랑에서는 최대의 리기심을 발휘해도 된다는 범박한 관념에 사로잡혀 공명과 허영에 들뜨다보니 보석도 옳게 가려보지 못하는 청맹파니가 된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창로가 바라고 조국이 바라는 참된 옥이 되자. 그이가 택한 길을 영원히 함께 걸으며 몸과 마음을 닦고 또 닦자. 한점의 티도 없이...

혜옥은 혼몽속에 잠긴 창로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때마침 비낀 저녁노을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온 방안에 밝은 빛을 뿌리었다.

래일은 날이 맑게 개일 징조였다.

오 신 날

한광준

찬바람 불어치는
설달그믐날에 오시였습니다
다시 오실 땐
걸음걸음 꽃향기속에 오시길 바랐건만
또 오신 날은 정월의 그 추운 날이었습니다

눈보라속에서 언제를 쌓고있을
돌격대원들의 수고가 마음에 내려가지 않아
오셨다 하시더니
눈덮인 령길 달리며 야전차 따라서던
그 모습들 그리워
다시 오셨다 하시더니

아버이수령님 구상이 활짝 꽃피난 그날
대령장 굵이굽이에
만년언제들이 치솟은 기쁨의 그날에도
우리 장군님
대소한의 찬바람 헤쳐 태천땅에 오셨습니다

어이하여 우리 장군님은
산세 험하고 골도 깊은 이곳에
그렇게만 오신것입니까
그렇게 눈길을 밟고
엄동의 추위에
오셔야 했습니까

봄!
지금은 봄!
출렁이는 물결에 비긴
산도 봄의 산, 하늘도 봄의 하늘
물새의 나래우에도 봄빛이 가득 실린
대령강의 이 봄!

이 봄으로 가는 길에
첩첩산발, 눈의 계곡 그리도 많아
인민의 행복 넘칠 이 봄을
한시라도 더 빨리 당겨오시려
찬눈길 걷고 또 걸으신 우리 장군님

대령강의 이 봄은
푸른 물결에 실려온 봄이 아닙니다
천리만리 눈보라길 이어오신
장군님 그 자욱자욱우에
떨기떨기 꽃처럼 피어 웃는
이 땅의 봄, 인민의 봄입니다

아, 대령장 굵이굽이
산악같은 언제와 언제들에 새겨져
영원히 가지 않는 그날들이여
우리 장군님 오신 날은
봄을 안고오신 날입니다

《진주보석》으로

김송남

하늘높은 언제끝에도
푸른 인공호수 물맑은 기슭에도
기쁘나 기쁜 설레임
이 산천 가득히 물결치고있었다

산 넘고 골 지나
머나먼 금진강 이 기슭을
우리 장군님 다시 찾으신 그 아침
홍봉땅 새로운 전변이
그이의 넓은 품에 다 안겨들었다

헤아려보시여라
눈빛 파사로이 산악같은 언제를
미소 정겨웁게 대인공호수를
강물같은 수로와 집채같은 발전기들
언제끝에 생각을 없으시여
호반우에 마음을 없으시여
돌격대원들의 구리빛얼굴들

그 모두에 이어져 줄기차게 맥박치는
이 고장 사람들의 더운 숨결을...

착공의 첫 기슭에
친히 오시여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길도 밝혀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자신의 그 모든 로고는 다 잊으셨는가

그 어느 장마철
사나운 큰물이 휩쓸어갔던 그날의
언제 밀뿌리에도 서보시는듯
피와 땀으로 새 물탈을 다시 다져올리던
그 뜨거웁의 덩이덩이들
다 안아보시는듯
그 한사람한사람을 더듬어더듬어
사랑으로 불타시는 그이 마음은
여기서 그 무엇을 찾아내시었던가

-발전소건설자들
그들모두는 정말 진주보석같은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아, 《진주보석》
그이께서 찾아내여 빛내주시는
그 빛발을 받아안으며

더 높이 설렘었다, 더 크게 번개쳤다
대인공호수도 타빈들도 송전선 줄기줄기도...

위대한 장군님 그 품에 안겨
홍봉땅의 《천지개벽》을 펼친
귀하디 귀한 마음들이 빛을 뿌렸다
선군세월의 《진주보석》으로!

대령강, 대령강아 (외 1 편)

한원희

내 방금
수백리 네 기슭을 따라
굽이굽이 수천굽이를 다녀왔다
대령강아
너 위훈의 억만물결
가도가도 끝없는 네 흐름우에
내 마음을 싣노라

천만년 자연이 준 너의 강줄기는
평복땅에서 끝나건만
아버이수령님 그어주신 화살표 따라
너는 또다시 아득히 뻗어가지 않았던가
첩첩산발을 꿰질러
백리 또 백리 물길굴을 지나

물결 세찬 충만강을 이으며
맑고 푸른 위원강을 이으며
이 나라 북변의 크고작은 강을 다 합쳐
너는 거창한 하나의 흐름이 되었어라
산악같은 언제와 언제를 낳으며
산중의 바다와 바다를 펼치며

내 몰라라
너처럼 새 발전소들을 층층이 안고
물머리 높이 세차게 흐르는 강을
너처럼 전기고장 전기부자군을 쫓피우고
가없는 간석지별 생명수로 흘러흘러
너처럼 알곡의 메부리 안아오는 강을

내 정녕 몰라라
우리 장군님 찬바람 찬눈을 헤치시며
오시고 또 오시던 모습

너처럼 굽이굽이에 어려있는 강을
통강냉이 몇알로 끼니를 대신하던
피눈물의 해와 해들, 고난의 나날에도
손잡아손잡아 일으켜주시던 그 사랑
너처럼 뜨겁게 비껴안고 흐르는 강을

말하라, 대령강아
산너머 구름너머 송원, 동창, 마평...
대인공호수들의 물결우에 떠오르는 별무리는
흠 한집 돌 하나 더 안고지고 달리던
돌격대의 그 얼굴 그 눈빛이 아니냐

아버이장군님 그리며
얼음물속에 뛰어들어 암반을 깨내고
큰물에 터지는 언제를 막아
한몸 서슴없이 내대던 청춘들

아, 한없는 감격 끝없는 만세의 환호속에
너의 마지막발전소가 일떠선 그날
아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쫓피웠다고
우리 장군님 주시고주시던 그 감사
그대로 네 흐름이 되어
흘러 끝간데없이 흘러흘러
너는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강

그 무엇으로도 꺾수 없고 헤아릴수도 없는
장군님의 기상이, 태천의 기상이
아득히 굽이쳐 흘러흘러
내 그 끝을 모르나니
너에게 바치는 내 노래도 끝을 몰라라
아, 대령강, 대령강아!

래천의 맑은 물

옥구슬과도 같이
은구슬과도 같이
방울방울이 귀하네
래천의 맑은 물

두손 모아 한웅큼 떠 들면
부끄러운듯 수집은듯
방울방울이 숨을 곳을 찾네
래천의 맑은 물

이리도 순박하고 착한 물이
어떻게 먼길을 쉬임없이 달려왔을까
지칠줄도 모르고 피로도 모르고
맑고맑은 그 모습 변치 않을가

아, 래천의 맑은 물 방울방울
돌격대 처녀총각을 닮았더란다
!

산악같은 언제를 떠받들어올리던
그 열정 그 심장을 닮았더란다

방울방울이 그 신념 지녔길래
타빈을 돌리고 전기를 일으킨단다
방울방울이 그 량심을 안았길래
뜨거운 열과 빛이 된단다

래천의 물은 물이 아니라
청춘의 아름다운 땀방울
돌격대의 가슴에 뿜뿜던
투쟁과 위훈의 구슬땀

천만금을 준대도 아니 바꾸리
방울방울이 조국을 빛내이고
방울방울이 미래를 꽃피우는
아, 래천의 맑은 물

래천이라 네 이름은

홍준성

물이 많은 고장이라
네 이름 래천이더냐
세찬 물결 굽이쳐서
네 흐름 래천이더냐

덧없던 그 세월
반디불만 반짝이던 이 강변
오늘은 목목이 발전소라
《산중의 바다》되어 출렁이나니

산과 산이 손잡고
《빗장》처럼 가로지른 언제들
올려다보면 아슬하구나
바라다보면 아득하구나

물 한방울 조약돌 하나에도
이름 지어주고싶은 이 땅
뜨거웁에 젖는 내 가슴이여
래천이 굉장하다고 하신
장군님의 그 말씀 마디마디...

천연암반을 깨내며
우리는 땅의 깊이를 알았고
한치한치 언제를 쌓으며
우리는 하늘의 높이를 알았거니

어디나 《맞들이전》, 《마대전》으로
낮과 밤 따로없이 뛰고 달리던 곳은
《함마명수》 처녀들의 손도
사나이들 못지 않게 역세졌다는 곳은

인력과 수력의 대결장이여
물이 불이 되어 이글거리는 강이여
전기되어 천리, 빛이 되어 만리
대령강의 흐름은 그끝이 없거니

아, 래천이라 네 이름은
우리 장군님 크게 불러주시어
래천의 기상 당당히 떨치누나
선군시대의 새 지명으로
전기부자군-래천이라
온 세상이 부르누나!

언제와 청춘과 사랑

김명철

진남리는 태천땅 고성리는 념변땅
대령강을 사이 두고 떨어져있던 마을

진남리총각들 건드려진 노래에
고성리처녀들 손수건 흔들던 곳

출렁출렁 대령강물 두 기슭을 적시며
젊은이들 정을 싣고 흘러만 가더니

추억도 뜨거운 12월의 그 추운 날
발전소건설장에 찾아오신 장군님

땀흘려 일하는 저 동무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 하셨으니

그날부터 두 기슭이 서로 마주 붙었네
두 마을 청춘들이 합쳐져 들끓었네

얼음도 바위도 함께 까며 정이 들어
모닥불가에서 희망도 속삭였지

정말 대령강이 행복의 은하수라면
발전소 이 언제는 사랑의 오작교

보람찬 청춘을 위훈으로 빛내이던
사랑도 아름답게 꽃피는것이지

아, 언제와 청춘!-
청춘과 사랑!

수필

빛과 열이 태어나는 곳에서

변창률

우리 나라 서북부내륙지대에 위치한 태천땅은 크고작은 강이 많기로 알려진 곳이다. 그래서인지 팔짜기와 강변에는 물론 평야지대에도 돌이 많고 사시절 바람 또한 세차기로 유명하다. 언땅도 물어뜯어 굽을 지을듯 기승스레 몰아치는 한겨울의 찬바람에 오죽했으면 배개통같은 돌들이 울며 하루밤에도 얼어붙은 강을 하나씩 건는다고 했겠는가.

그 흑한을 헤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완공된 태천4호청년발전소를 찾아주시었다.

거창한 언제와 푸른 물 끝없이 출렁이는 대인공호수 그리고 발전기의 동음 세차게 울리는 발전기실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이 큰일을 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발전소건설의 나날 돌격대원들이 창작한 작품집 《대령강은 말한다》를 보여주시며 체험자만이 쓸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분에 넘치는 높은 평가를 해주신것이다.

그 영광의 자욱을 더듬으며 취재길을 이어가던 나는 발전소건설의 나날 돌격대지휘성원으로 일하던 백동무를 만났다. 그는 나의 두손을 꼭 그 러쥐고 세차게 흔들었다. 눈물이 글썽해서 걱정을 터뜨리는 백동무를 바라보느라니 그를 처음 알게 되던 때의 일이 문득 떠올랐다.

태천4호청년발전소 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몇해 전 겨울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현실체험의 나날을 보내고있던 어느날 저녁 그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한장의 종이를 내앞에 펼쳐놓았다. 거기에는 누군가의 이름들이 적혀있었다.

《이 사람들을 좀 소개해줄수 없습니까?》

알고보니 그는 이곳으로 오기 전에 군에서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발전소건설에 참가했었다. 발전소는 완공되었지만 꼭 알려져야 할 사람들이 소개되지 못했다는것이였다. 하긴 대규모전력생산기지로 변모되어 계단식으로 진행되는 태천발전소건설장을 적지 않게 찾아왔던 나조차도 군자체의 발전소건설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를 잘 모르고있었다.

그때 나는 섣뚱 반응을 못했다. 어느 부문, 어느 일터에서나 결사관철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맥박치는 오늘의 환경에서 작은 규모의 발전소를 하나 건설하는데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으니 위훈이나 성과라고 할만 한 명분이 희박하다고 생각되었기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수고를 내가 짐작 못하는것은 아니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농사를 위주로 하는 크지 않은 군에서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것이 말이 쉽지 겪어보지 않고서야 그 나날에 깃든 하많은 사연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하지만... 그는 나의 심중을 넘본듯 묵묵히 앉아있다가 어깨가 처져 돌아갔다.

바로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들이 건설한 발전소를 몸소 다녀가셨다는 꿈같은 소식에 접한 나는 한달음에 그리로 달려갔다. 참관자들의 태왕이 끊길

줄 모르는 발전기실에서 나는 감격의 그날에 있었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세찬 눈바람에 야전복자락을 날리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소를 찾으시였을 때는 한낮이 가까운 무렵이었다.

아찔한 산밑으로 곧추 뚫린 물길을 거쳐 취입구로 폭포처럼 들어가는 푸른 물, 단거리주로의 결승테프를 남먼저 뚫은 달리기선수의 환성인양 취수구로 소리치며 쏟아져나오는 흰 물결... 강철도 녹이기를 서슴지 않는 뜨거운 열과 하늘의 태양도 무색케 하는 강렬한 빛을 안은 전기가 태어나는 고고성인듯 웅글게 들려오는 발전기의 동음...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부하로 돌아가는 발전기앞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않으시었다. 발전기동체의 밑부분에 구멍을 내어 수차축이 돌아가는것을 볼수 있게 한것이 좋다고 그리고 발전기를 받친 대돌을 천연화강암을 다듬어놓은듯 아주 재간스럽게 멋을 부렸다고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러시면서 손을 아무리 대이고있어도 발전기의 진동이 전혀 없다고 크지 않은 발전소이지만 높이 치하하시었다. 배전실까지 일일이 돌아보시고나신 장군님께서서는 태천군인민들이 소문없이 실리가 있는 큰일을 했다고, 태천군을 이제 농업군이 아니라 전기군이라고 불러야겠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떠나시기에 앞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건설자들과 군안의 인민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는 뜨거운 당부 를 남기시고 차에 오르신이었다.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남기시고 점심시간도 미루시며 또다시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큰절을 드리는데 자옥을 때던 승용차가 다시 멈춰섰다.

그이를 바라드리던 일꾼들이 웬일인가싶어 황급히 달려갔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발전기의 동음이 울려나오는 발전소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가까이 선 군당책임일군의 등을 다정히 두드리시며 정말 수고했다고, 소문없이 일떠세운 발전소가 만부하로 착실히 돌아가는것이 정말 기쁘다고 몇번이나 뇌이시었다. 발전소건설자들과 군안의 인민들을 다 만나지 못하는것이 정녕 아쉬우신듯 그들모두에게 나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는 뜨거운 당부 를 다시금 남기시었다.

그날 군당책임일군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백동무는 감격에 목이 메어 두볼을 적시었다. 그의 입에서는 《장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의 눈앞에는 발전소건설과 함께 흘러보낸 세월이 금시런듯 생생히 돌이켜졌다. 세차게 펄럭이는 붉은 기발아래서 주먹을 틀어쥐고 열변을 토하며 우렁찬 노래속에 조직된 돌격대, 목표는

아름찼으나 기세는 충천했다. 했으나 현실은 너무도 엄혹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푸른 암반으로 된 물길굴만 뚫는데도 두해라는 세월이 모자랐다. 그밖에도 대령강물을 끌어오기 위한 수백미터의 수로파기와 제방공사, 수천립방의 날벼랑을 깨내고 발전기실을 건설하고 지금의 모습대로 완성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착암기보다도 정대와 함마로 뚫은 밭과구멍이 더 많았다. 배부른 날보다 허기증을 참아야 하는 날이 더 많았고 잠자는 시간이 모자라 버럭광차를 밀면서도 졸았다. 기다렸던듯 난관은 중중첩첩으로 막아서는데 세월은 빨리도 흘렀다. 목표와 실천간의 거리가 겹잡을수 없이 멀어짐에 따라 발전소건설자들의 사기는 오르지 못했다.

그렇수밖에... 《고난의 행군》의 가장 준엄한 전구의 하나였던 자강땅에서는 단 6개월만에 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세상을 놀래웠는데 자신들은 자그마한 발전소 하나를 가지고 몇해를 넘기고있으니 거기에 무슨 위훈이 있겠는가. ... 그들은 분발하여 일떠섰다. 언 땅을 까고 바위를 깨내며 잠시 선자리에서 드는 쪽잠속에서도 머나먼 전선길에 계실 아버지장군님을 그리며 한 치한치 발전소언제를 쌓아올렸으며 드디어 완공의 날을 불러온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들이 건설한 발전소를 찾아주시고 건설속도와 규모를 헤아리기에 앞서 발전소에 바쳐진 건설자들의 수고를 먼저 헤아려주시며 그토록 떠나시기 아쉬워하시었다. 행복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값높은 보람이 어디에 있으랴...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난듯 그의 가슴은 환희로 마냥 높뛰었다.

가파로운 산정을 향해 치달아오르고싶었다. 목청껏 소리높이 웨치고싶었다. 쉽없이 흘러가는 대령강물결아, 네가 가는 그 끝까지 나를 실어다 주렴, 얼마나 넓은 품에 내가 안기는지 내 알고싶구나... 저 하늘에 떠가는 흰구름아, 잠시라도 내려와 나를 태워다 주렴, 우주의 한끝 아득한 높이에서 내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을 한눈에 굽어보고싶구나... 아, 이 땅에 태어난 행복이여, 이 땅에 사는 보람이여!...

백동무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의 감격과 환희가 그대로 옮겨진 나의 가슴은 진정할줄 몰랐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걸음을 많이 걸으시고 고생이 많으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외진 강변에 태어난 크지 않은 발전소를 두시고도 거기에 바쳐진 건설자들의 수고를 것처럼 깊이 헤아려주시는것이 아닌가...

그 사랑, 그 믿음을 안으시고 또다시 완공된 태천4호청년발전소를 찾아주시고 청년돌격대원모두를 태천의 기상 창조자로, 돌격대시인으로 값높이 내세워주시었으니 그가 어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으랴.

《저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독차지한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가슴속 진정을 토로하는 그의 말은 참으로 웅은것이였다.

수수천년 제멋대로 흐르던 강물은 거창한 언제의 품에 안겨 눈부신 빛과 뜨거운 열을 간직한 전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였다. 허나 그 전기에

앞서 언제는 저토록 참된 삶의 절정에 올라선 인간들을 먼저 탄생시켰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이 계시여 래일을 위해 오늘을 바쳐가고있는 선군시대인간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것처럼 값높은 행복으로, 보람으로 수놓아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장, 자애로운 아버지가 계심으로 하여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은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기어이 승리의 붉은 기발을 휘날리고야 말것이다. 멀지 않은 앞날에, 가까운 래일에...

탄을 떠나보내며

박상민

월봉산마루에
노을이 불붙는 이 저녁
강구를 나서는 꼬리 긴 전차
뜸뽕 넘치게 탄을 싣고
장쾌하게 달리는 모습을 볼 때면

생각깊어라
이 탄, 내가 캐는 이 탄이 무엇인지
남들이 말하듯 쉽게 말할수 없구나

은하수 비낀듯
번쩍이는 탄벽앞에 설 때마다
풍요한 가을들가에 선
농민의 흐뭇한 마음인듯
탄은 나에게 오곡이였다
무르익은 가을의 이삭이였다

그렇게 정든 탄
화차마다 땀뽕 실렸으니
내 가슴엔
한덩이라도 땅속에 그냥 둘수 없는
새 탄밭이 또다시 펼쳐진다

보석같은 탄을 실어
발전소로 떠나보내는 이 시각
다 자란 아들을 조국앞에 내세우며
기쁨의 미소 짓는 아버지런듯
흐뭇한 마음 부풀어오른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땀을 쏟으며 안아낸 탄

해빛에 번쩍이는것은
탄이 보내는 뜨거운 눈인사인듯
바래는 이 마음엔 하고싶은 말도 많다

내가 닿는 그곳이
아기들의 요람이라면
엄마들의 따스한 입김이 되거라
불빛밝은 교정의 창가라면
희망의 노래되어 울리거라

그러면 다심해진 탄부의 마음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딸기빛 그 볼들을 멀리서도 쓰다듬는다
아이들의 무지개꿈도
이 탄우에서 아롱지는게 아니라

그래, 너의 그 힘이
발전기타빈을 기세차게 돌릴 때
공장구내들과 은빛케도우에선
경제강국의 새 교향곡이 태어나리라
조국을 통채로 안고사는
탄부의 마음의 금선을 두드리며...

아, 노을 불타는 이 저녁
탄아, 너를 바래우는
탄부의 마음속에
하고싶은 말 얼마나 많으랴만
너를 기다리는 이 땅의 곳곳에서
열과 빛으로 네가 다 말하거라
사랑으로 불타며 열정으로 불타며

래천의 기상 나래치는 시대의 목소리

김철민

작품집 《대령강은 말한다》에 들어있는 시편들은 이름있는 시인들이 아니라 평범한 청년돌격대원들이 불꽃튀는 건설현장에서 눈비에 젖고 땅에 젖은 종이우에 쓰고 다듬은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천만군민을 크게 격동시킬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시문학이 선군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서 전투적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에 대한 또 한번의 논의이며 강조이기도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들끓는 현실은 문학예술의 무궁한 원천이며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게 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시대정신은 창조적로동으로 들끓는 현실속에 깃들어있다. 현실속에 살아숨쉬며 현실속에서 시대의 창공높이 나래쳐오르는것이 바로 시대정신이다.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시대정신을 그려보고 리해할수는 있으나 그 정신으로 호흡하고 심장을 높일수 없다.

현실이 시를 낳는 토양이며 원천으로 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청년돌격대원들이 창작한 시편들은 벽찬 현실속에서만 태천의 영웅적기상을 반영한 진실하고 힘있는 시가 탄생할수 있다는것을 훌륭히 입증해주고있다.

해뜨는 아침에도
달뜨는 저녁에도
나는 경건한 마음 안고 바라본다
대령강기슭에 높이 솟은 전망대

바라보면 가슴 한가득
우리 장군님 생각
12월의 찬바람에
웃자락 날리시던 그 모습

-시 《장군님은 전망대에 서계신다》(김룡호)-

시편들에 흐르는 서정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흠모심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태천4호청년발전소 건설과정에서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도 그 성과를 고스란히 돌격대원들에게 돌려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감사를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을 태천의 기상의 창조자들로, 시대의 주인공들로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태천땅에 대기념비적창조물이 일떠설수 있었고 태천의 영웅적기상이 나래칠수 있었으며 태천의 기상이 나래치는 수많은 시가 나올수 있었다.

하기에 작품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추운 때 추운 날 오신 길 또 오시여/우리 돌격대원들을 위해주신 그 사랑》(시《완공의 보고 삼가 드립니다》리명수)을 노래하였고 《태천의 불빛 안고 돌아가리라/맹세도 불갈던 그 가슴가슴들》이 《오늘은 불을 안고 불빛을 안고/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시《태천의 불빛》정순천) 뜨거운 체험세계를 펼치였으며 청년돌격대의 고귀한 이름에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만족을 드릴/천백마디의 말을 하나로 합쳐/올리는 맹세》가 깃들어있음을 (시《청년돌격대》김룡철) 토로하고있는것이다.

작품들의 소재와 시적계기는 각이하지만 그 정서적형상의 근저에는 한결같이 건설의 나날에 오로지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그리며 장군님께 완공의 기쁨을 드릴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는 정서적 체험이 놓여있다.

그 뜨거운 정서적체험에 기초하여 다양한 시형상을 펼침으로써 작품들은 태천의 영웅적기상이 뿌리박고있는 정신적힘의 원천이 바로 령도자에 대한 투철한 흠모심이야말로 태천의 영웅적기상이 나래치는 시대정신의 본질로, 정수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는것이다.

령도자에 대한 뜨거운 흠모심에 기초하여 태천의 기상을 노래한 돌격대원들의 작품들에서 또한 크게 울리는 감정정서는 더 높고, 더 빨리, 더 용감하게 돌진하려는 강렬한 비약정신이며 높은 이상과 포부이다.

우리 당이 안겨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과 강성대국건설열망에 청춘의 용감성과 기백을 더한 태천의 비약정신과 포부를 힘있게 반영한것이야말로 작품들이 선군시대정신을 일반화하는데서 거둔 커다란 성과이며 특색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첫삽을 떴다.
아직은 수수한 판자말뚝에
가느다란 뿔줄을 늘였어도
우리는 떴다 완공의 그날을 그리며

수수천년 잠자던 땅을 흔들어 깨우며
우리는 첫삽을 떴다
강성대국부강의 래일을 그리며
태천4호발전소 건설의 첫삽을 떴다
...

-시 《첫삽을 떴다》(리영철)-

작품은 건설의 첫시작을 노래하였는가, 아니다.
첫삽을 박을 때 벌써 그려보고 내다본 건설의
완공을 노래하였다.

높은 비약정신과 포부가 없이야 어찌 건설의
첫삽을 뜨는 시각에 완공의 그날을 노래할 수 있
겠는가.

시에서는 첫삽의 의미를 단순히 시작을 떴었다
는 사실에 대한 전달이 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미래와 잇닿은 불같은 각오와 비약정신,
높은 이상과 포부의 표현으로 뜻깊게 노래하였
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 《구보로가 좋다》(김경화)
《큰 심장》(김경희) 《나의 주먹》(류순철) 《큰걸
음으로》(김경옥) 등의 작품들도 태천의 기상을 창
조한 영웅적인간들이 지닌 높은 비약정신과 이상,
포부를 현실 구체적인 감정으로 생동하고 진실하
면서도 뜻깊게 노래하였다.

작품들은 심장, 주먹, 발걸음을 비롯한 일신상
의 자그마하고 범상한 대상들에서 시적소재를 탐
구하고 취급하였지만 작지도 않고 범상하지도 않
게 노래하였다.

시 《큰 심장》과 《큰걸음으로》만 보더라도 작
품들에서는 《어머님의 바래움을 받으며》 고향을
떠나온 작은 심장으로부터 《아득히 뻗어간 저 언
제와 함께》 커질대로 커진 심장으로, 일상생활의
발걸음으로부터 《장군님 높이 모실 뜨거운 마음
안고》 달리는 큰 걸음으로 시형상을 높이 승화시
키었고 확대시켰다.

높이 승화되고 확대된 시형상자체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곳에 청춘이 설
자리가 있고 열렬한 비약정신과 숭고한 이상, 포
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지 않는가. 작품들에서
태천의 비약정신과 포부가 감명깊게 느껴지는것
은 바로 작은것에서부터 큰것을, 현상적인데서부
터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이끌어내고 노래하는
시적일반화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청년돌격대원들의 시편들에서 또 하나 인상깊
게 느낄 수 있는것은 시대의 벽찬 량만과 회열이
다.

우리는 흔히 현실주제의 시작품들에서 량만적
정서를 두고 이야기한다. 이 경우에 량만이란 보
다 많이는 작품의 밝고 약동적인 정서적색갈을
넘두에 두고 이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의 작품들에서 량만은 정서적색
갈로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작품의 종자와 주제,
느낌과 체험으로 구현되어 보다 뜻깊고 강렬한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으로 울리는 량만이며
회열이다.

남들이 꽃양산 펼쳐들고
향기넘친 유보도를 거닐 때
우리는 눈비를 타하지 않았다
진창길도 웃으며 걸었다

삽날에 번개를 일구며
한치한치 언제를 쌓아올릴 때에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

한순간의 휴식도 잊으시고
쪽잠과 꿇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현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시는
우리 장군님 편히 쉬시옵기를!

-시 《우리의 소원》(리영실)-

태천의 량만이란 바로 이런것이다. 꽃양산과
유보도를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땀배인 작업복
과 진창길을 굳이 높게 생각하는 량만...

이 량만의 정서적감정이 령도자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잇닿으며 보다 감명깊게 울리는것
이다.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헤치며/오히려 우리는
강자로 자라났》음을 토로한 시 《가는 길 험난해
도 웃으며 가자》(리금주)와 돌격대원들이 얼음물
속에 뛰어들어 일하며 웃음으로 추위를 날려보낸
이야기를 시화한 당시 《우리의 웃음》(문은희)을
비롯한 많은 시들이 웃음과 량만, 회열을 노래하
였다.

작품들에서는 한결같이 웃음과 량만을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
으로서가 아니라 령도자에 대한 뜨거운 흠모와
신뢰, 선군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에 기초한
감정으로 일반화하였다.

바로 여기에 돌격대원들의 시편들에서 발산하
는 량만과 회열의 깊은 뜻이 있고 정서적힘이 있
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태천4호청년발전소 건설자들의 목소리
는 사람들의 끝없는 공명을 일으키며 울리여간
다.

그 깊은 여운속에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 진실이 있으니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께 태천4호청년발전소 건설 완공의 보고를 올리고 기쁨을 드리려는 하나의 념원으로 불타오른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이 선군시대의 성과작을 낳았다는것이다.

그 불타는 심장의 피방울들이 그대로 주옥같은 시어로 되고 그 심장의 박동이 그대로 운율이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시는 시대의 영웅들이 부른 심장의 노래는 비약의 폭풍이 불어치는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리어갈것이다.

시조

래일을 안고있는 땅

주명옥

목장의 아침풍경

무성한 수림속
새벽어스름을 밀어내며
아침해 산마루에 솟으니
젖은 나무잎들
푸른빛 더 짙게 단장하누나

남먼저 등판에 오른 나를 반기며
주단인양 보들한 풀잎들은
은빛이슬알을 굴리고
안개수건에 불을 부빈 나무숲은
상긋한 향기 풍기는데

산발을 휘감고 뻗은
류환선 방목도로엔
갈꺾질 세찬 염소떼
구름마냥 이끌고 오르는
방목공처녀의 빨간 수건 언듯언듯

머리 들어 멀리 내려다보니
돌돌돌, 개울결엔 멧쟁이 염소우리

그림같은 산기슭엔
추너 높은 새 살림집, 새 학교...
밤새 새록새록해진 그 모습
동화숲의 꽃버섯 동네런가

세월이 없어주는 푸르름이라면
뜻없는 물소리만 그윽한 산천이라면
어찌 내 마음 이리도 사랑스러우랴
가장 어려운 날
승리의 래일을 믿어
자신들 힘으로 일떠세운
우리네 목장마을

황홀경에 목매여 뜨겁게 안아보는
목장의 아침풍경이여
아, 너는 진정
선군시대가 그린 아름다운 풍경화
그 무엇으로써도 지울수 없는
우리의 목숨같은 재부여라

푸른 싹

-시련에 찼던 그 봄날에-

그렇게 기다리던 봄
갓 늘군 풀밭에 찾아왔습니다
첫 비에 벌써
뽕조롭게 쑥쑥 내민 모양
꼭 귀여운 아기같이
물집잡힌 내 입술 살그니 대여봅니다

아직은 그 풀싹 너무 작아
흙이 입술에 묻습니다
그래도 기뻐기뻐 두눈엔
눈물이 소르르
새싹 품은 땅에
엄마 젖방울마냥 자꾸 떨어집니다

애어린 이 싹이
왜 이다지도 날 울리는겁니까
풀이 모자라
모진 겨울 이겨낸 염소들 부여안고
젖엄마 안타까움에 비기던 그 아픈때문입니까

뜨거움에 젖은 입술 다시 대여보니
내 가슴속에선 아, 푸른 싹이
모진 불바람에도 시들줄 모르는
억센 푸른 생명이
해님 향해 설레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싹이
왜 이다지도 내 마음 달구는겁니까
한줌 풀이
날알처럼 뼈에 사무칠 때
전선길 가시던 우리 장군님
몸소 보내주신 아, 사랑의 씨앗
목메여 안아들던 그 뜨거움때문입니까

아 그 풀씨여서
이 등판에서 순직하신 나의 아버지
꼼꼼히 다 묻으라고 하시던
그 마지막당부에도 새겨있습니다

팽이날에 불꽃이는 한겨울에도
한치 또 한치 풀밭을 늘이며
파종을 서두르던 내 발자욱에도 어려있습니다

사랑스런 새싹들아
어서 어서 푸르려지라
뜨거움에 젖은 입술 다시 대여보니
내 가슴속에선 아, 푸른 싹이
모진 불바람에도 시들줄 모르는
억센 푸른 생명이
해님 향해 설레고있습니다

산 울 림

인적없는 두메
그 고요 야속한듯
저도 몰래 사르르
풀숲에 맺히던 이슬방울, 이슬방울

오늘은 그 이슬방울 흔들며
하얀 구름발마냥
수놓아지는 염소떼 염소떼
이 산골짜기에서도 매매-
저 산골짜기에서도 매매-

새로 더 늘군
종달꿀 등판에선
반갑다 기쁘게 화답하는듯
풀판공치너들의 은방울웃음소리

까르르 구울러내리는데

양지쪽 산기슭 새 학교에선
아이들 글 읽는 소리 또랑또랑
길섶에 키를 솟군
황철나무아지에선
매미도 부러운듯 땀, 땀 청을 돋구네

산천을 울리는 흥겨운 그 숨결
풍만해지는 새 생활의 노래
눈비도 불바람도 이겨낸
행복의 보금자리
아, 시대의 산울림이라네

목장마을소묘

하얀 사적비 대돌우에
정히 놓여지는
저 청초한 꽃다발은
이른새벽 그 아침 못 잊는
산골사람들의 뜨거운 마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기지 않는
하루의 첫 일파라네

×

시내학교 교원배치장
조용히 가슴에 품고
돌격대의 첫삽을 잡았던 그 처녀
목장마을 새 학교
그 첫 선생이었네
교과서에도 다 써여있지 않는

고난을 이겨낸 그 진리도 가르치는...

×

방목공치너의
그 꽃다발 받아들고
얼굴 붉히던 제대군인총각
오늘은 그 처녀와
우리 장군님 서계시던 세폴천다리우에서
온 마을 환하도록 결혼사진 찍는다네
건설의 나날 함께 새겨온 위훈의 나날이
사랑의 열매도 익혀주었네

×

첫 아기 출생증 받아들고

《래일구》 그 이름앞에
젊은 부부 눈굽이 뜨거워졌네
청춘을 바쳐 빛나는 오늘보다

더 희망찰 래일을 안아올
또다시 가닿아야 할 리정표 갈아

래일을 안고있는 땅

땀에 젖어 그려보던
그 앞날에
나는 지금 서있노라
흘러간 어제와
마중할 래일을 또 생각하며...

잡관목에 엉키여
보이지 않던 오솔길
이렇듯 시원스레 열려졌는데
래일은 그리고 또 래일은
얼마나 더 창창히 넓어질것인가

땀으로 싸안아올린
저 산기슭 돌담
떠를 두른듯 곱게 쌓아졌는데
그우에 흐뭇하게 흐르는 살진 염소떼
래일은 그리고 또 래일은
얼마나 더 구름처럼 흐를것이며

별마저 언뜻 돌지 않던 밤
숨옷 벗어 불몽치로 추켜들면
그 자리에 솟아난
멋진 지붕의 세폴천발전소
저 동음소리

래일은 그리고 또 래일은
얼마나 더 세차게 울릴것인가

제힘으로 해놓은 일
그처럼 멋있고 좋은줄
다시, 다시 깨우쳐주는 뜨거운 추억이여
반짝이는 은빛자동가공설비의 흐름타고
더 많은 젓가공제품 쏟아져
유족한 생활로 듬뿍 안겨질 래일이여

아, 진정 그래서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이른 첫새벽
산중속에 솟아난 우리 방목마을 몸소 찾아오시여
그리도 분에 넘치게 치하해주시며
더더욱 아름답고 창창할
앞날을 축복해주시었나니

은혜로운 어버이 그 손길에 받들려
《래일구》의 문패 높이
선군시대 새 선경으로 솟아 빛날
아, 영광의 이 땅은
영원히 비약의 래일만을 약속하며
세차게 세차게 태동하리라!

물이 오는 소리

리동수

리상-미루벌
새 물길 여는 일
지금 이 한창인데
물이 오누나 이 가슴에 먼저
물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누나

바라보니 아득한
물길굴 지나
수백리도 더 되는 새 물길 따라
드넓은 미루벌 포전마다에
흘러 흘러드는 물이여 물소리여

완공된 물길로만 물이 흐른다더냐
뻗어갈 새 물길 그려보는
황대, 광동, 세림 ...
물길굴이 미여지도록 흐르고흘러

건설자의 마음속에 벌써
출렁이며 흐르는 물

선군시대라 부르는 오늘에
개천-태성, 백마-철산에 이어
어제날 마른 목 추길 물조차 그림다던
내 고향 별 가득히 넘쳐날 생명수 불려
새 물길 열어가며 뿔뿔히 심장들이
후련하게 안아보는 맑은 물이여

물이 그리웠던 가슴들이
시원하게 열여가는
금시라도 명암, 신곡, 해포...
호심깊은 저수지마다에 차넘치는듯

돌격대기발 퍼덕임소리

발파소리, 합마소리에 어우러져
종다리노래만 외롭던 하늘가에
쌍쌍이 날아에는 물새들의 노래소리도
들리는듯 들려오는듯

물이 온다
물길을 열어가는 가슴들을 푹푹 적시며
물이 온다
미루벌을 살찌우며 풍요한 가을을 부르며

천만재부로 제방을 쌓아서라도
물을 보내주시자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념원 받들어
우리 장군님 불러오시는
아, 물이 오는 소리 풍년이 오는 소리

들려오누나
가사

리상천의 맑은 물 출렁이며
너 가는 포전마다 이랑마다
파도치는 이삭의 설레임소리
별가득 하늘가득 울려가는
가을걷이 흥겨운 노래소리

은혜로운 해빛을 싣고
넘쳐나는 웃음을 싣고
이 가슴 이 땅을 한껏 적시며
흐르라 저 푸른 하늘 물결에 담아싣고

아득한 지평선 마지막 한이랑까지
오곡을 무르익히며
별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 사랑
아, 내 고향 미루벌의 영원한 생명수여!

합 격 이 래 요

문원모

일숨씨 소문난 방직공처녀들
총각보는 기준을 정해놨다나
만기복무졸업증 품고온 총각이면
처녀는 안보고도 합격이라나
라라라 랄라 제대군인총각
한생의 길동무로 합격이래요

사랑엔 불갈고 로동에는 성실해
그래서 제대군인 좋아한다나
시련도 웃으며 헤쳐온 총각이면

가사

처녀는 두말없이 합격이라나
라라라 랄라 제대군인총각
한생의 길동무로 합격이래요

장군님 병사로 청춘을 빛내여온
혁명대학졸업생 제일이라나
군인정신 변함없이 이어갈 총각이면
처녀는 만점짜리 합격이라나
라라라 랄라 제대군인총각
한생의 길동무로 합격이래요

또 만 났 어 요

김창호

약속은 없었어도 또 만났어요
미곡벌 가꿔가며 또 만났어요
지난해 모내기때 만났던 동무
거름산 쌓아가며 또 만났어요

아직은 우리 서로 이름 몰라도
포전길 가고오며 자주 만나요

땀흘려 이삭을 익히여가며
우리가 만나는 곳 여긴가 봐요

만날수록 그 모습에 마음끌려요
만날수록 그 동무도 나를 반겨요
씩씩한 제대병사 미더운 동무
나도 몰래 이 벌에서 정들었나봐

돌아온 반지



리성식

《동무 아버지님 성함이 림성찬이고 출생지는 <구성군 하단면 마양리>가 맞습니까?》

《예.》

그 대답을 듣고서야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일군은 찾아온 용건을 말했다.

《머칠전 남조선의 한 민간단체 방문단이 평양에 왔습니다. 그런데 <꽃엄마>라 불리우는 한 여인이 우리한테 은가락지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해방전 림성찬에게서 받은 결혼반지라며 그걸 림성찬의 친척을 찾아 돌려주라더군요.》

《사람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나는 단마디로 부정해치웠다.

우리 아버지는 열여섯살때 왜놈들의 《징병》에 걸려 남방전선에 나갔다가 해방후에야 고향으로 돌아왔고 60년대말 어머니한테 첫 장가를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해방전의 결혼이라니? 그것도 남조선에서 사는 여자와의?

어이가 없어 나는 웃고말았다.

실망한 기색을 짓던 그 일군은 가방안에서 두툼한 자료철을 꺼내 내앞에 놓았다.

《읽어보십시오. 그다음 이야기를 마저 합시다.》

나는 괜히 바쁜 시간만 빼앗는 그를 반갑지 않게 여겨보다가 마지못해 자료철을 번지였다.

...

림성찬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는 남자였다.

언제나 이 마음속에 간직되어있어 잊을래야 잊어버릴수가 없는 그!

아, 심장을 비트는 피로움속에 세월을 보내느라니 1944년 5월의 일이 눈앞에 펼쳐지군 한다.

슬픈 봄

뒤산엔 짙레꽃이 빨갭게 피어 덮이고 들판우 창공에선 종달새가 목놓아 지저귀는 화창한 봄날이다.

해별이 살을 간지럽히는 중낮.

앞벌 한끝의 땀기논에서 처녀총각이 논을 갈고 있었다.

키는 꺾충하나 아직 코밑에 솜털이 보르르한 애송이총각은 앞에서 가대기바를 끌고 다리가 매출하게 균형이 잡힌 쌍태머리쳐녀는 뒤에서 가대탑을 누르고 기울거리며 호리날을 조절한다.

총각은 안골 《썸터집》 아들 림성찬이고 처녀는 그 앞집 최과부네 딸 송정희다.

그들이 지금 갈고있는 논은 정희네가 소작하는 땅이다. 성찬이네는 어제까지 논갈이를 끝냈었다. 그러느라 성찬이가 고생을 했다. 재작년 가을토목공사에 끌려나갔다가 다리병신이 되어 돌아온 아버지를 대신해 보름나마 가대기를 끌었던 것이다. 채 자라지 못한 아들의 어깨에 멍에를 메운 것이 마음에 걸려 어머니는 오늘 아침 없는 살림에도 성찬이가 좋아하는 조찰밥에 닭알장을 해주고 머칠 폭 쉬라며 이부자리까지 펴주었다. 그런걸 성찬은 또 가대기를 메고 별로 나왔다. 혼자논을 뒤지느라 고생하는 정희를 돕기 위해서였다.

앓아누운 어머니에 대한 걱정때문인지 얼굴색이 죽어가지고 외로이 토닥토닥 땅을 쫓던 정희는 성찬이가 도우려고 하자 고집스레 그의 성의를 뿌리쳤다.

《제 집일만도 힘에 부칠텐데 그만뒀.》

《앞뒤집간에 제 집일 내 집일 하면서 그래? 손이 나면 서로 돕는거지.》

성찬은 성을 내며 가대날을 논바닥에 쿵 박아대고 제먼저 멍지를 어깨에 둘러맸다.

《보지만 말고 빨리 그걸 잡으려마.》

그래서야 할수 없어 정희는 가대탑을 세워잡았다.

두다리에 힘을 주어 가대기를 끌던 성찬이가 문득 정희를 돌아보았다.

《쇠스랑으로 혼자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쫓는다는거야? 생각이 막 옹쿠나. 일군을 얻어쓸 궁린 왜 못하니?》

《그러면 좋겠는데 샀 줄게 있어야지. 성찬이가 마침 이렇게 도와주니 한숨 놓여. 정말 고마워.》

정희는 이마의 땀을 훔치며 새뭇이 웃었다.

그의 잘쭈한 허리와 어여쁜 얼굴을 더듬던 성찬의 눈에 불쭙 장난기가 어리었다.

《이따 시집갈 때 꽃떡을 줘야 해. 내가 새서방 얻어달란?》

《어마...》

쌍까풀진 눈을 실그리고 성찬을 흘겨보던 정희는 《정말 가볼겠어?》하며 흙덩이를 집어 그의 잔등에다 던졌다.

《아야야. 시집보내주겠단데 때리긴 왜 때리니.》

성찬은 죽는 시늉을 하다가 가대기를 끌고 냇다 달렸다. 가대날이 흙밥을 쳐나 먼지가 뽀얗게 일었다. 그 먼지속에서 가대타를 가까스로 붙잡으며 따라달리던 정희는 가대날을 땅에 쿵 눌렀다.

《가불대는 사람은 일을 더 시켜야 해.》

날이 깊게 박히는 가대기를 당기느라 성찬은 단숨을 헉헉 내뿜었다. 그의 이마에선 비지땀이 뚝뚝 떨어졌다.

힐떡거리는 성찬을 본 정희는 슬쩍 가대날을 들어 힘이 적게 걸리도록 했다.

논머리에 이르렀을 때 정희가 먼저 가대기를 두렁에 눕히었다.

《아유 숨차다. 좀 쉬고 하자.》

그들은 버들숲 우거진 강가로 나갔다.

강물속에 들어가 시원히 땀을 씻은 후 방쪽으로 나앉아 바람을 쏘이였다.

정갱이를 드러낸채 퍼더버리고 앉은 성찬은 버들잎을 푹푹 뜯어 강물에 떠내려보냈고 정희는 치마폭으로 하얀 무릎살을 감싸고 앉아 손에 꺾어든 할미꽃을 불살에 대고 살살 비비었다. 그러다가 둘 다 고개를 돌리고 자기네가 방금 갈아엎은 논판을 후련한 심점으로 바라보았다. 논배미들이 다닥다닥 들어앉은 벌판을 더듬던 그들의 시선은 아지랑이가 가물거리는 허공을 날아넘어 산기슭의 동네에도 달리였다.

사십여호의 농가가 사이좋게 모여앉은 촌락-이 나라 5천년력사에 국토통합의 절정기로 알려진 고려시기 천연요새였던 구주성의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말을 방목하던 곳이라 해서 마양이라 불리우는 마을 력사유적이 많고 전설 또한 많은 그 고장이 성찬이와 정희가 나서자란 고향이다. 뒤로는 수림 울창한 산밭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앞으로는 기름진 벌과 맑고 깊은 강을 품안

은 마양마을은 한쪽의 그림마냥 아름다웠고 살기가 좋았었다. 장작불에 쌀밥을 끓이며 물고기를 구워먹던 그 시절에는 가호와 식술이 나날이 번성했다.

그러던것이 《한일합병》을 강압적으로 실행한 왜놈들이 물밀듯이 쓸어들면서부터 어느새 사람 못살 고장으로 되고말았다. 일제의 《동양척식주식회사법》에 의해 뒤산은 《농림국》채별지로 내놓았고 앞벌은 군마목장부지로 떼웠으며 강가엔 아마공장이 들어앉아 물을 오염시켜버렸던것이다. 불과 몇해사이에 가난뱅이로 전락된 마을사람들은 토지수탈때 왜놈들한테 불어 벼락부자가 된 안지주의 땅을 얻어 부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오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농촌에서 태어나 함께 자라온 성찬이와 정희였다.

그들의 어린시절은 천방강과 더불어 흘러왔었다.

...강변에서 세 아이가 노닐고있었다.

머리를 제비꽂지처럼 파늘인 얼굴 해사한 계집애는 아홉살난 정희고 이마가 도드라져 장난이 세차보이는 사내애는 여덟살난 성찬이다. 다른 한 사내애는 그들의 소꿉동무인 용범이다.

발가벗고 물속에 뛰어들어 개헤엄도 치고 물싸움도 벌리던 애들은 모래벌에 나와 엮디여 살을 지졌다.

해야 해야 물 떠먹고 나오너라

여긴 쨍쨍 저긴 그늘그늘

물속의 해를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두드려 만든 모래집에 가둔 다음 《돌, 가, 보-》를 하여 지는 애가 버들밭에 가 방아깨비를 잡아다가 해님대접을 했다.

밥이 싫으면 떡을 줄게

떡이 싫으면 고기를 줄게

해야 해야 우리랑 함께 살자

그 놀음도 어느덧 싫증이 났다.

《우리 각시놀이 하자-》

웃을 주어입은 세 아이는 이번엔 《잔치》를 치르느라 바빠 돌아쳤다. 사기조박을 주어다 갖가지 《그릇》들을 정한 다음 모래로는 《밥》과 《팔보숭이》를 만들어 담고 진흙으로는 《찰떡》과 《송편》을 빚어 담았다. 그리고 버들가지에 풀잎을 꿰서는 《갈비찜》이라며 차곡이 쌓아 담았다. 그 다음 술피줄거리를 썰어 《콩나물채》를 해담았다.

《상》이 다 차려지자 성찬이가 뛰여가 방쪽에 매놓았던 자기 집 염소를 끌어왔다.

그가 《새서방》이 되어 염소잔등에 올라타자 용범이 고삐를 잡고 《둘러리》노릇을 했다.

《시여- 에라, 물러까라 쉬여까라 생랑군 행차 시여-》

요란스러운 《신랑행렬》은 방쪽에서 내려와 나무가치를 박아 《올바자》를 친 《신부네 집》에 이른다. 썸바퀴꽃을 머리에 꽂고 《방》안에 암전히 앉아있던 《새각시》 정희가 나뭇이 절을 하며 《서방쟁이》를 맞아들인다.

그들을 《큰산》에 나란히 앉힌 용범이가 검은 머리 파뿌리되도록 사이좋게 살라며 축사를 해낸다.

그다음 둘러앉아 《꽃떡》을 맛있게 먹었다.

《자... 이젠 날 저물기 전에 서방네 집으로 갑시다요.》

《둘러리》의 부축을 받으며 《서방》과 《각시》는 《말》에 올랐다.

그런데 이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에헤, 색시 환하게 잘생겼다. 도적맞이지 않게 꼭꼭 불안거라》하며 히들거리던 용범이가 그만 염소고삐를 놓쳤다.

이때판듯 염소가 달아나자고 와당탕 네발뿔을 했다.

그바람에 정희가 공중잡이를 하며 나떨어졌다. 팔목은 곱질려 툭툭 부었고 코에선 피가 흘렀다.

성찬이와 용범은 겁이 나 버들밭속으로 달아나 숨었다.

정희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때 성찬은 기장떡을 싸들고 앞집으로 건너갔다. 그랬으나 정희 어머니한테 회초리질을 당할것 같아 안에 들어가진 못하고 올바자박에서 머물거렸다.

그때 어디 심부름을 갔다오는지 키찍을 든 정희가 타박타박 걸어왔다.

《정희야, 놀자.》

《싫어.》

정희는 성찬이앞을 썸 지나쳐 들어가버렸다.

성찬은 등이 달아 집주변을 맴돌며 정희가 좋아하는 동요를 불렀다.

최과부가 부엌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뭘 줄공 말공 하지만 말고 왔으면 들어오려구나.》

성찬은 어렵게 방안으로 들어갔다.

떡을 정희앞에 내놓고 그의 팔목을 만져보았다.

《아프니?》

《...》

정희는 새뜩해서 말을 안했다.

그가 자기하고 다시는 놀지 않겠다고 할가봐 성찬은 기가 질렸다.

《우리가 우정 그런건 아니야. 고놈의 염소 에 참...》

부엌에서 들어온 최과부가 성찬이한테 나무람을 썼다.

《못난 녀석, 각시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해 말에서 떨어구나?》

《앞집 엄마, 내 잘못했어요. 이젠 그런 놀음 안 할게.》

성찬이가 풀이 죽어서 용서를 빌자 최과부는 서글픈 웃음을 짓는것이였다.

《일없다. 그저 씹질만 하지 말고 놀아라. 가뜰이나 숨막히는 세월에 너희들의 웃음마저 없어지면 무슨 재미로 살겠니. 정희야, 그 떡을 받아라.》

그래서야 정희는 앵돌렸던 속을 풀고 성찬이와 말을 했다.

둘은 어느새 찰떡 달라붙어 헤들거리며 떡을 나누어먹었다.

최과부는 방등을 켜놓고 앉아 바느질을 하면서 옛말을 들려주었다. 범한테 쫓기우던 불쌍한 오누이가 바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옛말이 끝나고 뒤산에서 들려오는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방안에 야릇한 메아리를 일으킬때 성찬이가 불쑥 엉뚱한 소릴 꺼냈다.

《앞집 엄마, 정희랑 나랑 이담에 하늘에 올라가 살래. 승냥이보다 더 나쁜 왜놈들이 있잖아. 그놈들이 앞집 아버지 군량미공출을 반대했다고 감옥에 잡아다 죽이지 않았어. 이담 우리도 잡아다 죽이겠다고 할지 알게 뭐야. 난 남자니까 밤에 뜨는 달이 될게 정희 해가 돼.》

《싫어, 싫어. 우리 둘 다 해가 되자. 난 성찬이랑 함께 있는게 좋아.》

《첻, 함께 있으면 진짜 각시서방이 돼.》

밤새 이러며 정희와 놀던 성찬은 그옆에 엎드려로 툴아떨어졌다.

새벽녘에 물흐르는 소리에 놀라 깨어난 최과부는 폭 젖은 성찬의 바지를 벗기며 엉덩짝을 두들겼다.

《에끼, 홍수에 가시집 떠내려가겠구나.》...

추억에서 깨어난 성찬이가 정희를 불렀다.

《집에 무슨 판 일이 생긴게 아니야? 얼굴색이 왜 그래?》

《...》

정희는 손톱여물만 잘근잘근 씹었다.

《앞집 엄마 병은 좀 나았어?》

《그저 그래.》

《무슨 병이게 그리 심하게 앓아?》

《심화병이 왔어.》

《심화병?... 왜?》

성찬이가 따지듯 캐물어서야 정희는 속을 터놓았다.

《내가 너자 <근로정신대>에 뽑혔다누나.》

《뭘-얼?!...》

눈이 떠준해졌던 성찬은 화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왜놈들은 《나라보위》요 《부장건설》이요 하는 각종 구실을 대고 나이든 청장년들을 굶어가다못해 근년에 와선 처녀들까지도 막 끌어가는판이었다.

그 불뚱이 열일곱살인 정희한테까지 미친것이다. 전혀 생각조차 안했던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벼락이었다.

《그게 정말이야? 날 놀리느라 한 소리지?》

《앤 참, 룡담할게 따루 있지.》

《그럼 왜 맘 편해 논만 뛰지고있어? 빨리 돌아다니며 뒤통수를 해야지.》

성찬이가 이러며 핀잔을 주자 정희는 한숨을 호-내그었다.

《돌아다니면 뭘하니. 돈을 써야 면제도 시키겠는데 돈이 어디 있지.》

《그럼 넌 <정신대>에 가겠다는거가?》

《할수 있지, 내 팔자가 그런걸.》

말은 그랬으나 정희의 고운 두볼로는 눈물이 방울방울 굴러내리고있었다.

그걸 본 성찬은 더욱 기가 막혀 죽을듯이 날뛰었다.

《정신이 쏙 나갔지. 그게 어떤덴줄 알어?》

왜놈들 몸노리개질 하는데라는 소린 차마 나가지 않았다.

성찬은 논이고 뭘고 다 췌던지고 집으로 뛰쳐들어갔다. 어머니한테 정희 일을 말하고 어쩌면 좋겠는가고 물었다.

어머니도 방금전에 정희네 어머니가 와서 신세를 한탄하다가 갔다면서 앞집 일을 근심했다.

《이제라도 시집을 보내면 될텐데 어디 그럴 대상이 있어야지. 앞집 엄마도 그래 속상해하더구나.》

그럴만도 했다. 나이들고 성성한 총각들은 다 뽑아가고 장마름네 아들 같은 절름발이나 굶사등이만 남았으니 아무리 죽을 일에 처했다 한들 그런 병신들한테야 어떻게 시집을 가랴. 그렇다고 또 생면부지인 읍거리나 린근 리들의 동네방네를 찾아다니면서 내 딸 데려가주소 하고 무턱대고 구혼을 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도무지 남의 일갈질 않아 온밤 잠을 못 이루던 성찬은 새벽녘에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내가 정희한테 장가들겠어.》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일어나앉았다.

성찬은 그러는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살거렸다.

《진짜가 아니고 거짓부리 장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구원해야지 신세 망치는 길을 가는걸 그냥 보고만 있을수야 없잖아요.》

《...》

너무도 심각한 문제여서 어머니는 즉시로 아버지를 깨워 의논을 했다.

아버지는 오륙이 굳어져서 험험 기침만 낚았다. 이웃집의 불행한 처지를 리용하여 남이 애써 키운 달덩이같은 처녀를 닥치는 대로 팔아넘기는 일이 허락될 수 없었던 것이다.

머리를 흔들고 물려앉았던 부모들은 성찬이가 사람을 살리고보아야지 않겠는가며 성화를 먹여서야 정신이 들어 조반을 치른 후 앞집으로 건너갔다.

최파부는 처음엔 당황하여 결심을 못 내렸으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질오래기라도 붙잡아야 될판이라 인차 응하고말았다.

그렇게 되어 정희와 성찬의 벼락혼인이 이루어졌다.

동리 늙은이 몇사람과 리 구장을 청해다가 막걸리 몇잔씩에 국수를 한그릇씩 대접하며 《잔치》를 치르었다.

그다음 량집 어머니들은 면사무소로 올라갔다.

결혼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정희가 시집갔다는 말을 들은 번대머리면장은 눈살이 찌긔해서 호적등록부만 뒤적거렸다. 그러다가 책상을 치며 성찬이 어머니한테 신경질을 썼다.

《그집 아들이 소화3년 11월생이니 상기 열여섯살이 아닌가? 이 비상시국때 애녀석이 무슨 장가를 간다는거요, 응? 아직 호적에 올릴 대상이 못 돼-》

《먹은 달수론 열여섯이래도 세는 해수로야 엄연히 열일곱살이 아니나요. 종씨를 이을 외아들이어서 서둘러 일을 치르었으니 사정 좀 봐줘요. 옛적부터 혼사는 자유가 아니었나요.》

《명단이 이미 군청에 올라간 상텐데 이제 그걸 바로잡자면 나만 똥줄을 갈겨야 하지 않아, 응?》

욕을 하면서도 면장은 명단에서 송정희의 이름을 빼 굶더니 그옆에다 《혼인》이라고 써넣는 것이었다.

두 녀인은 그제야 후- 숨이 나왔다.

화색이 만면하여 사무소를 나서는 그들을 쏘아보던 면장은 《어디 두고보자.》하며 별렀다.

그때로부터 한달도 못된 어느날이었다.

《징병》통지서가 성찬이네 집에 날아들었다.

성찬이네 집은 초상난 집처럼 되고말았다.

성찬이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면으로 뛰쳐올라가 면장을 만났다.

《나리님, 우리 앤 아직 열여섯살인데 어떻게 <징병>대상에 들네까?》

그러자 면장은 알미운 미소를 입가에 담았다.

《어허... 안택은 어째 그런 실언을 하시는고? 소화3년 11월생이면 달수론 열여섯이래도 세는 해수로야 엄연히 열일곱살이 아니요. 흠... 열일곱이면 당당한 <국민>이요. <국민권>을 가진 사람은 결혼의 자유와 아울러 <나라보위>의무도 지닌다는걸 알아야지.》

《?...》

성찬이 어머니는 면장의 덧걸이에 걸렸다는것을 알았으나 그 음흉스런 덧걸이를 물리칠 힘이 없어 꼼짝 못하고 끌려들고말았다.

성찬이가 제정된 날자까지 면사무소에 나타나지 않자 경찰관주재소의 왜놈순사가 칼을 절걱거리며 그의 집을 찾아왔다.

《징병》에 응하든가 아니면 전시 《국가총동원령》 기피죄로 오라를 지고 감옥으로 끌려가야 할 판이었다.

성찬은 당장 어디론가 달아나 숨어살고싶었으나 자기대신 구류장에 갇히어 고역을 치를 아버지를 생각해 그러지 못했다.

성찬이가 집을 떠나기 전날밤 정희는 남을 위해주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을 구멍에 빠진 그를 생각하며 눈물을 지었다. 잠을 못 이루던 정희는 비상한 결심을 먹고 자기의 함치르르한 머리태를 아낌없이 잘랐다. 그것을 무명실과 섞어 배피를 만들었다.

최파부는 한절반 열이 빠져 성찬을 붙잡고 탄식을 했다.

《내 이제 무슨 체면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살겠냐, 영? 차라리 내가 가자꾸나. 내가...》

《진정하세요, 앞집 엄마. 세상구경 하는셈치고 한 일년쯤 나가 바람을 쏘이고 오겠는데 뭘 그래요.》

성희네 어머니를 안심시킨 성찬은 혼연히 삿잡문을 열고 큰길에 나섰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동구밖까지 배래주었고 어머니는 군청에까지 함께 올라갔다.

얼굴색이 하얗게 질린 정희는 고개를 소곳한채 성찬의 뒤를 말없이 따르기만 했다.

동구밖에 나설 때 정희가 품속에서 돈 5원을 꺼내 가만히 성찬이한테 주었다.

성찬은 당황하여 그의 손을 뿌리쳤다. 10원이면 송아지 한마리를 살 때이다. 그 절반값이나 되는 돈을 장만하느라 가난한 정희네가 큰 고생을 했으리라는것이 헤아려져 차마 받을수가 없었다.

《두었다가 앞집 엄마 약이나 사주어.》

그러자 정희는 눈물이 가랑해서 성찬을 책망했다.

《길 떠나는 사내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 되겠어. 어서 넣어.》

성찬은 끝내 그한테 지고말았다. 하지만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쓸 생각은 없었다.

읍거리에 들어서서 점방앞을 지날 때 성찬은 얼른 그안에 들어가 은가락지를 좋은걸로 하나 사가지고 나왔다

군청에 도착하여 신체검사를 결친 후 허름한 군복을 갈아입을 때였다.

정희가 들고온 보따리를 헤치더니 배피를 꺼냈다.

《속이 약해 자주 배탈을 앓군 하는데 이걸 띄여.》

성찬이가 점직해 머뭇거리자 정희는 제 손으로 배피를 그의 배에 감아주었다.

그때야 성찬은 정희의 실하던 머리태가 성글어진걸 알아보고 눈빛을 흐렸다.

《나같은게 뭐라고 그 아까운 머리태를 다...》

《옛적부터 너자들은 가장 가까운 남자한테 머리태를 잘라 바쳤대. 그의 명이 머리카락처럼 끊기지 말고 길어지라고.》

《...》

징모생들이 헌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정거장에 도착하기 바쁘게 《꽤!-》 알미운 소레기를 지르며 기차가 들어왔다.

정거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했다. 어느 구멍으로 새어나왔는지 이번 징모생들이 태평양 전쟁의 최전선인 남방에 보충병으로 파견된다는 말이 돌며 본인들과 가족들을 절망케 했다.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 생리별의 쓰라린 감정에 젖어 떠나는 사람도 울고 보내는 사람도 울었다. 남자들은 그래도 소리는 삼키고 눈물만 보였으나 속이 얇은 녀자들은 왕왕 울음소리부터 내었다. 아이를 업은 한 젊은 아낙네는 《당신없이 내 혼자 어떻게 살랴?》하고 설음을 터뜨리더니 애고대고 통곡을 하다가 실신해 땅바닥에 쓰러지었다.

《어머니, 아버지랑 앓지 말고 오래오래...》

성찬은 목이 메여 더 잊지 못하고 머리만 깊숙이 수그렸다.

《우리 걱정은 말고 어디 가든 몸건사에 신경을 쓰지마. 이 에밀 생각해서라도 제발 죽지 말고...》

어머니는 키가 경중한 성찬을 어루쓸다가 눈굽을 찍었다.

《승차- 야, 야, 빨랑빨랑...》

여기저기서 헌병들의 고탈소리가 울리었다.

누군가의 총대가 성찬을 나들문쪽으로 툭 떠밀쳤다.

성찬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옆에 서있던 정희가 얼른 그를 붙들었다.

성찬이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정희의 몸을 붙잡았다. 싱그러운 체취가 확 흘러드는 순간 성찬은 숨막힐듯 한 감정을 체념했다. 그는 무의식중에 중얼거렸다.

《날 기다리지?》

《응, 오년이요 십년이요 기다릴게. 어떻게 하나 살아돌아와.》

《정희를 생각해서라도 내 쪽...》

《꼭 그렇게 해. 자기와 결혼한 너자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려거든.》

《그거야 불가피한 사정으로 치른 가결혼이 아니었어.》

《아니, 난 그걸 가결혼이라고만 생각지 않아. 성찬이가 나한테 바친 애정이라고 봐. 그런 진실한 정은 돈주고도 못 사는 법이야. 그래 그 정이 나한테 무엇보다 귀중했던거야. 하기에 난 죽을 때까지 성찬이라는 한 남자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어.》

《고마워!》

성찬은 정희의 진정에 눈곱이 젖어올랐다. 비로소 그는 자기도 정희도 험한 세상의 란파에 부대끼랴에 일찌기 철이 들어 이미 인생의 청춘기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눈시울을 습박이던 성찬은 은가라지를 조심히 꺼내들었다. 이제 헤어지면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할수도 있는 정희의 몸에 자기의 진실한 애정을 한가닥 온기로 남겨주고싶어 그걸 산것이었다. 가라지와 정희의 모습을 바꾸어 마음속에 품고 가고싶었었다.

성찬은 정희의 손가락에 은가라지를 살며시 끼워주었다.

《우리 이담 만나면 진짜로 각시서방이 되자.》

은가라지를 만지며 귀밑을 붉히던 정희는 물기가 뽕양게 서린 눈으로 성찬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야, 야, 빨랑빨랑...》

딱딱한 총대가 다시금 성찬을 밀었다.

성찬은 정희의 동식한 어깨를 꼭 껴안아주고 흠으로 밀려나갔다.

이윽하여 렬차는 목갈린 기적을 울리며 역구내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누군가를 안타까이 찾는 성찬을 본 정희는 봄비는 사람들을 헤치며 그쪽으로 반달음쳐갔다. 그랬으나 때가 늦어 성찬이의 시선을 붙잡지 못했다.

꽤!- 칙쑹, 칙쑹...

점차 멀어지는 렬차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정희는 한자리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어떻게 보면 귀여운 남동생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더운 남편같기도 한 사랑스런 성찬을 다시는 못 볼수

도 있다는 느낌이 들며 가슴속에서 설음이 복받치었다.

정희는 끝내 전주대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었다.

《기다리겠어... 기다리겠어...》

여기서 글은 끝났다.

나는 가슴이 저리어 빗어놓은 조각상처럼 앉아있기만 했다.

적십자중앙위원회 일군은 내결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그 녀인한테서 은가라지와 이 자료철을 받은 우리 인민보안성에 의뢰를 하여 립성찬아바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립성찬아바이는 <징병>에 걸려 남방전선에 갔던것이 사실이며 그후 고향에서 관리일군을 하다가 1980년대 말엽에 사망했다더군요.》

그의 아들은 이곳 도일보사에서 기자로 사업하고. 그래 이렇게 찾아온겁니다.》

아득한 허공에서 울려오는것만 같은 그 말소리를 멍해 듣기만 하던 나는 화뜰 몸을 떨었다.

《그러니 그 <꽃엄마>가 송정희?!...》

《그는 이름이 홍선화였습니다. 오래전에 친우한테서 부탁받은 일을 했을따름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기자동무 어머님이 송정희가 아닌가 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열네살이나 아립니다.》

《아무래도 <꽃엄마>를 다시 만나 구체적인 내막을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담화내용과 은가라지를 인편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일군은 우리 신문사를 떠나갔다.

그를 바래주고 들어온 나는 자리에 앉아 창밖만 점도록 내다보았다.

역구내에서 흐느끼던 무명치마저고리차림의 아릿다운 처녀가 자꾸만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송정희!

그는 왜 아버지와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까?

×

나는 저녁식사후 어머니한테 낮에 있는 일을 말해주었다.

어머니는 송정희에 대한 소리가 나오자 대뜸 안색을 흐리었다.

《정말 불행한 여자였다. 좋은 세월도 못 보고 글썄...》

심중한 생각에 잠겼던 어머니는 일어나 옷방 장롱안에서 흰보에 싹것을 꺼내왔다.

보를 펼치니 희숙한 무명실에 머리칼을 섞어 뜬 배피가 드러났다. 나는 어렸을 때 그걸 아버지가 항상 배에 두르고있는걸 보아왔었다.

《진작 그에 대해 얘기했어야 하는건데...》

이러며 배피를 한참이나 어루쓸던 어머니는 천천히 추억의 실토리를 풀기 시작했다.

남방전선

물, 물, 물...

남방전선의 앞선에 위치한 섬은 온통 물천지였다. 구릉구릉- 함소리가 메아리치는 허공에선 채찍같은 비줄기가 며칠째 쏟아졌고 해안에선 태풍에 밀려온 바다물이 당장 섬을 휩쓸어버릴듯 파도쳐 밀려들곤 하였다. 야자숲 우거진 산골짜기들에선 싹누런 탕수가 와당탕탕탕 바위돌을 굴리며 흘러내렸다.

그렇듯 혼한 물이었고 몸 절반이 물에 잠기운 상태였던만 림성찬은 계속 물만 찾았다.

《물, 물, 물...》

그의 의식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있었다.

림성찬은 통산제20사단에서 신병훈련을 받고 여기 남방전선으로 파송되어왔었다.

그는 해상륙전대인 가우찌중대의 《예비소대》에 배속되었다. 조선청년들로 구성된 《예비소대》는 말이 군대지 실상은 군속노예나 같았다. 평시에는 구조물축조같은 어려운 공병작업과 군량미보장, 땀감마련, 침구류세탁 등 중대의 온갖 잡사를 걸머지고 교역을 치르었으며 전투때에는 앞장에서 돌격하며 총알받이노릇을 해야 했다. 그래 그들한테는 군사등급을 가리는 령장도 없었으며 평상시엔 총도 차례지지 않았다.

태평양전쟁말기에 이르러 왜놈들은 방어에로 이전했다.

그때부터 해상륙전대는 주로 해상방어대의 임무를 수행했다.

1945년 7월.

가우찌중대는 싱가포르 앞바다의 어느 한 섬에서 연합군의 함대를 격퇴하기 위한 방어시설을 구축하고있었다.

그때 전선형편이 급작스레 변하며 연합군에 의해 해상이 봉쇄되었다.

린접파의 령계가 끊어졌고 퇴로도 차단됐다.

며칠 못가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포위에 들어 열닷새째 되던 날 아침 가우찌중대장이 기관총수들을 꿈무늬에 달고 《예비소대》막사에 나타났다.

《쟁인슈고(전원집합)-》

가우찌의 서슬푸른 고향소리에 놀라 맥없이 누워있던 소대원들은 급기야 밖으로 뛰쳐나와 대렬을 지었다.

성찬이가 처음 왔을 때만도 60명이던 인원이 절반도 더 줄어 스무명이 되나마나했다.

성성한 사람들은 한발 먼저 나와 앞줄에 섰고 환자와 허약자들은 비척비척 늦게 나와 뒤줄에 섰다.

《뒤줄, 우로 돌아 이십보 앞으로 갓-》

가우찌의 구령에 따라 열한명의 환자, 허약자들이 한쪽 공지로 나가섰다.

그러자 가우찌가 기관총수들한테 췌 손짓을 했다.

기관총수들이 환자, 허약자들쪽으로 총구를 돌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땅 땅 땅...》

요란한 총성과 함께 시체들이 풀판에 널리었다.

경악실색하여 굳어진 앞줄 사람들에게 가우찌는 천연스레 뇌까렸다.

《중대의 식량사정과 관련하여 부득이 취한 조치다. 아무래도 죽을 놈은 빨리 죽어 식량을 남기고 살놈은 끝까지 살아 결사항전을 해야 할게 아닌가.》

살기를 풍겨놓고 사라지는 가우찌를 노려보던 성찬은 이발을 으드득 갈다가 돌을 집어들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돌 친 손을 잡아당겼다.

《그러단 다 죽네.》

박동수였다. 뒤통이 호걸스럽고 의협심이 강해 《예비소대》의 대장으로 떠받들리우며 소대기동노릇을 해오는 사람이다.

그는 소대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지만 대가 바른 성찬을 친동생처럼 사랑해주었었다.

《동수형, 이렇게 살바엔 차라리 죽는게 낫지 않나요.》

성찬이가 탄식을 하자 동수는 눈을 부라리었다.

《죽긴 왜 죽어? 끝까지 살아 한을 풀어야지. 때를 기다리세.》

동료들의 시체를 산에 묻은 《예비소대》대원들은 주린 창자를 불안고 진지를 파러 나갔다.

며칠이 지나 가우찌중대장이 다시금 《예비소대》막사에 나타났다.

성찬이네는 어떤 불상사가 또 생길것 같아 치를 떨었다.

그들을 막사앞에 내다세운 가우찌는 앞세우고 온 왜놈련락병 사이끼한테 명령을 했다.

《배낭검사-》

사이끼련락병은 성찬이네 배낭을 뒤지여 아껴오던 예비식량을 모조리 털어냈다. 그걸 자기가 갖고온 빈 배낭에 한알도 남기지 않고 다 담는 것이었다.

불룩해진 배낭을 흐뭇해서 보던 가우찌는 《이제부터 군량 자체해결이다.》 하고 내뱉더니 련락병을 데리고 지휘부쪽으로 유유히 사라지었다.

그날부터 《예비소대》는 굶주림과 싸워야 했다. 야자열매를 따먹다가 그마저 없어지자 뱀을 잡아먹고 풀을 뜯어먹었다. 그러다가 뱀한테 물려죽고 벼랑에서 떨어져죽고 로질병에 걸려죽었다.

마지막엔 박동수와 림성찬 둘만이 남았다.

어쩌다 먹을것이 생기면 성찬이 입에 넣어주곤 하던 동수도 며칠째 기침을 쿨럭쿨럭 쫓더니 덜컥 자리에 눕고말았다.

성찬은 혼자 비를 맞으며 산으로 올랐다.

개울가 바위결을 지나는데 스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바위밑에 커다란 《도그자》(독구랭이)가 또 아리를 들고있는것이 보였다. 얼룩덜룩한 몸뚱아리와 혀를 날름거리는 대가리를 보니 오싹 소름이 끼쳤다. 독이 세고 성질이 사나운 그놈한테 물려죽은 사람들이 떠오르며 겁이 났다. 하지만 뱀고기를 얻어다 동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작대기를 추켜들고 독구랭이한테 접근했다. 목숨을 내대고 결투를 벌린 끝에 다행히 그놈을 까누히고 씹오리로 목을 매 들었다.

20키로는 잘될 뱀을 질질 끌며 몇걸음 옮기는데 머리우에서 휘파람소리가 새되게 울리었다,

길가 너럭바위우에 중대지휘부의 사이끼련락병과 고노야위생병이 앉아있었다.

중대장한테 물려 먹이사냥을 나섰던 그자들은 성찬이보다 뱀을 먼저 발견했으나 물리울가봐 덤벼들진 못하고 지켜보기만 하다가 성찬이가 그놈을 《전리품》으로 만든 후에야 가로챘 꾹꾹이를 한것이였다.

《오이, 이리 가져와.》

《?!》

성찬이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그들은 총구를 성찬의 이마에 갖다대었다.

그래 어쩔수없어 《전리품》을 내놓았다.

다른 무엇이 없나 하여 사방 돌아쳤으나 나뭇이파리 하나 걸려드는데 없었다.

성찬은 종내 빈손을 안고 막사로 돌아왔다.

동수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성찬은 너무 급해 약을 얻으려 중대지휘부를 찾아갔다.

지휘부로 가는 길가의 막사안에 얼굴이 누렇게 뜬 사병들이 죽은듯이 누워있는게 보였다.

기아와 병마는 왜놈군인들도 생의 막바지로 몰아가고있었다.

성찬이가 도래굽이 산기슭을 지나는데 삼태기 안처럼 우묵한 골안에 위치한 《위안부》막사쪽에서 하사관 서너놈이 담가를 맞들고 왔다. 담가안에는 앓음소리를 내는 《위안부》가 누워있었다.

바다가둔덕에 이른 놈들은 주저없이 그 《위안부》를 물속에 던져넣었다.

조선처녀가 파반수인 열댓명의 《위안부》들을 사지판으로 끌고다니면서 온 중대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육체를 짓밟개놓고 막바지에 이르자 저렇게 처리해버리는것이였다.

정희도 아마 《정신대》로 끌려갔더라면 저런 신세가 되었을것이라는 생각에 막 소름이 끼쳤다.

성찬이가 중대지휘부천막안에 들어서니 그곳에선 장교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뱀고기를 구워먹고있었다. 성찬이한테서 빼앗은것이였다.

시뻘건 피가 툭툭 떨어지는 고기점이 사람고기처럼 환각되어 안겨와 성찬은 진절머리를 쳤다.

약을 얻으러 왔다는 그의 말을 들은 가우찌는 피와 고기점이 잔뜩 게발린 입을 찹 벌리고 너털웃음을 쳤다. 그러다가 불시에 소래기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우리 황군도 약을 못 먹어 무더기로 죽어나간다. 그런데 뭐 너희놈들까지 약을?... 아무래도 똥질 놈인데 어서 가 편해지도록 숨줄을 끊어주란 말이야.》

그 순간 성찬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탄했다. 일상시에도 자기를 임진전쟁때 《조선정벌》의 선봉장이었던 가도우 기요마사의 17대손이라고 으시대며 조선인 사병들에게 온갖 민족적멸시를 해온 놈한테 죽음의 마당에서 한조각 동정이라도 얻어볼가 했으니 이 얼마나 우매한짓이였는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표독스러운 가우찌의 갱뿔한 상통을 쏘아보던 성찬은 리성을 잃고 부르짖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총질을 하고 칼질을 하는 당신도 사람이요?》

《사람?!... 그래, 사람이 아니다 여기 사람같은게 어느 한놈이 있느냐?》

이러던 가우찌는 별안간 칼을 뽑아들며 고향을 질렀다.

《칙쇼!-》

눈앞에서 번쩍 섬팡이 일어나는 순간 성찬은 배를 그러안고 넘어갔다.

가우찌가 그의 배를 찔렀던것이다.

정신을 잃은 성찬을 놈들은 참호구석에 내다버렸었다....

성찬은 어슴푸레 정신이 들었다.

그는 쿡쿡 쑤셔나는 배를 손으로 더듬었다. 배피에 푹 뻘 피가 느껴지고 끊어진 실밥사이로 상처가 만져졌다. 성찬은 자기가 배피를 찢고있어 칼이 깊이 박히지 못했으며 내장도 터지지 않고 상처도 지혈되었음을 알았다.

천만다행이였다.

《정희, 고맙소!》

그 순간 정다운 속삭임이 귀가에서 울렸다.

《기다릴게 꼭 살아돌아와.》

(그가 기다리는데 여기서 죽어선 안된다.)

《살아서 원쑤를 갚아야지.》

동수의 섬난 웨침이 성찬을 흔들어깨웠다.

그는 안간힘을 쓰어 몸을 일으켰다. 이발을 사려물고 물이 첨병이는 참호안을 기여나갔다. 턱우에 올라 얼마간 정신을 가다듬은 후 지휘부막사를 향해 돌진했다.

성찬은 막사문을 건너차고 들어서며 문가에 세워져있는 경기관총을 집어들었다.

뱀고기를 게걸스레 쳐먹고 자빠져있던 장교들이 기절초풍을 했다.

《네놈들때문에 원통하게 죽은 선여덟명 <예비소대>원들의 이름으로...》

따다다당...

원한은 불벼락이 되어 쏟아졌다.

지휘부를 들부시는 총소리에 놀란 놈들이 전투 태세를 취하며 몰려왔다.

나타나는 족족 모조리 싸갈기던 성찬은 총알이 떨어지자 육박전을 벌리며 돌진했다. 그러다가 도대굽이에서 놈들의 총탄에 얻어맞고 바다물에 떨어졌다 성찬은 섬에 몰래 정찰을 왔던 그 지방 항쟁세력의 쪽배를 만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필리핀의 어느 한 어촌마을에서 숨어살던 그는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중국을 거쳐 조국으로 돌아왔다.

1946년 4월.

2년만에 성찬은 고향땅을 다시 밟았다.

동구길에 들어서던 성찬은 밭을 갈고있는 애젊은 부부를 보았다. 앞에서 소고뚜레를 끄는 예쁜 여인이 정희의 모습을 편상시켜 성찬은 솟음치는 환희로 하여 숨이 막힐것만 같았다.

(내가 왔소, 정희!... 우리 내 나라, 내 땅에서 밭갈고 씨뿌리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보자구.)

그런데 집에서는 슬픈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송정희는 온데간데없이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 후 지금껏 종무소식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딸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이다가 병이 나 세상을 떠났었다.

처마가 무너지고 거미줄이 칭칭 드리운 정희네 집을 돌아보던 성찬은 울바자기둥에 손을 얹고 한숨을 내뿜었다.

정희, 어쩌다 이렇게 됐소? 어쩌다...

성찬은 농사를 짓는 바쁜 속에서도 매일 동구에 나가 읍으로 향한 신작로를 살피곤 했다. 혹시 정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였다. 한달, 두달... 속이 까매 기다리다 못해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여기저기 안타까이 뛰어다녔다. 그랬으나 매번 헛물만 켜고말았다. 만가지 의혹과 억측이 꼬리를 잇달으며 성찬을 괴롭혔다. 도대체 어떤 일로 누구한테 아무 말도 없이 고향에서 사라졌는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죽었으면 흔적이라도 남겼을것이고 살았다면 소식이라도 있을게 아닌가...

그런 속에 달과 해가 바뀌어 조국해방전쟁도 치르었고 전후복구건설시기도 지나갔다.

1964년 여름.

30대 중엽의 한 사나이가 마양마을에 나타났다.

매이르게 머리카락이 희고 얼굴이 화상을 당해 엷음투성이인 그는 성찬의 소꿉동무인 용범이었다.

성찬이보다 한해 늦게 《징병》에 걸려 왜놈군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르다가 또다시 섬나라 아이찌현 노다지구에 끌려가 고달픈 이국살이를 하던 그는 20여년만에 귀국선을 타고 돌아온것이였다.

눈물겨운 상봉을 한 날 저녁 성찬이와 용범은 석양비긴 구룡강변을 거닐었다.

버들뿌리를 훑으며 조용히 굽이치는 강물소리는 애뜻한 감회를 자아내었다.

강물과 더불어 멀리로 흘러간 지난 생활을 더듬던 그들의 화제에는 소꿉동무인 정희에 대한 이야기가 올랐다.

정희가 지금까지 행처불명으로 되어있으며 또 성찬이가 오늘까지도 그를 기다리고있다는걸 안 용범은 너무도 기가 막혀 항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다가 목갈린 음성으로 시 한수를 서글피 읊었다.

숙대끝에 거미줄 감아들고

잠자리 쫓아 버들방천 뒤희늘

너와 나 손잡고 맑은 하늘 바라보니

그 하늘엔 해님 달님 밝게 웃으며

우리 살 초가삼간 짓고있었지

달님집에 내 올라 꽃씨 뿌리며

해님집에 당신 오길 기다렸건만

아, 님이여 나의 님이여!

용범의 입에서 갑자기 비통한 신음이 튀어나왔다.

《19년전에 저세상 사람이 된 그를 아직도 찾고 있다니...》

《그럼 그가?!...》

성찬은 발밑이 꺼지는듯 한 충격을 느끼며 굳어졌다.

《꽃같은 몸이 참혹한 치욕을 당하다가 그만...》

용범이가 1945년 6월 일본군 라남제19사단에서 신병훈련을 받을 때 있던 일이라고 한다.

어느날 청진앞바다의 해안방어공사에 동원되었던 훈련생들은 방진리라고 부르는 어촌마을 뒤산에 통나무를 찍으러 갔었다.

그들이 산과 잇닿은 강가를 지나는데 옷차림을 별나게 한 처녀들이 주런이 앉아 빨래를 하는것이 보였다.

일본군 《위안부》들이였다.

모두들 얼굴을 찡그리고 지나쳤다.

하나같이 얼굴이 빨갛고 기맥이 없는 《위안부》들을 무심히 훑어보던 용범은 한 여자한테 눈길이 미쳤을 때 흠칫 놀랐다. 용모가 특이하게 아릿다운 그는 송정희였던것이다.

잘못 보지 않았나 하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틀림이 없었다.

고향에선 행방을 몰라 간이 마르도록 찾고있는데 여기 와 이런 생활을 하다니?!

당장 그를 만나 사실여부를 알아보고싶었으나 군사규률때문에 몸을 뺄수가 없었다. 이튿날 정오때에야 교관한테 돈을 찢려주고 20분간의 시간을 허락받았다.

용범이 산골안에 자리잡은 《위안소》에 가 평안도 구성에서 온 송정희를 찾으러 한 《위안부》가 《하야꼬?》하며 되물더니 어제 밤 그가 강물에 빠져죽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 저주로운 다나카소좌놈때문이에요.》

용범은 그래도 행여나 하여 《위안부》들의 속소에까지 가보았다. 판자를 x 자로 대고 못을 쳐 박은 어느 한 방의 출입문에 《하야꼬》라는 이름과 함께 정희의 사진이 붙어있었다. 남모르는 사연을 하소연하듯 몹시도 애수에 찬 표정이였다.

...

《정희... 정희가 그렇게 되다니?!》

그가, 그가 더는 내곁에 올수 없단 말이지...

상실감을 이길수 없어 성찬은 허청허청 강변길을 걸어나갔다.

그러니 이젠 영영 그를... 아 세월이여! 너 다시 우리에게 옛시절을 되돌려줄수는 없느냐?

발굽에 걸쳐여 튀어오른 추억의 흔적들이 눈앞에서 환영처럼 얼른거렸다. 물속의 해를 불러내던 버들방천의 모래터, 정희와 사이좋게 《각시》《서방》이 되어 《염소말》을 타고 달리던 방죽길, 푸른 하늘로 터져오르던 청고운 웃음소리...

《난 남자니까 달이 될게 정희 해가 돼.》

《싫어싫어. 우리 둘다 해가 되자. 난 성찬이랑 함께 있는게 좋아.》

《그러단 진짜 각시, 서방이 돼.》

그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걸어안고 그대 정녕 갔단 말인가?

달님집에 내 올라 꽃씨 뿌리며
해님집에 당신 오길 기다렸건만

슬픔의 메아리가 찌임- 가슴을 울리는 순간 성찬은 흐으윽 몸을 떨었다.

《누가... 누가... 나의 사랑을...》 ...

여기서 어머니는 회고담을 끝냈다.

《송정희의 소식을 안 후에야 아버지 서른일곱살에 나와 결혼했다. 남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 내대고 왜놈들과 싸울 때 왜놈군복을 입고 그놈들한테 복무한것을 인생의 가장 큰 흑점으로 여긴 아버지 그 시절의 일을 누구한테 옮기는걸 질색했다. 네가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를 알고 인생을 알 때 모든걸 말해주겠다고 하더니 그만... 사실 나도 남편의 첫 편인에 대한 일이며서 입에 담기가 좋질 않아 될수록 피해오다니 오늘에까지 이르렀구나.》

아니었다. 모든것은 나자신 탓이였다.

그 시절 아버지의 눈에 비친 나는 얼마나 철부지였던가?

중학교를 졸업하며 대학입학문건을 쓰던 나는 아버지한테 물었었다.

《남들이 항일유격투정도 하고 조직적인 항정도 벌릴 때 아버지 대체 뭘했어요? 혹시 감옥생활이 무서워 순종만 한게 아니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쓸쓸히 웃기만 했었다.

-매 사람들의 운명에는 민족의 력사가 비껴나- 바로 그것을 나는 몰랐던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침에 읽은 신문이다.》

어머니는 색이 바랜 《로동신문》 한장을 내앞에 내놓았다.

신문에는 해방전 일본군 《위안소》들에서 감행된 놈들의 만행을 폭로하는 사실자료들이 실려있었다.

...

-당시 청진시 방진리에서 살던 김치근의 증언- 《하루는 놈들이 저들의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한 <위안부>를 마당에서 홀랑 발가벗기고 꺼꾸로 돌배나무에 매달더니 <그네뛰기>를 시키면서 히닥거렸다. 그다음 억지로 끌고들어가서...

평안도 구성이 고향인 그 <하야꼬>라는 <위안부>녀성은 밤새도록 어머니를 찾고 사랑하는 총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

아버지가 56살 그 많지 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유를 나는 비로소 알았다.

아, 아픈 마음을 안고가신 아버지!

남조선방문단의 《꽃엄마》, 그는 대체 누구인가?...

×

어느날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일군한테서 긴급 연락이 왔다.

아버지의 사진을 가지고 빨리 올라오라는것이였다.

하여 나는 털차에 몸을 실었다.

다음날 한낮무렵 평양역에 내리니 그 일군이 승용차를 가지고나와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눈 후 승용차에 올랐다.

차가 얼마쯤 달렸을 때였다.

일군은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나한테 내밀었다.

비로도천으로 자그마하게 포장한것이였다.

《?...》

《기자동무 아버님이 송정희한테 주었던거요.》

나는 조심스레 그것을 받아 펴보았다.

빛바랜 은가락지가 드러났다.

《!...》

쿵- 심장을 치는 아픔을 목새기던 나는 물었다.

《이것때문에 급히 불렀습니까?》

《그건 그거고 중요한건...》

거리를 물결치는 행복한 모습들을 내다보던 일군은 한숨을 쓸쓸히 지었다.

《정말 가슴이 아파서...》

승용차의 고르로운 동음을 누르며 울려오는 비감에 젖은 말소리가 나의 귀청을 아프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피흐르는 상처

1944년 11월의 어느날.

송정희는 중낮무렵 빨래소랭이를 이고 강가로 나갔다.

뒤집 성찬이네 빨래감이였다.

정희는 성찬을 떠나보낸 후 그의 집에 가 살다 싶이 하면서 일손을 돕곤 했었다. 량집의 부모시중과 농사를 맡아 하느라 힘겨웠으나 애오라지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고달픔을 이겨왔다. 그런 속에서도 짬이 생기면 아들딸들을 전쟁터와 부역에 내보내 손이 모자라는 집들을 도와주곤 했다.

동네어른들은 마음고은 정희를 누구나 다 칭찬하였고 그런 훌륭한 《머느리》를 둔 샘터집을 부러워했다. 그러면서 성찬이가 어떻게 하나 살아 돌아와 정희와 단란한 살림을 펴기를 진심으로 바라였다.

빨래방치를 껌싸게 두드리던 정희는 저도 모르게 읍쪽으로 뻗은 신작로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피나리보짐을 둘러멘 성찬이가 별썬 웃으며 걸어 올것만 같아서였다.

(편지라도 한장 보낼것이지...)

어느새 성찬이가 물속에 나타나 병글거린다.

그 모습이 없어질가봐 정희는 빨래를 멈추고 물속을 정겹게 들여다보았다.

그때 제방너머 큰길곁에서 자동차발동소리와 귀에 설은 왜말소리가 들려왔다.

했으나 정희는 자기 감정에 빠져 미처 거기에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

얼마후에야 가까이에서 어지럽게 울리는 발자국소리를 느끼고 얼굴을 들었다.

자기를 둘러싸고 징글맞게 웃는 왜놈들의 흉한 상통을 띄여본 정희는 소스라치며 일어나다가 강한 타격을 받고 쓰러졌다.

놈들은 까무라친 그를 자루에 걸어넣고 누가 볼세라 황망히 차있는 곳으로 갔다.

정희가 정신을 차린것은 군청의 어느 구석진 창고안에서였다.

그곳에는 스무살안팎의 녀자들이 여라문명이나 갇혀있었다. 이러저러한 장소에서 정희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략치되어온 읍거리와 촌락의 처녀들과 유부녀들이었다.

며칠후 놈들은 그들을 풍차에 실고 역으로 나갔다.

정거장에서 정희네를 렬차방통에 옮겨실었다. 뒤따라 두명의 왜놈헌병이 오르더니 출구를 막고 앉았 그들을 지켰다.

꽤액!-...

기구한 운명을 예고하듯 렬차는 한동안 기적을 구슬피 울리다가 덜컥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

불의에 들이닥친 무서운 재난에 치가 떨려 정희는 점차 멀어지는 고향땅에 자기의 행방을 알리는 웨침소리 한마디 남길 생각도 못했다.

분기점인 정주역에 들어선 기차는 개천쪽으로 궤 방향을 돌리더니 도망치듯 급급히 달리였다.

그때부터 헌병들의 감시가 더 강화되였다. 놈들은 처녀들의 소변출입까지 단속하며 액덕거리다가는 총대를 꼬나세우고앉아 한창 피여나는 그들의 고운 몸매를 욕심스럽게 훑쳐보곤 했다. 그러면서 휘파람을 쌍스러이 불어댔다.

개천, 고원, 함흥... 기차가 설적마나 애젊은 녀자들이 총대에 밀리어 울고불고 하며 방통에 실려곤 했다.

그렇게 되여 200명가량의 처녀들이 함께 가다가 라남역에서 내렸다.

그들은 곧장 왜군 제19사단본부의 전기철조망안으로 끌려들어갔다.

싯누런 금테를 두른 장성이 엄숙한 표정을 짓고 서서 《환영연설》을 했다.

《예포... 너희들은 대일본제국의 <대동아공영권>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황군의 장병들을 정신육체적으로 위안하기 위해...》

그날로 정희를 포함한 60여명의 처녀들이 방진리에 있는 00호 《위안소》로 끌려갔다.

《위안소》에서는 해당한 카트를 작성하며 정희에게 《하야꼬》라는 일본이름을 달아주었다. 동시에 간판후꾸(당시의 원피스)와 하오리를 내주었다.

고향 시내물의 향긋한 빨래냄새와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스배인 치마저고리를 벗어놓고 보기에 도 스산한 왜옷을 걸치느라니 숨이 막히고 몸이 뻘에 감긴듯 섣뜩한 전율이 일어났다.

치장을 바꾼 후 자그마한 방들이 하모니카식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풍해루》(전물이름)에 가서 방을 배정받았다.

곰팡내나는 다다미바닥에 보짐을 내던지고 털썩 주저앉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절망속에 장밤을 뜯눈으로 새웠다.

날이 밝기 바쁘게 소장의 집합구령이 날아들었다.

신입 《위안부》들앞에 자못 위엄스럽게 나선 소장은 전쟁에서 《위안소》의 역할, 그 《성스러운 위업》을 한몸 다 바쳐 열렬히 받들어야 할 《위안부》들의 사명과 임무에 대해 곱씹어 강조한 다음 그러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과정에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에 대하여 장황히 늘어댔다.

귀가 멍멍해지도록 듣고나서 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식당에 갈 생각도 있고 털썩 눕고말았다. 콧죽어버리고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그랬으나

집에서 눈이 까매 자기를 찾고있을 어머니때문에 용단이 내려지질 않았다.

다음날도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먹지 않고 나른해 누워있는데 중낮무렵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한 장교가 들어왔다.

주둔부대 지휘부 통신참모 다나까소좌였다.

그놈은 히물히물 웃으며 옷을 벗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러자 다나카는 그의 팔을 붙잡아 자리로 끌고갔다

정희는 몸을 뿌리쳐버리고 방구석에 가 박혀 오돌오돌 떨었다.

다나카가 다시금 다가와 정희를 끌어안았다.

《비켜요-》

정희는 자기의 몸을 구렁이처럼 휘감는 놈의 팔목을 짹 깨물었다.

다나카는 《악-》하며 벌렁 자빠졌다.

《야로-》

와닥닥 뛰쳐일어난 다나카는 성이 나서 씹씩거리다가 정희의 머리태를 거머잡고 그를 질질 끌며 밖으로 나갔다.

앞마당에서 다음순서를 기다리며 서있던 장교, 하사관놈들이 발악하는 정희한테 모두매를 안겼다.

그러다가 정희를 흘랑 발가벗기고 돌배나무가지에 꺼꾸로 매달아 《그네뛰기》를 시켰다.

한참 그런 다음 다나카가 반정신 잃은 정희를 다시 끌고 들어갔다...

...눈앞에 뽕양게 드리웠던 안개는 어느새 어둠의 장막으로 변한다.

밤나비마냥 그 어둠속을 너울너울 날아다니던 녀는 그리운 고향집뜨락으로 살며시 내려앉는다.

잠자리 꿈꿈...

정희는 싸리울바자를 따라 돌며 잠자리잡이를 하고있었다. 발뼘발뼘 발자국소리를 죽이며 걷던 그는 싸리대끝에 앉은 잠자리를 살짝 덮쳐잡았다.

꿈지가 새빨간 고추잠자리의 허리에 솔피이파리로 각시치마를 해입히고 하늘로 날려보낸다.

각시치마를 팔랑이며 재미나게 날아가던 잠자리가 돌배나무가지에 걸려 꺼꾸로 매달린다.

흔들흔들 그네를 뛰던 잠자리는 별안간 정희 자기로 변한다.

고통을 참을수 없어 정희는 성찬을 소리쳐 찾았다.

《성찬이- 성찬이-》

목놓아 부르면서 울던 정희는 자기의 얼굴을 더듬는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고 소스라치며 눈을 떴다.

《미찌꼬》가 언제 왔는지 곁에 앉아 손수건으로 온통 흠과 눈물범벅인 정희의 얼굴을 닦아주고있었다.

옆방들에서 절망에 빠진 탄식과 흐느낌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정희는 동료들도 자기와 같은 일을 당했음을 알았다.

(그런 속에서도 나를 위해주느라고...)

《선화, 고마워.》

《...》

《미찌꼬》는 눈물이 가랑해서 정희의 찢어진 옷설을 여며주었다.

홀어머니를 집에 두고 왔다는 비슷한 생활처지와 서로 고운 마음씨로 하여 차안에서부터 남달리 가깝게 지내오는 그들이었다.

《미찌꼬》는 도회지에 신식방직회사가 건설되며 처녀회계원을 요구한다는 먼서기의 열림수에 넘어 고향을 떠났다고 한다.

《선화, 우린 어찌면 좋니?... 난 죽고말테야. 이렇게 살아선 뭘하겠니.》

《이미 틀려진 인생인데 이제 죽는다고 수치가 찢어지겠니. 이왕 이렇게 된바엔 살아 복수를 하자꾸나. 난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테야. 살아서 못하면 죽어 저승에 가서라도 목살을 물어뜯고말겠어.》

정희네는 자기들은 이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며 인간이하의 생활을 이겨나갔다. 그런데 참기 어려운것은 자기들한테 사람답지 않은 생활을 시키면서도 사람답게 살라고 강요하는자들의 성화였다.

어느날 아침 정희네가 식당으로 가는데 소장이 그들을 불러세웠다.

《어디서 해먹던 본때들인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신사참배부터 하고 오갈 땐 일본창가를 해야 한다는걸 모르는가? 창가도 안하고 조선말만 켠켠거리면서... 자신들이 영예로운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을 다지란 말이다.》

《저희들이나 실컷 그래볼거지.》

정희가 한마디 중얼거렸다.

그 소릴 들은 소장의 얼굴이 대뜸 수수떡빛같이 되었다. 소장은 《고노아마(이 간나)...》하더니 정희를 대렬앞으로 불러냈다.

《<하야꼬> - 다시 말해봐.》

《우리한테 그런걸 요구하지 말아요. 우리야 어디 사람이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왜?》

《그건 당신네 자신들한테 물어봐요.》

정희는 울분에 차서 대꾸했다.

《이년의 주둥아리는 어떻게 돼먹었길래...》

소장의 갈구리같은 손가락이 정희의 입안으로 쑥 들어갔다.

놈은 정희의 버들이파리같은 입술을 사정없이 비틀어댔다.

《내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기미가요를 불러-》

《...》

《좋다, 내 부를테니 따라해라.》
거친 목청이 허공으로 선물을 뿌려올렸다.

《...》

《쌍년, 불러라. 불러라-》

《...》

《쌍년-》

우지직하는 소리가 나더니 정희의 입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걸 본 《미찌꼬》가 달려나와 소장을 탁 밀쳐버렸다.

《우리가 어쩔다고 아침부터 행패질이야? 당신들이 우릴 짐승처럼 여긴거야 사실이 아닌가요.》

그의 선동에 힘을 얻은 다른 《위안부》들도 소장을 둘러싸고 한마디씩 했다.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자 소장은 겁이 나서 쫓무니를 사렸다.

그날 《하야꼬》와 《미찌꼬》는 헌병대에 끌려가 죽량이 되도록 얻어맞고 달구지에 실려왔다.

그때부터 놈들은 그들 두사람한테 노란 딱지를 붙이고 남다른 고통과 수치를 들씩었다.

어느날 항만경비대의 장교 한놈이 그의 방을 배정받고 들어왔다가 거절을 당했다.

놈은 화가 동해 군화발로 《미찌꼬》를 짓몽개였다.

《미찌꼬》가 다리를 물고 늘어지자 놈은 니뽀도로 그의 아래배를 쭉 갈랐다.

잡부들이 《미찌꼬》의 시체를 걸어내갈 때 정희는 그를 붙들고 통곡했다.

《네가 이렇게 가면 어머니 어찌니? 아-...》

《저승에 가서라도 물어뜯고야말겠어.》

《미찌꼬》의 부릅뜬 눈은 이렇게 웨치는것만 같았다.

이곳에 그냥 있다가는 개죽음만 당한다는걸 깨달은 정희는 그때부터 도망칠 기회만 노렸다.

그러던 어느날 밤.

다나까소좌가 잔뜩 취해가지고 정희방에 나타났다.

《하야꼬, 오늘은 더 이쁜걸.》

아무리 치근거리려도 정희가 응하지 않고 하던 바느질만 계속하자 놈은 피우던 담배불을 그의 허벅살에 들이비볐다.

《앗!-》

정희는 급하여 화뜰 몸을 일으켰다.

그때 다나까가 그를 휘감아 품속에 걸어넣었다.

흔히 놈들이 쓰는 《정복하는 패감》을 맛보는 수법이였다. 바로 그로 인해 《위안부》들의 몸에는 담배불에 지지우고 칼에 찔리운 상처가 수도룩한것이다.

금시 일을 칠것처럼 놀던 놈은 술기운을 못이겨 털썩 자빠져 네활개를 뺐었다.

코를 쿵쿵 골더니 잠꼬대를 해댄다.

담배불에 데 물집이 험하게 생긴 상처에 천을 찢어 감던 정희는 수염이 부얼부얼한 놈의 상판에 눈총을 쏘았다. 서투른 조각가가 흙으로 막

빚어놓은듯 한 그 얼굴이 소장의 돼지상통과 합쳐지며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돌연 《미찌꼬》를 살해한 경비대장교의 표독스런 모습으로 변하였다.

《...몰어뜯고야말겠어.》

칼에 배를 갈리우고 절명한 선화! 그의 처참한 시신이 떠오르는 순간 정희는 온몸의 피가 꺼꾸로 솟구치는듯 한 분노에 자제력을 잃고말았다. 그는 물병을 집어들고 발로 다나까를 흔들어깨웠다.

《어-영?》

다나까는 눈이 게슴츠레해서 고개를 쳐들었다.

《조선의 론개를 알아?》

《론개? 조선에 그런 개가 있는가?》

《개가 아니라 사람이다. 비록 천한 기생의 몸이었지만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이 나라의 절개높은 녀인이다. 내 오늘 그런 조선의 한 녀인을 네놈한테 보여주마.》

말이 끝남과 동시에 다나까의 머리에 병세레가 안겨졌다.

퍽, 퍽 ...

저주로운 원썬놈의 대갈통을 목사발로 만들어놓은 정희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검방을 돌던 수위가 기겁을 해 자빠졌다.

곧 소동이 일어났다. 헌병들이 달려오고 보초소의 사이렌이 앙앙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위안소》는 발각 뒤집혔다.

정희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발이 내키는대로 달렸다. 뒤늦게 그의 행적을 안 놈들이 악악 고함을 지르며 뒤쫓았다. 왜놈들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걸 안 정희는 산코숭이버랑으로 가 강물에 몸을 던졌다....

《다 왔소.》

승용차가 멈춰선 곳은 어떤 청사앞이였다.

현관나들문앞에 서있던 미모의 중년부인이 우리를 마중나왔다.

《최선생님, 늦으셨군요.》

《회장선생, 미안합니다. 전에 말하던 그 00일보사의 기자선생을 모셔오느라고...》

《그러니 이분이 림성찬의...》

녀인의 아름답게 생긴 얼굴에 추연한 빛이 언뜻 비끼였다.

무슨 말인가 더 하려고 하던 녀인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급히 우리를 안으로 이끌었다.

《<꽃엄마>가 벌써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회의실에 들어서니 그곳에선 기자회견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중앙의 여러 신문사의 관록있는 기자들과 외국 기자들이 객석에 앉아 주석단쪽을 응시하고있었다.

주석단에 앉은 한 녀인이 서울말씨로 발언을 하는중이였다.

발언자를 쳐다보던 나는 놀랐다. 《꽃엄마》라기에 무척 젊고 예쁠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도 늙고 쇠진한 녀인이었기때문이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투성이얼굴... 80고령의 할머니였다.

《저 할머니가 송정희요.》

일군의 목갈린 음성...

《이자 뭐라 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땅이 되고 땅이 깨어져 바다가 된듯 한 충격에 가슴이 활랑거렸다.

《저 홍선화할머니가 바로 송정희라는데 ... 그렇게 된덴 또 기막힌 사연이 있더군요.》

그 기막힌 사연이 확성기에서 울려나오고있었다.

...밥고기사냥을 나왔던 아래마을의 김로인이 정희를 물속에서 건져냈다.

김로인네 집에 업혀와 이틀만에야 정신을 차린 정희는 가슴을 치며 울었다.

《날 왜 살렸어요? 난 살고싶지 않아요!-》

살이 온통 담배불에 지지우고 칼날에 긁히운 정희를 어루쓸며 김로인은 엄하게 타일렀다.

《임자가 죽으면 좋아할건 왜놈들밖에 없네. 죽긴 왜 죽어, 놈들 보란듯이 오래 살아야지. 머지않아 백두산장수가 거느린 조선군사들이 진격해와 왜군을멸살시킨다는 소문이 돌던데 우리 희망을 안고 살아가자구.》

백두산장수! 조선군사! 그래, 조선사람이 다 죽은건 아니었구나!... 희망이 생겼다. 그 희망은 이미 포기해버렸던 생에 한점 불꽃을 튀겨주었다. 살자, 살아서 왜놈 망하는 꼴을 꼭 보고야말테다. 이런 강심으로 로인이 떠주는 미음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진짜로 얼마 안있어 해방이 되었다.

정희는 고마운 로인내외한테 깊숙이 머리숙여 절을 한 후 치욕의 흔적이 깃든 그 고장을 떠났다.

어느 한 군의 읍소채지를 지날 때였다.

사람들이 해사하게 생긴 젊은 사내를 둘러싸고 벽작 떠들고있는것이 보였다.

알아보니 군청서사질을 해먹던자였다.

《이 개같은 놈아, 그새 왜놈턱주거리에 붙어 잘 처먹었지.》

그자의 면상을 향해 날아가는 돌멩이...

그 돌은 해방의 환희로 설레이던 정희의 심중에도 풍덩 날아들었다. 그 충격에 놀라 잠들었던 죄의식이 깨었다.

《친일파를 타도하라!》는 성난 웨침소리가 울리고 일제잔재숙청이 벌어지는 거리와 마을을 지날때면 어데선가 자기를 아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 《<위안부>질 하던 더러운 년! 그 짐승같은것들과 같이 어울려. 왜 죽지 못했어.》 하고 고아떨것 같아 속이 조마조마해졌다.

귀향의 기쁨은 어느덧 불안으로 바뀌었다. 고향이 가까와올수록 근심도 커졌다.

내 무슨 낯으로 마을사람들을 대한단 말인가. 본의든 본의 아니든 왜놈들한테 몸을 더럽힌거야 사실이 아닌가.

새 세상에서 얼굴들고 살수 없는 제 처지를 깨달은 정희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주역에서 우연히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을 만났다. 그한테서 어머니가 자기때문에 속을 썩이다가 병이 도져 해방도 못 보고 죽었으며 성찬이도 《징병》에서 영 돌아오지 못했다는걸 알았다.

정희는 불쌍한 어머니를 부르며 목놓아울었다.

그후 생각을 고쳐먹었다. 아무런 살붙이도 없는 고향에 가서 왜놈한테 몸을 더럽힌 녀자라는 비난을 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자기를 전혀 모르는 고향에 가 새롭게 살기로 했다.

그는 우선 선화의 어머니를 만나 딸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남으로 향했다.

꽤액!-

목갈린 기적을 울리던 렬차는 구성과 방향이 다른 남쪽으로 힘들게 자리를 뒀다.

칙폭칙폭...

정희는 승강대발판에 얼어붙은듯 서서 점차 멀어지는 어슴푸레한 룬팍으로 안겨오는 구성땅의 산밭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고향이며, 부디 나를 잊어다오.

어머니, 어머니묘소에 차마 나설수 없는 죄 많은 몸이여서 술 한잔 못 붓고 그냥 가는 이 딸을 용서하세요, 어머니....

딸의 소식을 전해들은 홍선화의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자리에 누워 앓는 그를 홀로 두고 떠날수가 없어 정희는 며칠간 머무르며 간호해주었다.

선화 어머니는 닷새만에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정희가 가겠다고 하직인사를 하자 그는 정희의 불행한 처지를 동정하여 눈물을 짓더니 함께 살자며 붙잡았다.

두 녀인은 어머니와 딸이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그때부터 송정희는 홍선화가 되었다....

이 얼마나 기이하고 불우한 인생인가?

내 손은 어느새 은가락지를 더듬고있었다. 손 끝에서 마쳐온 짜릿한것이 심장을 아프게 비틀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아!...

눈물이 뿔양게 드리운 나의 시야에 향촌의 방쪽길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씬바퀴꽃이 곱게 핀 발쪽길로 《각시》, 《서방》이 되어 《염소말》을 타고 달리는 사내애와 처녀애...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청맑은 웃음소리...

《난 남자가 달이 될게 넌 해가 돼.》

《싫어싫어. 우리 둘다 해가 되자, 난 너랑 함께 있는게 좋아.》

《첿, 함께 있으면 진짜 각시, 서방이 돼.》...

그 순진하고 아름다웠던 인생들에 누가 수난의 상처를 안겼더냐?

달님집에 내 올라 꽃씨 뿌리며
해님집에 당신 오길 기다렸건만

《난 사랑을 하고싶었어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되고싶었어요. 허나 그 소망은 60년전에 이미 깨어진 꿈으로 돼버리고말았답니다. 빼앗긴 청춘, 파괴된 육체, 시들은 인생... 난 꽃같은 청춘을 되찾고싶었어요. 다시 아름답게 피어나고싶었어요. 그 애타는 심정으로 꽃을 가꾸기 시작했답니다. 향기롭고 빛갈고운 꽃을 집에도 심고 공원에도 심고 산기슭에도 심었답니다. 싱싱하게 피어난 아름다운 꽃송이를 나의 생일상에도 놓고 동료들이 제상에도 놓고 애젊은 신랑신부들의 행복을 축원하며 잔치상에도 놓았어요. 하여 이렇게 <꽃엄마>가 되었답니다.》

청중의 가슴을 아프게 두드리던 음성이 공명을 일으키다가 잦아들었다.

일군이 나한테 조용히 말했다.

《치욕의 역사를 남모르는 고통으로 가슴속에 묻고 살아오던 할머니는 복에 온 후 생각이 달라졌다오. 최근 섬나라에서 <위안부>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회피하며 <위안부들은 스스로가 그 일에 나서서 군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던 매춘부들이었다>는 망발을 제친다는걸 알고는 너무 분개해서 놈들의 과거죄행을 세상에 고발하고 단죄할 결심으로 자기가 누군가도 밝히고 기자회견도 요청한거요.》

나쁜 놈들 ... 저도 모르게 불끈 주먹이 쥐여졌다.

섬나라정부의 고위각료들이 《야스구니진자》를 뻔질나게 참배하며 군국주의 재부활을 꿈꾸고 《대동아공영권》을 노리고있는 사실이 상기되며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선군보검으로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력사의 죄악을 총 결산할, 다시는 이 땅에 수난의 유물이 생겨나지 않게 할 조선인민의 의지를 담은 계급교양기사를 속히 써 신문에 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꽃엄마》가 팔을 쳐들며 목놓아 웨친다.

《북과 남, 해외 조선겨레 힘을 합쳐 민족의 피맺힌 원한을 푼시다!-》

장내가 떠나갈듯 한 호응의 박수소리, 복수의 물줄기마냥 번쩍이는 촬영기의 섬광...

-피는 피로써-

력사의 준엄한 메아리에 휩싸여 가슴들먹이던 나는 누군가의 부름소리에 차감상태에서 깨어나다.

송정희녀인이 일군과 함께 내쪽으로 오고있었다.

《림성찬! 그분의 아드님이 어디 있다고? 어디 ...》

홍분으로 충혈된 녀인의 얼굴이 한송이 꽃으로 확대되며 나의 시야를 가득 메웠다.

나는 눈시울을 습벽이며 목메여 불렀다.

《정희어머니!... 어머니-》

여기는 기슭이 아니다

김성철

압록강 푸른 물결 굽이도는 기슭에
외진 산촌의 작은 분교 한채
아침마다 교문으로 들어서는 학생들도
학년마다 두셋 아이

한적한 마을의 시계종처럼
어김없이 울리는 정다운 음향
앞산뒤산 산울림하며
땡 땡...
퍼져가는 수업종소리 따라
평양의 아이들과 다름없이
미래를 비껴담은 별눈들이 빛나고

새 입학생들이 들어올 때면
교정에 먼저 심는 아기나무와 함께
애국의 마음도 함께 뿌리내리는 곳
갓가지 심고심는 나무들
학교와 마을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과 함께
지금은 무성한 교재림으로 설레이누나

조국이라는 크나큰 품속에서
외진감 따로없이 희망의 나래 키워가는 곳
이 땅이 끝나는 마지막두메골은
나의 혁명초소

우리 장군님 보내주신 컴퓨터에 마주앉아
해맑은 교실에 반짝반짝 빛나는
맑은 눈동자마다 래일의 꿈노을 담아주고
드넓은 세계를 불러
아이들앞에 다 펼쳐주는 곳

정거이 흘러내리는
압록강 푸른 물결에 실려
나의 분교 종소리 세상 멀리 메아리쳐가는
여기는 정녕 이 땅이 끝나는
외진 기슭이 아니다
배움의 내 나라
아버이장군님 한품에 안겨 꽃피어나는
아, 내 조국의 미래는 밝고밝아라

련시

환 송 역 두

박 철

《전승》을 향해 나간다

어제 밤 보도시간에도
오늘 아침 보도시간에도
없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하건만 보라
역두에 차넘치는 입대생들
푸른 군복들을 입고
인술군관의 구령 따라 움직이는
근엄한 모습들

중학을 졸업한
량불 붉은 저들속엔 있지 않느냐
온 학교가 다 아는
노래 잘 부르는 처녀도
수학수재라던 젊은이도
3대독자 외아들도

백명이면 백명의 가슴에
천명이면 천명의 가슴에
그렇게도 아름다운 희망
하나같이 총대에 없는 청년들
어디서 볼수 있으랴

웃는다 신입병사가
자기의 군모
동생에게 씌워주고
량불에 웃음꽃 피운다

웃는다 신입병사가
초소는 넘려말고
대학에 가 공부를 잘하라고
동창처녀와 마주서 웃는다

한두달 집을 떠날 때에도
걱정 많던 그
청춘시절을 빗내려
군대에 나가면서 웃으니

교정의 수업종소리는
병사들이 총대로 올려준것임을
장군님의 전선소식에서 배워온
우리 청년들

미제때문에
부모들이 허리띠 조이고
조국이 겪는 어려움을
뼈에 사무치게 새기며
두주먹 틀어쥐고 복수를 다져온 청년들

전쟁이 터졌다는
보도는 없어도
미제가 몰아오는 불구름에
오늘도
전선이 펼쳐져있는 이 땅

어머니조국을 지켜
원췌에게 죽음을 주리라
청년들 산악같이 떨쳐나
전선으로 나간다
아, 《전승》을 향해 나간다!

웃 음

총대가
군대가
그리고 사랑이고
그리고 소원이었던가

되고싶던 병사가
되지 않았다면야
작별에 가슴이 젖는 역두에서
저렇게 웃을수 있으랴

아, 부모들의 가슴에
동무들의 추억에
저 웃음 영원히 아름다우라고
병사는 총포탄속에서도
웃으리라

한 가정만이 아니다

한명이 군대에 나가는데
바래주러 나온 사람
열인가 스물인가
역안에도 역밖에도
인산인해를 이루었구나

이제 떠나가면
다시 못 만날듯싶어
이렇게들 나왔는가
머리흰 할머니며 큰아버지
인민반의 어머니들도

저희들의 당부가 없으면
군공을 못 세울듯
누구는 손자를 불러놓고
누구는 조카를 세워놓고
군사복무 잘하라고 당부하누나

묻노니 사람들이여
한명의 병사를
조국방선에 세우는것이
이처럼 온 가정 온 학교
온 마을의 중대사인가

병사는 꿈결에도
잊지 않으리라
부모들의 얼굴과 함께
할머니의 주름깊은 얼굴
동생의 귀여운 얼굴

병사는 불비속에서도
끝까지 지켜 싸우리라
부모들의 말쑥과 함께
친척들의 당부
동네어머니들의 부탁

어서 받아달라, 조국이며
수십수백명이 떨쳐나
아들이며 딸
손자며 조카
그대의 병사로 떠나보내거니

이제 이 사람들 마음
신입병사 저들을
선군시대 영웅으로 키우며
초소에 내리는 눈과 비
함께 맞으리라 함께 헤치리라

어서 떠나거라, 아들딸들아

아들들이
딸들이
부모들 가슴에 남기는 인사인가
역구내에 울리는 긴 기적소리
렬차는 떠나간다 방선으로

따라서며 손저어주며
멀어져가는 렬차에
부모들은 생각을 엮는다
아들딸들이 배치되어가는 부대는
어떤 부대인가

깊은 산중초소일수도 있다
사철 바람이 세차게 불어칠
섬방어대일수도 있고
원췌와 총구를 직접 맞댄
최전연고지일수도 있다

어쩌랴 그 어느 부대에 가건

아늑하게 꾸려진
병실이 있고
식당과 세목장이 있음을
부모들이여 알지 않느냐

저녁이면 누구나
반주음악기재에 맞추어
노래도 부르고
생일이면 군관가족들이 차려준
풍성한 식탁에도 앉으리라

뼈와 살도 나누어주고
죽음도 막아줄
지휘관들과 구대원들
그 동지애의 바다에
모두가 안기리라

어서 떠나거라, 아들딸들아
그 어느 부대에 가나

나의 신입병사들이 왔다고
너희들을 따듯이 안아줄
장군님품이 기다리고있거니

땅과 바다, 하늘

그 어느 초소에 가도
우리의 아들딸 신입병사들은
위대한 사랑이 넘치는
최고사령부 한프락으로 가는것이다!

어머니가슴에 꽃 한다발

아들은 총을 잡으려
초소로 떠나고
어머니는 집으로 간다
아름다운 꽃 한다발
가슴에 안고

아들은 없이
아들이 받아안았던 꽃다발
소중히 안고가는 어머니
품에 웃는것은 꽃인가
아들의 웃음인가

송이송이 꽃들에 모여온다
군사복무를 잘하겠으니
마음놓으시라고
굳이 꽃다발 안겨주며 말을 하던
사랑스런 아들의 얼굴이

목숨도 바쳐야 하는
군사복무의 그 어려움
어이 모르랴

하건만 정답게 손 흔들며
헉헉하게 떠나간 아들

오늘부터 어머니
소원의 창문
초소로 열어놓고 살리라
훈련의 어려움 이겨내라고
어서 싸움군의 용맹 지나라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리라
기어이 영웅이 되어
꽃다발의 주인공
어머니 정깊은 품에
저 꽃다발처럼 안기리라

아, 어머니는 지금
혼자 집으로 가는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꽃다발
아들의 모습으로 안고간다
아들이 받아안을 영웅메달로 안고간다

젊은 벗들에게 다시 하고싶은 말

박세욱

1

세월이란
날아가는 영원한 시간이다
인생은 거기에 비기면 순간이다
순간을 영원으로 사는이 있나니
불길속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대양의 깊이에 자기의 목숨을 묻고
한줌의 흙이 되어 이 땅에 보탠
그런 사람들은
백발이 갈기를 날리는
세월의 룡마를 타고 달리더라
그 빠른 세월도 그들을 따르더라

2

사랑은 심장에 있다

증오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심장에 없다면
어찌 참됨과 거짓을 가리랴
만약 그것이 함께 없다면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진펄을 헤치는것과 같으리
그것이 심장에 있기에
벗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원췌는 언제나 총구앞에 세우노라

3

가까운 이웃을 정하라면
나는 고난을 이웃으로 정하리라
그와 다정하게 지내리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함께 하리
그것이 수월치 않다는것을 아노라

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행복은 신비롭거니
 행복에만 습관된 사람들은
 언제보나 그 행복의 가치를 모르더라

4

때때로 생활에서 보게 되더라
 쉽게 약속하는 그런 사람을
 쉽게 약속하듯
 또 쉽게 잊어버리더라
 가볍게 험하게 대수롭게 하는
 그런 약속엔 언제나 보면 뒤따르더라
 돌이킬수 없는 뜻밖의 일들이
 언제나 약속을 쉽게 하지 말라
 때로 목숨으로 지켜야 함을 알라

5

나에게 천만재부를 준다 해도
 나는 나의 량심과 바꾸지 않으리라
 그 누구도 량심을 볼수 없다
 그것을 손으로 만져볼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일화

자결로써 반일항전을 호소한 황현

...

쓰러지는 집채를 피이는데선
 서까래 절반쪽의 공도 없으니
 오늘에 이 목숨 버린다 해도
 도리를 찾을뿐 충정은 못되리

생의 마지막힘에 의지되어 쪼아박듯 한치한치
 힘겹게 내달던 붓은 마침내 굳어져 움직일줄 몰
 랐다.

붓대를 으스러지게 틀어진 시골선비의 얼굴은
 절통함과 의분으로 세찬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심혼이 깡그리 비긴 절명시와 함께 숨결
 도 쇠잔해가고있었던것이다.

(아! 이 나라의 의로운 장부들아, 이 미천한 선
 비의 죽음을 국권수복의 칼에 담아다오!)

그가 바로 전라도 광양군 서석촌에서 출생하여
 구례라는 시골에 내려와 소란스러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던 시인 황현(1855-1910년 자는 운
 경, 호는 매천)이었다.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가.

멀리서도 가까이 보이고
 가까이서도 멀리 빛을 던지더라
 조국에 남긴 량심은 어디서나 보이거니
 만약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인간이 인간으로 남아있으랴

6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이다
 이름없는 들꽃도
 제 태어난 고장에 아름다움 보태고
 나는 새도 제 태어난 고장에 노래를 더하고
 심산에 흐르는 샘줄기도
 제 솟아난 땅에 젖줄기되어 흐르건만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세상에서 제일로 만들지 못한다면
 가장 부유한 땅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보다 조국에 부담스러운 사람은 없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앎음보다 못하리

황현은 나이 30에 생원진사시험에 합격하여 한
 때 조정으로부터 벼슬자리를 거둬 권고받았으나
 어지러운 시국을 통탄하며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
 고 선비로서 시와 문장짓기로 명망높은 문인들과
 의 우정에만 충신했다.

당시 구미여우같이 교활하고 악독한 왜나라놈
 들의 간섭으로 나라는 극도로 어지러웠고 국사를
 본다는 조정의 벼슬아치들이 왜놈들의 주구로 전
 락된 형편에서 벼슬살이를 한다는것은 황현에게
 있어서 최대의 모욕으로 느껴졌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전국 도처에서는 국권수복을
 위한 애국적인민들과 개별적량반선비들의 산발적
 인 의병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여기서 다소나마 힘을 얻은 황현은 인민들과
 의병들의 투쟁을 후세에 전하는것이 자기의 본분
 을 다하는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투쟁을 노래하
 는 수많은 한시와 의병투쟁 전말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야사집을 편찬하였다.

그러던 1905년 《을사5조약》이 간악한 왜놈들
 과 더러운 주구들에 의해 강압 《체결》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바깥출입조차 하지 않았으
 며 그후 1910년 어느날 신문지상을 통해 《한

일합병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세상에 정녕 없단 말인가.

아! 절통하구나, 절통하구나, 조선아!

방안문을 닫아매고 한동안 심신을 태우며 몸부림치던 황현의 눈에서는 불현듯 무서운 섬광이 번쩍이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내 어찌 살기를 원하겠는가.

하거늘 이 나라의 의로운 의병들과 선비들에게 나의 시로써 그들을 싸움에 불려일으키고 죽음으로써 향전을 호소하리라!

다음날 새벽 온밤 비통함과 의분으로 가슴을 허비던 황현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깨끗한 종이에 찢기듯 한 슬픔과 마디마디 절절한 소원이 담긴 절명시 4수를 써놓고 독약을 먹고 56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황현은 생을 마쳤으나 그의 시와 절명시는 전국 도처에 퍼져 류린석을 비롯한 수많은 인민들과 의병들을 국권수복의 향전에 격파마냥 불려일으켰으며 그의 자결의 뜻은 서슬푸른 칼과 총검마다에 비끼어 왜나라놈들과 친일역적들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강춘렬

우리 집에도 병사가 있으니

김춘호

아들아 너 집에서 자랄적에는
학교길에 랑랑한 너의 노래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너의 키가
이 어머니 기쁨을 꽃피주더니

너 초소에 선 그날부터는
입대증과 나란히 걸려있는
군복입은 너의 사진이
이 가슴을 자랑으로 설레게 하는구나

마을길에 나서면 이웃들이 반기며
군대나간 너의 소식부터 묻고
아이들은 후방가족 어머니라
정답게 나를 부르며 인사를 하고...

정말이지 옆집뒤집에서 아들딸들이
앞다투어 초소로 갈 땐 부러움도 끝없더니
지금은 얼마나 떳떳하나
우리 집에도 병사가 있으니

우편대호 적힌 너의 편지만 받아도
저도 몰래 이 마음 울렁이누나
조국땅 어디에선가
내 아들도 총잡고 서있다는 생각에

마을앞을 지나는 병사들만 보아도
행복으로 이 가슴 부푸는구나
장하고도 용감한 우리의 인민군대
내 아들도 그중의 한 병사라는 생각에

참으로 고마운 선군시대에
그 어이 선군의 덕만 입고 살라
우리 집에도 병사가 있으니
우리 집도 시대앞에 큰 자랑을 지녔구나

보람찬 복무 성실한 복무로
너 더욱 빛내거라 우리 집의 이 자랑을
총대를 제일로 사랑하는 시대에
총과 함께 전호에 사는 내 아들이

자라나는 너의 동생들도
때가 되면 너처럼 초소에 서려니
바치고싶구나 이 어머니는
자식이 열이라면 그 모두를 조국보위에
가정의 모든것을 장군님의 선군에!

아 진정 얼마나 좋으나
우리 집에도 병사, 병사가 있으니
내 어디 가도 떳떳이 말하리라
나도 병사의 어머니라고

벌을 그리는 처녀

고남철

휘영청 달맞이봉에 솟은 은빛달이
봄꿈에 취한 대지를 쓰다듬는 밤
한드레벨 처녀기사장
컴퓨터화면우에 농장의 포전도면 그리며
새해농사설계도를 펼쳐가네

하얀 건반을 두드리가면
사적봉기슭에서 황하천까지
일매진 논두렁 줄줄이 뻗어가고
앞방천이라 재둥너머라
번듯한 규격논들 일어서는 새 전야

푸른 잎새 너울치는 밭, 보리밭 지나
우리 장군님 보내주신
새 벼종자 콩종자 논밭에 묻어
아득한 지평선에 물결칠 오곡백과의 열매
땅에도 펼쳐보고 가슴에도 안아보는가
처녀의 눈빛 환희에 젖고 꿈에도 젖고...

한번 보면 멋들어진 사진갈구나
다시보면 한쪽의 그림갈구나
지난날엔 쫓박쫓박 빼기논들
누구네 논자리 아무개 밭자리
포전도를 그릴 때면
농장의 일꾼들 땀인들 얼마나 흘렸던가

어이 알랴 기사장 저 처녀
고삭은 드레줄에 명줄을 쳐매고
피눈물 퍼내던 어느 농민의 손녀일지

봉건의 때자국같은 흔적을 영영 묻어버린
또 한차례의 토지혁명으로 천지개벽한 땅의
모습우에
사람들 마음은 얼마나 커지고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워 졌느냐

저기 대령강엔 제 손으로 일떠세운 발전소
불밝은 창가마다 넘치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새벌의 일만경치, 생활의 천만음향을 다듬으며
웃음짓는 처녀야 너는 분명 그리누나
드레박에서 컴퓨터까지 아득히 나래쳐오른
선군시대 농촌의 새 생활 새 모습을

총대가 있어
우리 장군님 선군의 총대가 있어
원썬들 이 땅을 불태우려 온갖 발광 다했어도
만대가 살 인민의 터전이 더 넓어진다는 진리
한드레벨
그 이름에 새긴 이 땅, 이 대지!

잘생긴 청춘대지에 옛이름 정다운 벌이여
과학과 기술을 운명의 보탑으로 틀어진 새
주인들
총알같은 이삭으로 조국을 받들어가며
선군 8경 한드레벨에 천년행복을 가꾸어간다
아, 벌을 그리는 처녀야!

경구, 격언

· 우리들이 표현하려고 하는것이 무엇이든간에
그것에 대한 표현은 오직 한개의 말, 그것에 운
동을 주는 하나의 동사, 그 성격을 위한 오직 하
나의 형용사가 있을뿐이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
밖에 없는 명사, 동사 및 형용사를 발견할 때까
지 그것을 탐구해야 한다.

· 문장은 간단명료하게 아무런 문학적군더더기
가 없이 내야 한다. 쓸데없는 묘사에는 언제나
그 어떤 허식이 있는것이다.

·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것은 창작사업에서 아
주 효과적이며 본질적인것이다.

· 언어를 되는대로 다룬다는것은 사색도 되는
대로 즉 부정확하게 대강대강 막연하게 한다는것
을 의미한다.

· 하나의 작품에 하나의 단어를 두번 다시 반
복하지 않는 작가만이 진정한 언어의 능수이다.

전선을 라고 방답포로 향하며

정철 (1537-1594)
김정희 역

만경창과 헤치며 돛을 펼친 전함우에
서슬푸른 창칼들 못봉처럼 무수해라
동쪽으로 곧추 가 왜적소굴 쳐없애면
나라의 성밖에서 왜놈무리 막으리라

운주현에서

형님은 절도사요 동생은 관찰사라
남쪽땅 지켜냄은 우리에게 달렸도다
지락을 함께 모아 바다오랑캐 쓸어내고저
운주당마루에서 석양에 맹세하노라

홍의장군

최영년 (19세기 중엽)
김정희 역

홍의장군 박재우 분노에 치를 떨제면
왜놈들 피흘리며 무리로 쓰러졌네
천둥귀신 황홀히 하늘에서 내리는가
붉은빛만 얼핏 봐도 적의 간담 싸늘해졌네

수군을 훈련시키며

엄의길 (18세기)
김정희 역

맑은 가을 먼 바다에서
수군함대 훈련할제
만리밖 강남땅이 한눈에 보이누나
이발에 까만 칠 한 왜놈들아 얼씬 말라
룡천검을 허리에 찬
우리 수군 지켜섰거니

세상을 근심하노라

류린석 (1842~1915)
김정희 역

내 조선을 사랑하노니
저 왜놈이 원썬로다
왜놈의 머리 왜놈의 입
왜놈의 온몸을 증오하노라
어찌 왜놈의 몸과 머리 입뿐이라
왜국의 정치를 더욱 미워하노니
경중이 있을소냐
왜놈 왜국 그모두 우리의 원썬로다

작가의 거울

19세기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이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문호인 로씨야작가 레브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1828~1910)의 책상우에는 언제나 원고지와 책, 타원형거울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어느날 새로 사귄 친구가 그의 서재에 들어왔다. 그가 들어온것을 모른채 원고지에 그냥 펜을 달리던 톨스토이는 웬일인지 갑자기 거울을 쳐들고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친구는 의아해하며 다급히 물었다.

《안녕하오? 헌데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합니까? 내가 좀 도와줄수 없습니까?》

톨스토이는 눈물을 닦고나서 밝게 웃으면서 앞에 펼쳐놓은 원고를 가리켰다.

《친구, 별일 아니네. 난 지금 주인공의 표정을 관찰하는중이네. 묘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해서...》

이런 진실한 창작적자세로 그가 완성한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 《전쟁과 평화》, 《부활》등을 비롯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세계적인 명작들이다.

리승환